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Overview

Business & Strategy

Governance & Leadership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

Appendix

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연례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통합 연차보고서(Integrated Annual Report)로서, SK텔레콤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 미래 전망,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포함한 종합적 가치 창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2년까지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와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개별 발간하여 왔으나 지난 2013년 이후 두 보고서를 통합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SK텔레콤의 두 번째 통합보고서입니다. 이사회는 2015년 6월 24일 본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보고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는 재무·비재무 성과를 통합 보고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인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IR Framework)'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IR Framework가 제시하는 원칙과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 G4' 가이드라인의 포괄적(Comprehensive) 부합(In accordance with)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리드(LEAD) 기업으로서 UNGC 10대 원칙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UNGC의 이행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의 범위와 경계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라는 표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연결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 개별기업을 지칭합니다. 재무 데이터는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환경·사회 등의 비재무 데이터는 개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서술과 정보에 대해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SK텔레콤의 해외 지사, 자회사·투자회사, 공급망의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SK텔레콤의 재무적·운영적 통제력 및 사업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하였습니다. 보고의 지리적 경계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대한민국이며, 시간적 경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일부 정성적 활동은 2015년 4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보고된 과거 데이터에 주의가 필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재산정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14년 7월에 발간된 <2013 SK Telecom Annual Report>입니다.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LEAD)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7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된 이래 2010년부터 5년 연속 이동통신산업 리더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및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b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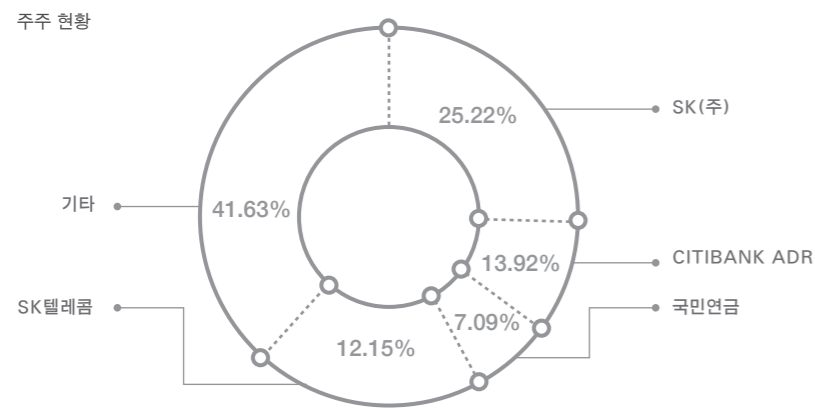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대한민국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2014년 말 기준 국내 가입자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그리고 '최초'의 기술과 서비스로 대한민국 ICT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말 기준

가입자 수	약 2,861만 명
임직원 수	4,253명
자회사 수	40개
증권거래소 등록 현황	한국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주주 현황



주주환원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1,028,541 백만 원
주당순이익	14,262원
배당금 총액	666,802 백만 원
배당 성향	64.8%
주당 배당금	9,400원

Inside This Year's Report

About This Report	2
About Us	4
New Possibilities	6

1. Overview

CEO 메시지	18
비즈니스 모델	22
The Year 2014	26
1) 재무 성과와 전망	26
2) 핵심 운영 성과	30
3) 자회사 실적	32
4)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분배	36
5) 2014년 주요 경영활동	38

2. Business & Strategy

가치 창출 전략	42
1) 비전 & 미션	42
2) 차세대 플랫폼 전략	46
시장 현황 및 이슈	48
1) 시장 현황 및 전망	48
2) 세부 목표	50
비즈니스 케이스	52
1) 고객경험 혁신	52
2) 차세대 네트워크 리더십	58
3) 융합 및 컨버전스	62
4) ICT 활용 공유가치 창출	66
5)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	70
6) 인재 유치 및 투자	74

3. Governance & Leadership

거버넌스 리포트	80
1) 이사회 프로필	80
2) 거버넌스 모델	82
3) 기업시민위원회	88
리스크 리포트	92
1) 리스크 거버넌스	92
2) 리스크 프로필 및 대응전략	94
윤리경영	96
1) 윤리강령 체계	96

4.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

재무 성과표	102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110
비재무 성과표	116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118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28
제3자 검증의견서	130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34

5. Appendix

중요성 평가	138
CEO 인권정책성명	142
유엔글로벌콤팩트	144
SASB 인덱스	145
GRI 인덱스	146
재무 성과표(개별)	154

New Possibilities

지난 30년간 SK텔레콤의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화해 왔습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앞선 기술로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SK텔레콤은 이제 거침없는 실행력으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진화를 준비합니다.
고객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SK텔레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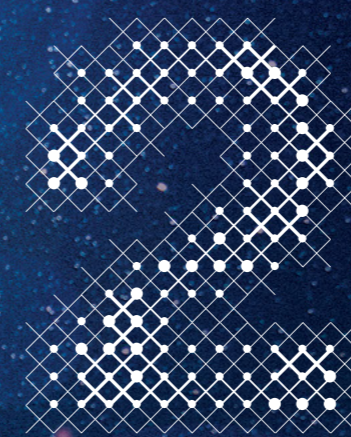
Connectivity

SK텔레콤의 가장 근원적인 경쟁력은 네트워크 품질입니다. 오직 고객가치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빠른 데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ICT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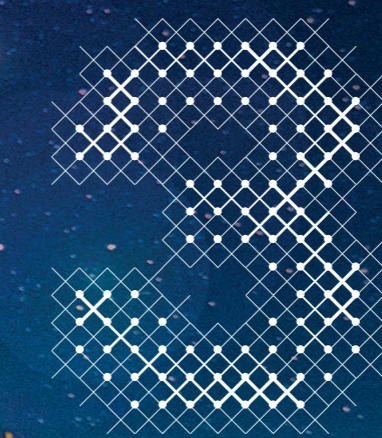
Expandability

이동통신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거침없는 융합과 혁신으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합니다. SK텔레콤의 새로운 변혁은 대한민국 ICT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Sustainability

산업 전반을 이끄는 1위 기업의 책임감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과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Connectivity

Accelerating the introduction of 5G, proudly and fearlessly pioneering the market.

속도의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니즈입니다.

SK텔레콤은 2,861만 가입자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고객가치를
제고하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네트워크 경쟁을 선도합니다.

최초를 두려워하지 않는 SK텔레콤의 자부심은 이제
새로운 ICT 세상을 열어줄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TE-A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전국 확대 2014. 06

1st

데이터 용량을 2배로 늘리는 2채널 4G
와이파이 기술 세계 최초 개발 2014. 10

1G-28s

1GB의 콘텐츠를 28초 안에 다운로드
하는 3band LTE-A 상용화 2014. 12

85 cities

전국 85개 도시로 3band LTE-A
서비스 확대 2015. 01

X 1,000

LTE보다 1,000배 빠른 5G 가능성 시사,
2015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7.55Gbps 속도 시연 2015. 03

Expandability

Striving to be a Next-Generation Platform provider beyond boundaries based on collaboration.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합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경계 없는 협력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콘텐츠 · 커뮤니티 · 커머스를 연계한 생활가치 플랫폼과 통합 미디어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미래 성장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ICT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T전화

통화와 데이터를 결합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출시 1년 만에 460만 가입자 확보 2015. 01

T키즈폰

위치 확인, 위급 알람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웨어러블 기기 T키즈폰 17만 명 가입 2015. 04

T아웃도어

외출 시 스마트폰 없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T아웃도어 10만 명 가입 2015. 04

IoT

세계 최초로 글로벌 표준 적용한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모비우스' 공개 2014. 12

Smart Home

모비우스로 제습기, 도어록, 보일러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홈 서비스 출시 2015. 05

Lifew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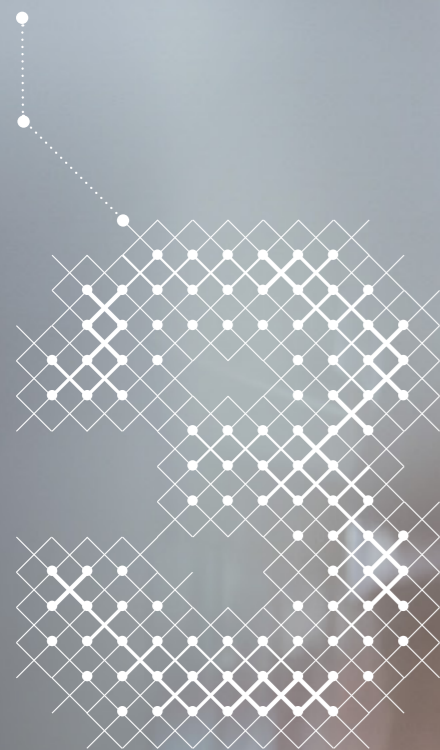
스마트빔, 에어큐브 등 다양한 영역의 스마트하드웨어 제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사물인터넷(IoT) 시장 본격 진입 2014. 12



Sustainability

The first to take the challenge with passion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SK텔레콤은 개인과 사회, 사람과 사물, 현재와 미래를 가치 있게 연결하고, 이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건강한 ICT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합니다. ICT 혁신을 통해 사회·환경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SK텔레콤의 도전이자 책임입니다.



45,357억 원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5'에서 3년 연속 서비스업종 브랜드 가치 1위 2015.03

7 years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 7년 연속 편입 2014. 09

18 years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한 국가고객만족도 (NCSI) 18년 연속 1위 2015. 03

34 teams

ICT 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를 통해 창업 벤처 육성

12.6%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통신형 내비게이션 T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

New Possibilities for Next 30 Years

SK텔레콤은 Vision 2020을 선포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2020년까지 기업가치 100조 원, 세계 100대 기업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이동통신 분야 1위 기업으로서 SK텔레콤은 시장의 한계와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서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ICT 생태계를 조성해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전이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이 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선사하는 것, 바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SK텔레콤의 가능성입니다.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1. Overview

CEO 메시지

비즈니스 모델

The Year 2014

Letter to Stakeholders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2014년은 SK텔레콤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해였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LTE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econd Device · 웨어러블 기기 · 사물인터넷(IoT)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ICT 산업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객가치'에 우선한 상품 · 서비스의 혁신으로 데이터 중심의 시장을 선도하고 IPTV · 헬스케어 · 기업솔루션 등 3대 성장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및 컨버전스 사업에서도 추가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LTE 서비스의 확장과 솔루션 매출 성장에 힘입어 2014년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7조 1,63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 서비스 혁신 및 고객가치 중심의 시장 운영을 통해 1조 8,251억 원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조 7,99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우수 회원사 리드(LEAD) 기업 활동,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 7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편입,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유지, 18년 연속(2015년 기준)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등 재무적 성과 외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인 인정이 이어졌습니다.

통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LTE 리더십 확보

2014년 SK텔레콤은 혁신적인 상품 · 서비스로 통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차별화된 네트워크 경쟁력과 고객가치 지향의 특화된 서비스는 LTE 가입자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단말기 유통법 도입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시장 안정화를 선도하였습니다. 'T전화', '무한 멤버십', 'T키즈폰' 등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여 고객의 데이터 체감 효용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3band LTE-A를 상용화하는 등 LTE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LTE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말 전체 가입자의 58.5% 수준인 1,674만 명이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사업의 비중 확대로 미래 기업가치 기반 마련

IPTV·헬스케어·기업솔루션 등 3대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 확장과 시너지 제고를 통해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IPTV 부문은 2014년 말 유무선 52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주요 유료 방송사업자로 자리 매김하며 미디어 영역으로의 사업 모델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체외 진단기기의 미국 FDA 승인과 함께 중국 심천에 메디컬센터를 오픈하여 향후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 전년 대비 20%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 기업솔루션 사업은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기업솔루션과 플랫폼, 에너지 절감 등 그린솔루션 및 보안솔루션 육성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리버와 NSOK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고, SK플래닛의 터키·미국·인도네시아 등 시장 진출과 SK하이닉스의 성장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조경제'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추구

SK텔레콤은 ICT 기술의 진화와 발전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세종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우수 벤처기업의 사업 모델 및 상품 개발, 판로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벤처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수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지닌 소규모 벤처를 지원하여 총 21개 팀의 사업화에 성공하였고('14년 말 기준), 그 결과 파트너들이 본격적인 매출 성장 궤도에 오르는 등 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ICT 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중독 예방 등 '바른 ICT 교실'과 디지털 격차 해소,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착한 ICT' 프로젝트도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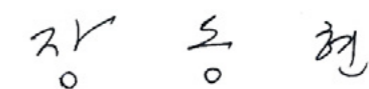
2015년, 기업가치 혁신을 통해 ICT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Vision 2020' 선포를 통해 2020년 기업가치 100조 원, 세계 100대 기업 도약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Partner for New Possibilities)'를 슬로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SK텔레콤은 'Vision 2020'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Biz Transformation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기업가치 혁신에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현재 통신산업이 직면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 일하는 방식과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변혁(Transformation)으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 ICT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이 추구하는 '차세대 플랫폼'은 통신을 기반으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심층적인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 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하고, 개방과 공유의 원칙하에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뤄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산업군 간 경계를 넘은 혁신과 ICT 생태계 확장을 추구하는 한편, 본원적 경쟁력과 고객 신뢰에 기반한 건전한 경쟁 문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실행력 기반의 기업가치 혁신을 통해 2015년에도 창조경제와 ICT 노믹스 구현에 앞장서고,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며 사랑받는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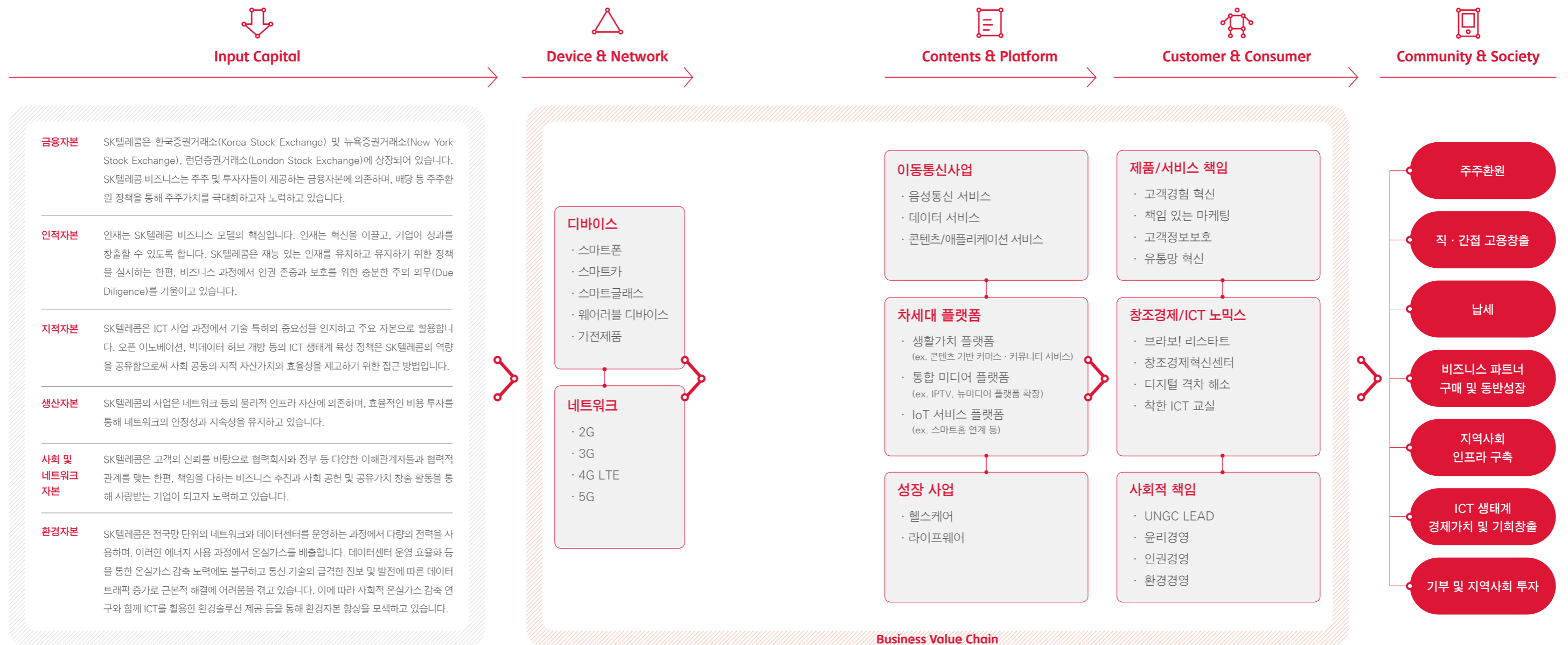


2015년 6월

SK텔레콤 대표이사 장동현

플랫폼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기업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존속이 아닌 사회 전체의 영구·지속적 성장을 위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및 컨버전스, 성장 사업 영역에서 차세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자본 영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자본 영향의 확대가 이해관계자의 가치에 최적화되어 사회 전체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보고 프레임워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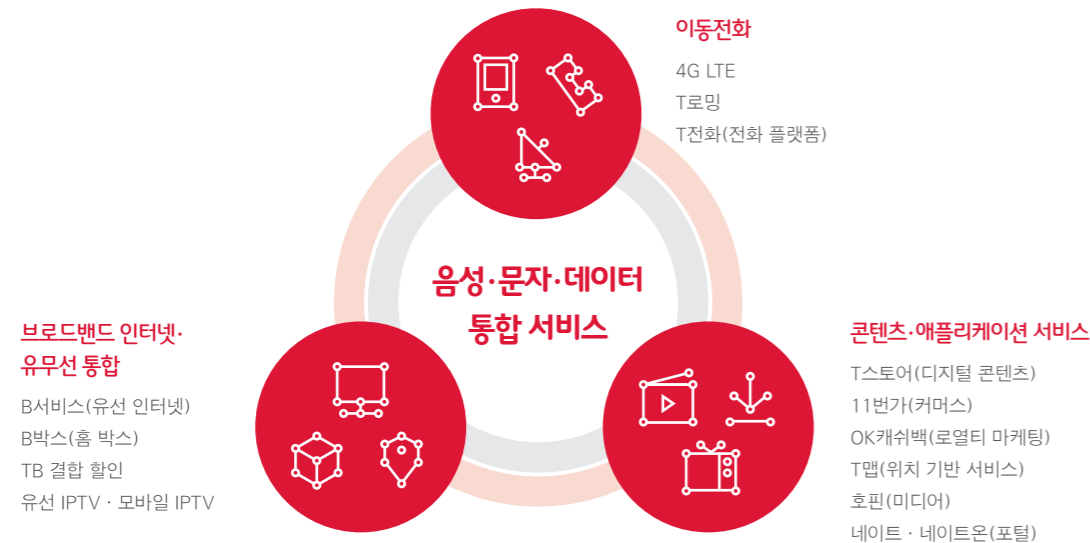
무선통신사업

SK텔레콤은 단말기, 요금제, 네트워크, 콘텐츠 등의 본원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TE의 상용화에 따라 통신시장 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SK텔레콤은 LTE 시장에서도 앞선 통신 기술력과 네트워크 운용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프리미엄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3년 6월 LTE-A 상용화 이후 2014년 6월 광대역 LTE-A(225Mbps) 서비스 상용화에 이어 2014년 말 기존 LTE 대비 약 4배 빠른 3band LTE-A 상용화에도 성공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출퇴근·지하철 프리'로 이루어진 'TPO(시간·장소·상황별) 데이터 무제한 옵션 상품' 등 혁신적 요금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2nd 디바이스 확산 추세에 따라 T아웃도어, T키즈폰 등 체감 효용이 높은 상품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통신사의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고객 유지(Retention) 정책을 강화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차별적 경험을 체감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경쟁 전환을 통해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이동통신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유무선 통합 서비스

SK텔레콤은 주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인 B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TV는 2014년 말 유무선 520만 명의 가입자를 달성하였습니다. IPTV 모바일 서비스인 'B tv 모바일'은 2012년 10월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14년 3월 100만 가입자를 넘어선 뒤 2014년 말

서비스 영역 : 개인고객 서비스



누적 237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3월 유무선 통합 서비스 시너지 제고를 위해 SK브로드밴드의 완전 자회사화를 의결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미디어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선도 사업자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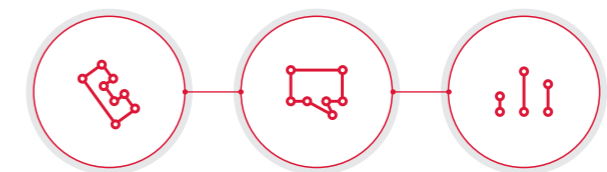
통신시장의 중심이 데이터로 급격히 이동하고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3,0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가 등장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성장 가능성 높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SK텔레콤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인 T스토어, 위치 기반 서비스인 T맵 등 개방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SK플래닛과의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플래닛은 넥스트 커머스 영역에서 국내와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역별 시장 현황에 적합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O2O(Online to Offline) 선도업체인 샵kick(Shopkick) 인수를 통해 북미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업고객 서비스

성장 사업의 한 축인 B2B 사업에서는 기존의 회선 중심 매출과 더불어 솔루션 매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IoT 플랫폼, IoT 솔루션, 그린, 페이먼트,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솔루션 영역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회선 중심 구조에서 솔루션 사업 중심 구조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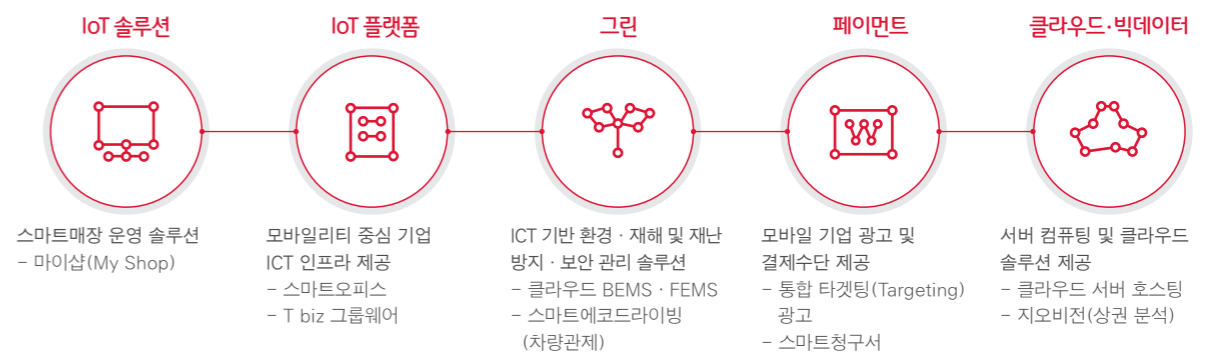
서비스 영역 : B2B고객 서비스

네트워크 비즈니스



기업용 음성·문자·데이터 네트워크 및 호스팅

솔루션 비즈니스



혁신적 상품·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

2014년 SK텔레콤은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선도하며 통신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경쟁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IPTV·헬스케어·기업솔루션의 3대 성장 영역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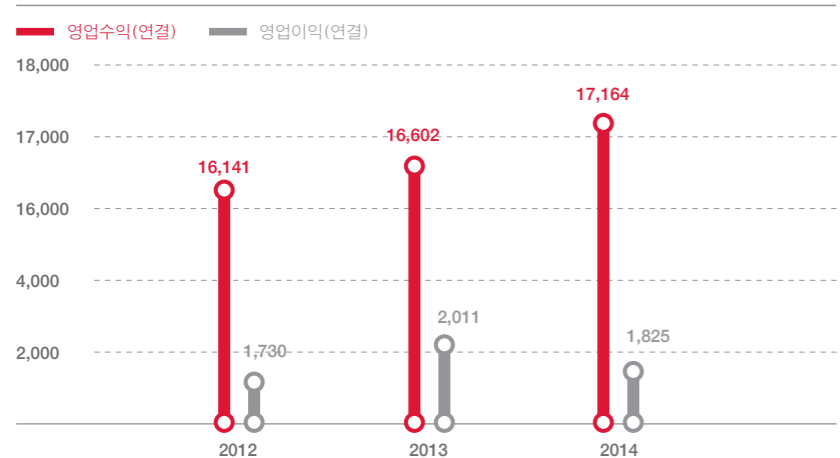
재무 실적

2014년 SK텔레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 17조 1,638억 원, 영업이익 1조 8,251억 원, 순이익 1조 7,993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TE 리더십 확대와 컨버전스 성장 기회 발굴

T전화, 무한 멤버십, T키즈폰 등 시장의 니즈에 맞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가치를 제고하고, 3band LTE-A를 상용화하는 등 LTE 리더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연간 총매출은 2013년 대비 3.4% 증가한 17조 1,6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B2B 솔루션 사업은 2013년 대비 21% 증가한 5,026억 원의 매출을 올려 확고한 중기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선 LTE 리더십으로 SK텔레콤의 LTE 가입자는 약 1,674만 명(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58.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솔루션 및 IPTV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등 3대 성장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

연결 기준 실적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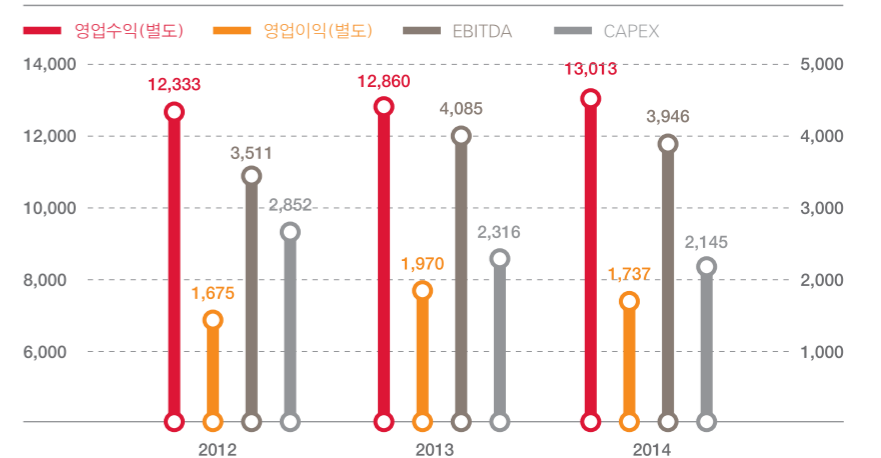
고객이 주인공 되고, 고객가치가 최우선 되는 SK텔레콤의 '창조적 고객가치 혁신' 선언

를 창출했으며, 중국 SK심천메디컬센터 개소, NSOK와 아이리버 인수 등 글로벌 및 컨버전스 사업에서도 추가 성장 기회를 발굴했습니다.

시장 과열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영업이익은 2013년보다 9.2% 감소한 1조 8,2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 강화로 해지율 감소를 추진해 수익성 개선과 시장 안정화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의 과도한 시장 과열에 따른 결과입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 등 투자회사의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평가의 등의 영향으로 2013년 대비 11.8% 상승한 1조 7,9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설투자비(CAPEX)는 SK텔레콤 개별 기준 2조 1,44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시설투자비는 기술 발전과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개별 기준 실적 단위: 십억 원



미래 전망

SK텔레콤은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사업의 추진 방식과 체질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발굴·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LTE 가입자 기반 지속 확장',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확산', '미디어 솔루션 등 성장 사업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통해 전년 대비 4.3% 성장한 17조 9,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규 사업 성장 가속화를 통해 17조 9,000억 원의 매출 목표 설정
- 2014년에 이어 시설투자비(CAPEX)의 하향 안정화 실현
- LTE 서비스 확산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산에 따른 수익률 성장 예상
- B2B 솔루션, 플랫폼 사업 확대 등 성장 사업 성과 가시화
- IPTV,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성장 사업 발굴

고객가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리딩 사업자 입지 강화

2015년은 지난해보다 더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가치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 전환을 완성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리딩 사업자로써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LTE 서비스의 지속적 확산과 데이터 사용 환경 개선에 따라 고객의 평균 청구 ARPU는 지난 2년 연속 4.5%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도 고객 혜택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 확산, 진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고품질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전년도 수준의 청구 ARPU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외부 환경의 변화 및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구조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사업 모델 시도

SK텔레콤은 기존 성장 사업의 성과 강화와 더불어 가입자 기반, 빅데이터(Big Data), 유통망 등 기존의 강점을 레버리지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사업들에 대해 기업가치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신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키워감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치의 도약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고객에 대한 태도와 사업 방식을 바꾸어 단말기 보조금을 뛰어넘는 새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심층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변혁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경계 없는 협력으로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에 기존 목표를 2년 앞당겨 2018년까지 SK텔레콤 기업가치 55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기업솔루션과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 to Machine), 회선사업에 기반한 IoT 플랫폼 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며, 또 다른 핵심 영역인 보안, 에너지 절감, 클라우드 등에서도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구 ARPU 추이

2년 연속 성장



2014년 기업솔루션 사업 성장률



통합미디어 플랫폼 기반 마련

IPTV는 2014년 말 유무선 52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주요 유료 방송사업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IPTV는 2014년 연간 156만 명이 증가해 연말에는 237만 명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는 당초 목표인 유무선 가입자 700만 명을 달성하는 동시에 통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진출 등 헬스케어 영역의 가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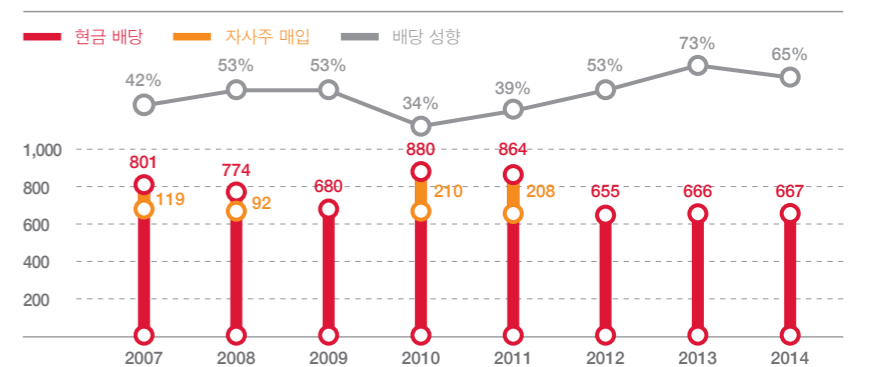
작년 체외진단기기의 미국 FDA 승인, 헬스케어 사업의 중국 진출, 병원 솔루션 최초 수출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헬스케어 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체외진단기기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향후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트렌드에 입각해 디바이스 및 플랫폼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한 아이리버의 경우 하이엔드(High-end) 음향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과 앱세서리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K플래닛은 2014년 시럽 론칭, 미국 샵kick(Shopkick) 인수, 오픈마켓 11번가의 지속 성장 및 글로벌 확장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넥스트 커머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1번가의 모바일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8% 이상 상승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픈마켓 사업 진출을 통하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플래닛은 커머스 영역에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서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T스토어, T랩 등 플랫폼 영역에서도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SK텔레콤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이동통신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도 차별화된 네트워크 경쟁력과 고객가치 지향의 특화된 서비스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고객의 심층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동일한 규모인 주당 9,400원의 현금 배당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4회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여 간접적인 투자환원을 실시해왔습니다. 2015년 현금 배당 수준은 성장 투자 노력 및 현금 흐름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투자와 주주환원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연도별 주주환원 규모

단위: 십억 원



‘SUPEX 추구’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향상

기업의 영구 존속·발전을 통해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SKMS를 기반으로 한 ‘SUPEX 추구’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SKMS(SK Management System)는 SK의 존속과 성장에 근간이 되어온 경영 원리이며, SK텔레콤을 비롯한 SK 관계사들이 공동으로 실천하는 경영 관리 체계입니다. SUPEX는 경영활동에서 ‘Super Excellent’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룹의 경영 원리인 SKMS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SK텔레콤은 ‘기업의 영구 존속·발전을 통해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 행복에 공헌한다’는 SKMS의 기업관을 실현하기 위한 SUPEX 추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2014년 각종 핵심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Financial Metrics

영업수익 성장률(연결)



영업이익률(연결)



기업가치(시가총액)

단위: 십억 원



Operational Metrics

신규 사업 매출액 기여도



LTE 가입자 수

단위: 만 명



청구 ARPU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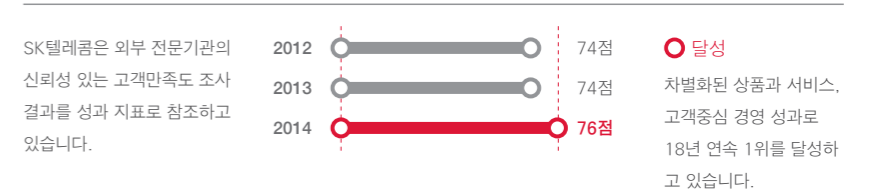


Sustainability Me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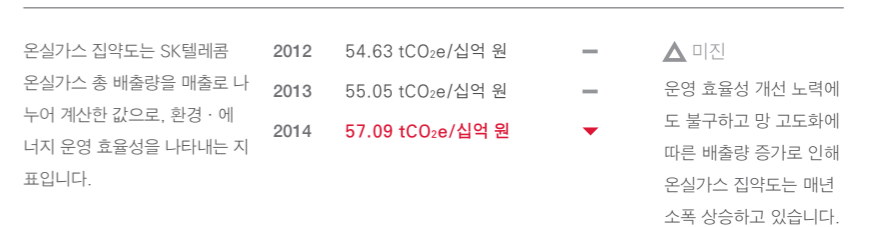
SKMS 임직원 만족도



고객만족도



온실가스 집약도



네트워크 하드웨어 플랫폼의 종합 ICT 시너지 창출

SK텔레콤의 모든 자회사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진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콘텐츠와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스를 연계한 플랫폼 전략을 완성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로 기업가치 100조 원 조기 달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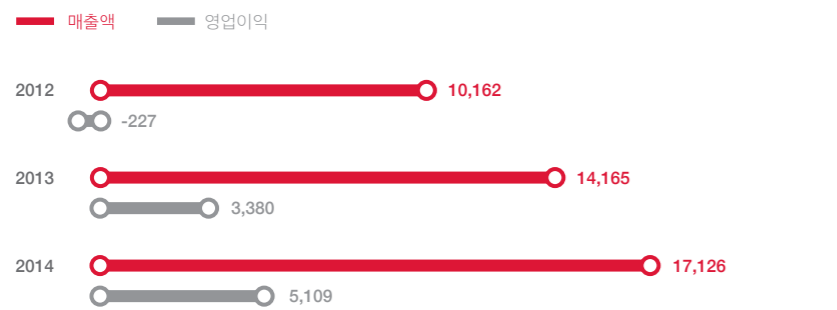
SK텔레콤은 통신과 이종 산업 간의 컨버전스를 통한 신성장 기회를 발굴하고자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인수한 후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성장 전략', '강력한 스킨십' 등 3강 경영을 펼쳐 기업 간 유대감과 성장성을 강화해왔습니다. 인수 이후 SK하이닉스는 2013년과 2014년, 2년여에 걸쳐 사상 최대의 경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매출액 17조 1,260억 원(전년 대비 20.9% 성장), 영업이익 5조 1,090억 원(전년 대비 51.2% 성장, 영업이익률 29.8%)으로, 이는 창사 31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컴퓨팅 제품군의 가격 안정화가 지속된 가운데 모바일 DRAM 가격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 비중의 확대와 함께 서버 및 PC 수요 호조에 적극 대응해 목표를 상회하는 출하량 증가를 달성하여 매출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SK플래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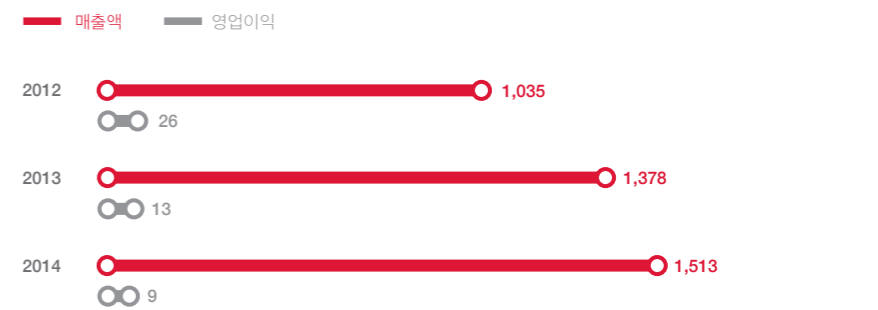
2011년 10월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출범한 SK플래닛은 통합 커머스 사업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 광고·마케팅 사업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2014년 SK플래닛은 넥스트 커머스 플랫폼인 시럽(Syrup)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오퍼링 서비스(SOS, Smart Offering Service)를 론칭했으며, 2014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328만 명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터키 오픈마켓 '엔일레븐닷컴(www.n11.com)',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e-커머스 진출과 함께 미국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Online to Offline)' 기반 서비스 기업인 샵키를 인수해 본격적인 넥스트 커머스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ICT 영역에서 사업 영역 및 밸류 체인(Value Chain)의 경계 붕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단위: 십억 원



*K-IFRS 연결 기준

SK플래닛 실적 단위: 십억 원



*K-IFRS 연결 기준
2013년 2월 SK M&C 합병으로 인한 증가분 포함

SK브로드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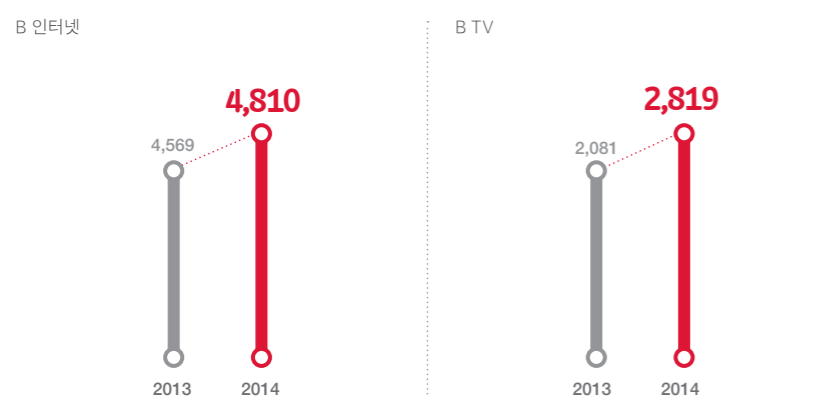
SK브로드밴드는 IPTV 가입자 기반 확대와 브로드밴드 비즈니스의 지속적 성장으로 2014년 말 481만 명의 B 인터넷 가입자 수를 확보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은 통신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으로, SK브로드밴드는 이런 진화의 흐름 속에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선 서비스뿐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 등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무선 결합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결합 가입자의 순증가 폭이 201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며 2014년 말 기준 누적 유무선 결합 가입자가 277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존 광랜보다 최대 10배 빠른 'B Giga 인터넷', 요금 경쟁력을 강화한 '홈 결합 상품' 등을 선보이며 고객경험을 향상시키는 한편, 'B home CCTV'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하며 홈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무선 사업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3월 20일 SK브로드밴드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의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실적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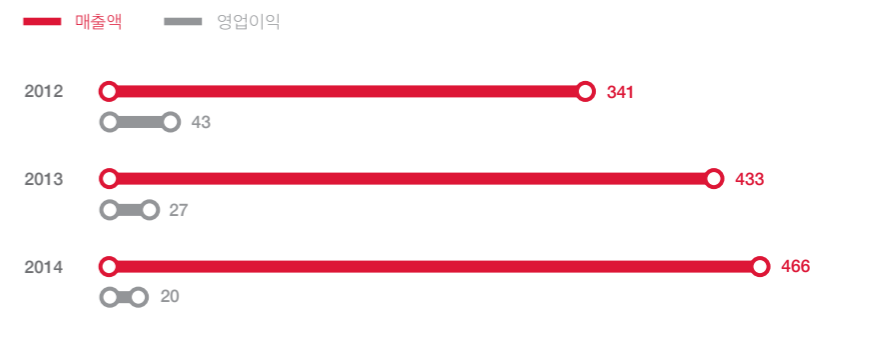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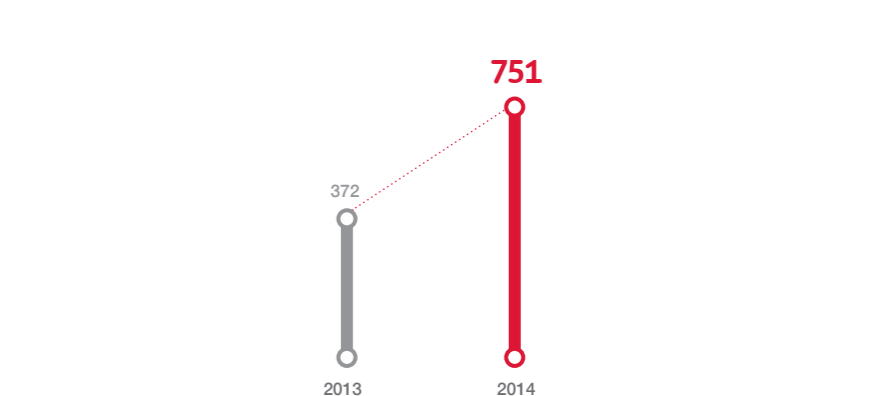
SK텔레콤

저렴하면서 품질 높은 국제전화, 알뜰폰(MVNO) 등 다양한 ICT 통신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은 2014년 알뜰폰 브랜드 '7 mobile'이 75만 명의 가입자(2014년 12월 말 기준)를 확보하며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K 국제전화 00700' 국제전화 사업 부문에서는 국제전화를 10분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10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10플러스 요금제'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한 상품을 출시하여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혁신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5년에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통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SK텔레콤 실적 단위: 십억 원



알뜰폰 가입자 수 단위: 천 명,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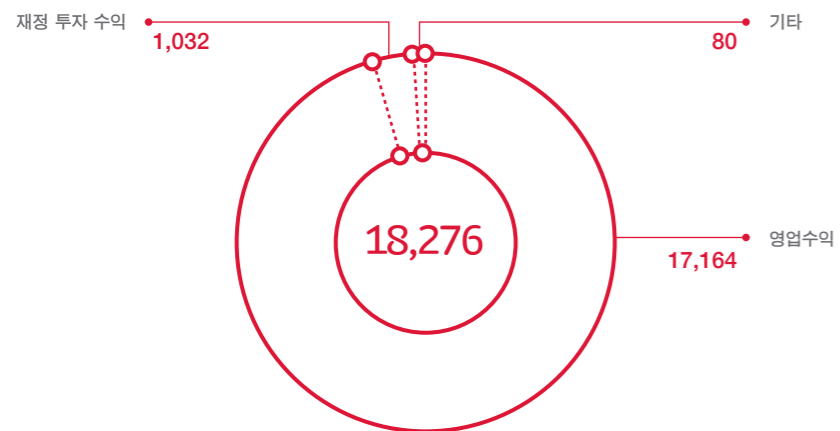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실현

SK텔레콤은 2014년 이동통신시장 경쟁 심화와 단말기 유통법 도입 등 새로운 규제 환경 상황에서 총 18조 2,76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창출된 가치는 기업의 미래가치와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경제적 가치의 창출

SK텔레콤은 2014년 17조 1,640억 원의 영업수익을 포함한 재정 투자 수익, 자산 매각 수익, 기타 수익을 합해 총 18조 2,76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경제적 가치의 창출 단위: 십억 원



경제적 가치의 분배

비즈니스 파트너 배분 및 기타 운영 비용

SK텔레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매, 공급 회사 지급 수수료, 상품 구매 비용, 연구 및 개발, 네트워크 투자 등 비즈니스 파트너 배분 및 기타 운영 비용으로 13조 8,950억 원의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임직원 배분

SK텔레콤은 임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총 1조 6,6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배분

SK텔레콤은 주주 배당 및 이자 비용으로 6,840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정부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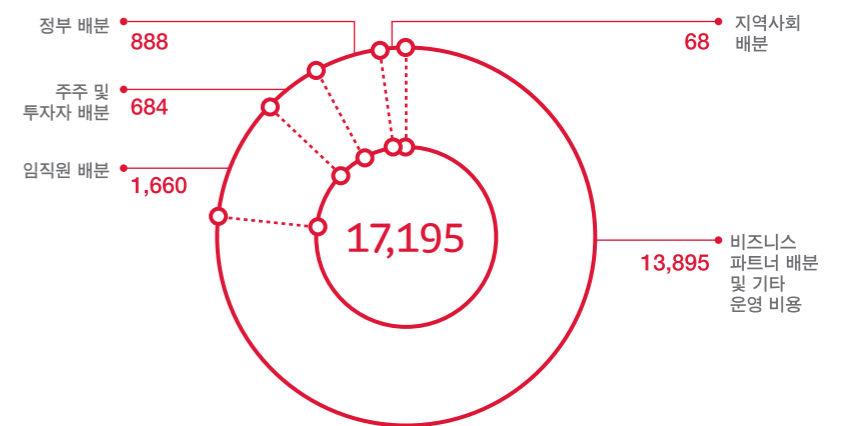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법인세 및 기타 세금, 전파 사용 비용으로 8,880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2014년 연구 인력 개발비 투자, 생산성 향상 투자, 에너지 절약 투자, 고용 창출 등으로 정부로부터 총 370억 원의 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배분

SK텔레콤은 지역사회에 68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배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ICT를 통한 전통 시장 살리기 등 사업적 투자, 인프라 지원 등의 간접적 효과는 포함하지 않은 순수 기부금입니다.

경제적 가치의 배분

단위: 십억 원



유보된 경제적 가치

SK텔레콤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배분을 마치고 유보된 총 1조 81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자본 총계에 가산했습니다.

2014년 유보된 경제적 가치

1조 810억 원

*경제적 가치의 창출 및 분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K-IFRS 연결 기준임

2014년 주요 경영활동

SK텔레콤의 2014년은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견인한 해였습니다. 상품·서비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통해 미래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성장했던 2014년의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마케팅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토털 차량 케어 'T카(T Car)' 출시	신규 광고 캠페인 '잘 생겼다 LTE-A' 론칭 All-IP 기반 차세대 통화 플랫폼 'T전화', 홈 hub 기기 'B box' 출시	통합 스포츠 앱 'T스포츠' 출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3종 출시 국내 유일의 패키징형 로밍 서비스 '올인원 요금제' 미국 확대 제공	블루투스 저전력 '비콘' 4종과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 '위즈턴' 출시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대형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는 '스마트 미러링' 출시	7.0 대화형 실속형 폰블릿 '갤럭시 W' 단독 출시 '지하철 프리 요금제' 출시 통산 혜택 한국에서 보는 앱 'T베네핏' 출시 T전화 고객 100만 명 돌파	국내 최초 LTE 무선 CCTV 'LTE 포인트캠' 출시 해외에서도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는 'T멤버십 글로벌' 론칭 모바일 증강현실 플랫폼 'T-AR' 상용화	단말·요금·특화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Club T' 출시 G3에 5.2인치 디자인과 차별화 기능을 더한 'G3 A' 출시	세계 최초 모바일 편지 서비스 '100년의 편지' 출시 인천아이드 주경기장 내 기업홍보관 개관 식자재 주문 전용 단말기 '푸드앤박스' 출시	우수고객 초청 프로그램 'Table 2014 - 미술령의 별을 맛보다' 개최 고품질 음성통화 기반의 기업용 웹 컨퍼런스 서비스 '스마트 게이팅' 출시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 시작	중·장년층 위한 2G 일반폰 '마스터 듀얼' 출시 웨어블 맞춤형 상품 '아웃도어' 출시 웹세서리 '스마트 USB' 출시	중·장년 스마트폰 고객 대상 맞춤형 상품 'T청춘' 출시
네트워크	4배 빠른 3band LTE-A 기술 개발 성공 차세대 기지국 기술 vRAN(virtualized Radio Access Network)' 세계 최초 시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One Pass' 123개 국가에 제공 'MWC 2014'에서 최대 450Mbps 속도의 3band LTE-A 공개	1.8GHz 광대역 LTE 서비스 전국 광역시 확대	전국 386개 대학 및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관광 명소에 LTE-A 네트워크망 개통	3band LTE-A 서비스 제공을 위한 2.1GHz 대역 LTE망 구축	2채널 기가 와이파이 기술 세계 최초 개발 LTE보다 3배 빠른 '225Mbps 광대역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서비스 전국 확대 삼성전자와 'LTE 대용량 인빌딩 솔루션' 시연 에릭슨과 5G 시대의 선행 기술인 '개인화셀' 세계 최초 시연	패키징형 로밍 상품 'T로밍 올인원' 총 7개국에서 확대 제공	저지연 모바일 생방송 전송 기술 개발 및 세계 최초로 LTE 상용망 시연 5G로의 진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5G 백서> 국내 최초 발간	'2G·3G over LTE'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망에 적용 5G 네트워크 가상화 관련 핵심 기술 '오케스트레이션', '클라우드 vRAN' 세계 최초 개발	4배 빠른 '3band LTE-A' 상용 서비스 개시	
외연 확장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텔레콤과 LTE 네트워크 컨설팅 계약 체결 아시아 태평양 10개 이동통신사와 M2M 연합체 '브릿지 M2M 얼라이언스' 출범	경비 보안업체 네오에스 네트웍스(NSOK) 인수	엔씨소프트와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력 체결 SK텔레콤 미국 현지법인 SKTA,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이노파트너스' 설립	LG히다찌와 '종합 자산 관계 서비스' 사업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물인터넷(IoT) 협력 양해각서 체결	NHN엔터테인먼트와 모바일 게임 플랫폼 전략적 제휴 체결 한국후지쯔와 '스마트 스토어' 상호 협력 체결 대우조선해양과 '스마트 ship' 개발 위한 MOU 체결	노키아와 5G 시대를 위한 각종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MOU 체결 아이리버 인수 체결 익스피디아와 전략적 제휴 협약 피쉬트리와 미국 및 중동 지역 스마트 라닝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중국 심천에 'SK텔레콤 헬스케어 R&D 센터'와 'SK 심천 미디어센터' 설립 에릭슨과 5G 관련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 체결 텔레콤뉴질랜드와 사물인터넷(IoT) 분야 사업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라이나생명과 모바일 ICT 및 빅데이터 기반 사업 협력 체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교통·물류 관계 사업 협약 체결	미국 웰컴사와 'LTE 기반 사물인터넷(IoT) 텔레케어 솔루션' 개발 업무 협약 체결	삼성전자와 차세대 이동통신 5G 분야 관련 양사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타이완모바일'에 3G 및 LTE 네트워크 컨설팅 시작 에릭슨과 이동전화 기지국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Smart Wake-Up' 세계 최초 개발	스마트 홈 사업 제휴 협약 체결 현대리브트와 ICT 융합 '스마트 퍼니처' 국내 첫 상용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표준 적용한 개방형 IoT 플랫폼 공개 휴대용 공기측정기 '에어 큐브' 출시 중앙대학교병원과 스마트 병원 구축 협약 체결
사회적 책임	ICT 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1기' 수료 201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SK텔레콤 스마트 조명 제어 솔루션 사업 본격 추진	교육부 주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참여 저소득층 홈 와이파이 서비스 지원 '2014 SK텔레콤 동반성장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1기 수료식 개최	'2014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발표'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2기' 출범 'SK텔레콤 대학생 ICT 비전 공모전' 개최 '로봇활동 교육복지분야 창조행복 나누美' 발대식 개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응급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스마트 초록버튼' 서비스 출시	<동반성장 웹진> 창간 행동동행 실천을 위한 솔루션 파트너 공개 모집	'2014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T챌린지 대회' 개최 '바른 ICT 청소년 캠프' 개최 '찾아가는 ICT 체험관 프로젝트' 론칭 '바른 ICT 광고·UCC 공모전' 개최	'2014 SK텔레콤 장애인 ICT 체험 행사 개최 교육부 주관 '2015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참여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 초록버튼' 1만 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증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청조마을 개소	UN군 전상자 초청 ICT 체험 행사 개최 교육부 주관 '2015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참여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 초록버튼' 1만 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증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청조마을 개소	UN군 전상자 초청 ICT 체험 행사 개최 교육부 주관 '2015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참여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 초록버튼' 1만 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증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청조마을 개소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관할 학교들에 '스마트 클래스 패키지' 공급 협약 체결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우수협력사 시상 및 동반성장 협력 강화를 위한 '2014년 파트너스 데이' 행사 개최	
수상 실적	2014 고객감동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명예의 전당 선정 201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모바일 T월드' 국내 통신업계 최초 앱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Global Mobile Awards '최고의 LTE 공헌상' 수상	국가고객만족도(NCSI)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17년 연속 1위(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창사 30주년 기념 디지털 사사, 고객경험 에세이북 <모바일 일상 대화사> 발간	UN국제전기통신연합(ITU) 'T멤버십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량 선정 방법론' 표준화 승인 미래 30주년 발전 방향 'ICT노믹스' 발표	텔레콤 아시아 어워즈 '최우수 이동통신사업자상' 수상 미래 30년 발전 방향 'ICT노믹스' 발표	Small Cell Industry Awards(SCIA) '혁신적인 상용화 기술 부문' 3년 연속 수상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2년 연속 획득(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한국 서비스품질지수(KS-SQI) 이동전화 부문 15년 연속 1위(한국표준협회 주관)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2년 연속 획득(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World 아시아 통신업계 최초 7년 연속 편입 LTE 아시아 컨퍼런스 'LTE 아시아 어워드 2014' 수상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World 아시아 통신업계 최초 7년 연속 편입 LTE 아시아 컨퍼런스 'LTE 아시아 어워드 2014' 수상	글로벌 와이파이 어워드 '차세대 Wi-Fi 선도사업자 부문 최고상' 수상 2014 아시아 태평양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즈 '헬스케어 분야 올해의 통신사상' 수상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 이동통신 부문 17년 연속 1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대중소기업 기술 협력 우수투자기업상, 과제발굴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주관)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2. Business & Strategy

가치 창출 전략

시장 현황 및 이슈

비즈니스 케이스

SK텔레콤의 가치 창출 전략 체계

핵심 가치 '행복동행'과 미래 30년 가치 창출을 위한 미션 'ICT 노믹스'를 통해 Vision 2020 목표인 기업가치 100조 원, Global Top 100 달성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SK Telecom Goal & Strategy



SK텔레콤의 지향점, Vision 2020
ICT 산업은 모든 영역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연결되고 융합되는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Vision 2020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새로운 가능성의 동반자)'를 선포하고, 종합 ICT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Vision 2020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산업 간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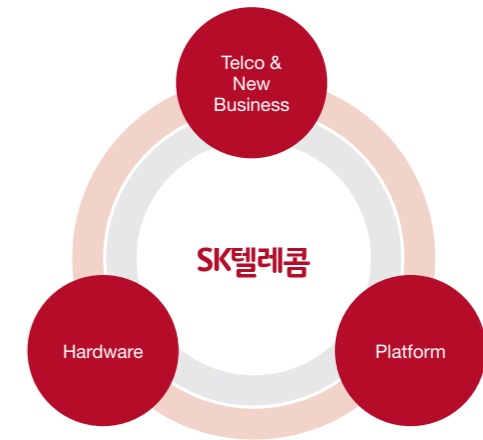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통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ICT 융합과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임직원·고객·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Vision 2020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기업가치 100조 원 & Global Top 100

Portfolio



Strategic Focus



Mission Statement

우리는 세상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강력한 핵심 사업 인프라와 사람을 기반으로 혁신을 일상처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 '행복동행'

'행복동행'의 본질적 취지는 SK텔레콤의 모든 리더와 구성원들이 같은 관점과 철학으로 모든 경영활동에 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그리고 ICT 생태계 육성을 통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신사업을 육성하는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으로 요약됩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측면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니즈를 주목합니다. 합리적 가격, 우수한 품질, 다양한 서비스,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여 본원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행복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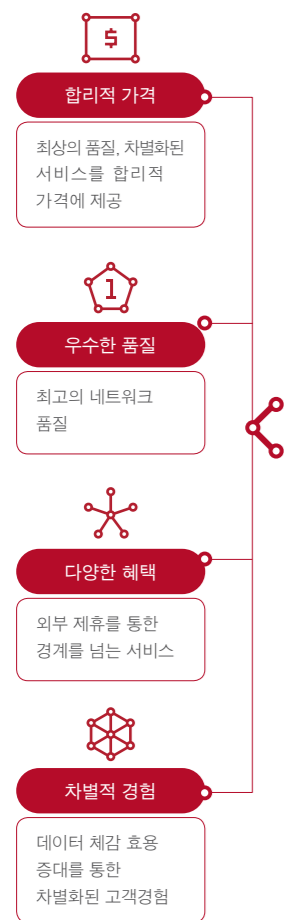
향합니다.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 측면에서는 미래형 융합 사업 선도를 통한 ICT 동반성장 생태계 주도, '브라보! 리스타트' 등 맞춤형 창업 벤처 지원 프로그램, ICT 기술을 활용한 전통 시장 살리기 등 창조경제 전반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SK텔레콤은 본원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고객가치 제공과 함께 과학기술과 ICT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고객·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행복동행'의 지향 가치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



'ICT 노믹스' 통한 가치의 창출, 전달, 공유

SK텔레콤은 2014년 5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미래 30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화두로 'ICT 노믹스'를 제시하였습니다. ICT 노믹스는 ICT가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의 촉매로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혁신 기술이 태동과 쇠퇴를 반복하던 과거의 산업 발전 형태와 달리 ICT 노믹스 시대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탄생한 디지털 혁신의 결과물들이 모두 연결·최적화되고 다시 융합을 거듭하면서 무한대에 가까운 혁신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ICT 노믹스 시대는 '인간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기술의 성숙'과 '사람과 기기, 가상과 현실을 포함

한 모든 것의 연결' 등이 그 특징이 됩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ICT 노믹스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점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Value Creation)', '최적화된 가치 전달 (Value Delivery)', '사회와 함께 나누는 가치 공유(Value Sharing)'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시대를 여는 세계 최초의 이동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ICT 노믹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새로운 솔루션들을 조기에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ICT 노믹스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ICT 노믹스의 추진 방향



미래 본격 성장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 전략

SK텔레콤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혁신적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 전략을 통해 이동통신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플랫폼’ 전략

SK텔레콤이 추구하는 ‘차세대 플랫폼’은 통신을 기반으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심층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전략입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의 변혁(Transformation)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대한민국 ICT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대한민국 이동통신산업은 최근 성장 정체와 소모적 경쟁 심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냉철한 상황 인식을 통해 통신산

업이 직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고객과 시장 그리고 생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 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하고, 개방과 공유의 원칙하에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경계 없는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혁신을 위한 3대 전략으로 ‘3C 기반 생활가치 플랫폼’ 개발, ‘통합 미디어 플랫폼’ 진화, ‘IoT 서비스 플랫폼’ 육성을 제시하고, 이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산업·사회 모두가 꿈꿔오던 새로운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차세대 플랫폼’ 혁신을 통해 기업가치 100조 원 달성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3C(콘텐츠·커뮤니티·커머스) 연계 생활가치 플랫폼

SK텔레콤의 첫 번째 ‘차세대 플랫폼’ 혁신 전략은 고객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 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생활가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콘텐츠(Content), 커뮤니티(Community), 커머스(Commerce)를 연계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세그먼트별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통합 미디어 플랫폼 진화

‘차세대 플랫폼’ 전략은 ‘통합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로 이어집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유무선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개인화되는 미디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 서비스를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선도적인 ‘통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고, 2018년까지 1,500만 고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홈·라이프웨어 등 IoT 서비스 플랫폼 육성

SK텔레콤의 세 번째 ‘차세대 플랫폼’ 전략은 ‘IoT 서비스 플랫폼’ 육성입니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동종·이종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키워가겠습니다. ‘모비우스’ 플랫폼을 활용해 제습기·도어록·보일러 등 가정 내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홈 서비스’와 NSOK의 보안솔루션을 연계한 ‘토털 홈 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리버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라이프웨어(Lifeware)’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규제 변동 속에 새로운 기회 모색

시장의 변화, 규제의 변동, 이해관계자의 요구 강화에 대응하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모색과 성과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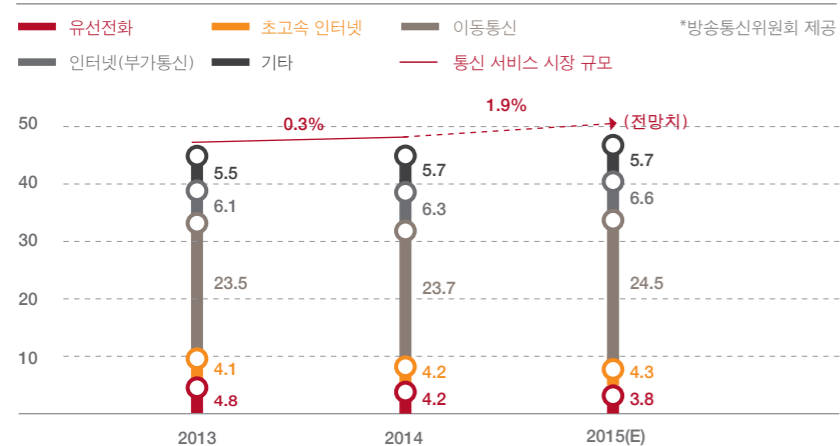
Elaborate Market

LTE 시장의 성숙과 데이터 시대의 심화
 2014년 말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5,72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보급률이 110%를 넘어서며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LTE(Long Term Evolution) 보급률의 상승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 등 비즈니스 목적의 휴대폰 활용과 태블릿 PC 등 무선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라 이동통신 보급률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4년 대비 약 1.9% 증가한

44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등장 등 2nd 디바이스의 확대, 고성능 단말기 확산을 바탕으로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 모바일 커머스, 텔레매틱스, 디지털 홈 등의 컨버전스 서비스를 통해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LTE와 LTE-A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품질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B2B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총인구 대비 이동전화 보급률(2014년 말 기준)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2015년 전망)



Regulation Changes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제 변화

2014년 10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 과열을 억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및 유통구조 건전화로 목적으로 강화된 세부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도입에 따라 이용자 후생 확대,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기변 중심의 경쟁 구도 전환 등 시장의 경쟁 상황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정부·국회·사업자·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바람직한 규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선도 사업자로서 적극 동참하고 규제 변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법을 포함한 규제 환경하에서 이용자 차별 근절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고,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고객가치를 더욱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SK텔레콤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시장은 단말기 유통법 도입 이후 데이터 중심의 미래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고객들이 초고속 모바일 데이터 환경을 불편함 없이 충분히 향유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CT 기반의 국

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육성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강화

시장 및 규제 변화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SK텔레콤은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이 아닌 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가치 창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ICT를 통한 공유가치 창출, 환경경영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책임투자 확산 움직임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배구조 중심의 책임투자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시장 변화와 규제의 변동성,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들을 경영 전략과 핵심 추구 가치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업가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환경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주요한 규제 변동

	개요	대응
단말기 유통법	- 2014.10 발효 -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내용 공시 등 시장 과열 제한 및 이용자 보호를 통해 공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실현	-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 차별 근절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 -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법규 강화 논의 지속 모니터링
요금 인하 이슈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 - 통신요금 합리화를 위한 가입비 폐지, 기본료 인하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 요구 지속적 확대	- 2014년 가입비 조기 폐지 및 요금 할인 위약금 폐지,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계획 등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경쟁과 혁신적 서비스 경쟁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모색
알뜰폰(MVNO) 확대 이슈	- 통신시장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 - 도매대가의 지속적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MVNO 활성화 정책 지속	- SK텔레콤은 MVNO 의무사업자로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시장 선도 - 2014년 말 기준 전체 통신시장의 7.9% 수준인 MVNO를 활용함에 따라 MVNO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력 및 다양한 상품·서비스 지속 제공
요금 인가제도 개선 이슈	- 다수 법안 발의, 국회 논의 중 - 1983년 이후 한국은 유무선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요금제도를 정부 인가를 거쳐 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경쟁 촉진 논의에 따라 폐지 및 신고제 전환 논의 확대	-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요금인가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옴 - 시장의 자율 경쟁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향상 모색

Vision

Vision 2020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기업가치 100조 & Global Top 100

Core Value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 통한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의 선택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
산업과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Strategic Pillars

Market Driven Priorities
본원적 상품 · 서비스 경쟁 중심 패러다임 전환 실현

Value Driven Possibilities
창조경제 · ICT 노믹스 구현으로 미래가치 제고

혁신적 요금 · 상품을 통한 고객 Retention 향상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LTE 리더십 향상	융합 및 컨버전스 기반의 혁신 솔루션 제공
---------------------------------	----------------------------	-------------------------

벤처 · 창업 지원을 통한 ICT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인적자본 향상을 통한 미래 경쟁 기반 확보
----------------------------	------------------------	-------------------------

Why This is Materia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성숙과 규제 변동으로 인한 이동통신산업 경쟁 환경 변화 최고의 고객가치와 혁신 실현으로 고객 행복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E 기반 시장 성숙으로 가입자 기반 확보 필요성 증가 최상의 네트워크 품질 및 통신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다변화 등 정보통신 환경 변화 융합 환경에서 ICT를 통한 새로운 기능성의 제시와 실천 |
|---|--|--|

- ICT 생태계 진작을 통한 회사와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
- 정부 정책 우선순위인 창조경제 실현과 ICT의 경제적 가치 점점 역할 수행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변동 가속화
- ICT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고 혁신 기회 창출

- ICT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지식, 인적 자원 등 무형 자산에 기반
- Market Top 수준의 역량을 지닌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

Where We Focus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적 요금제 및 서비스 도입 품질 · 서비스에 기반한 마케팅 고객보호 및 안심 서비스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E 네트워크 품질 향상 네트워크 트래픽 및 주파수 관리 기술 혁신 노력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 솔루션, 그린솔루션 등 매출 성장 콘텐츠 기반 사업 성장 확대 헬스케어 사업 확대 |
|---|--|---|

- ICT 생태계 확장을 위한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 사회적 니즈에 기반한 ICT 솔루션 개발과 제공
- 중소기업 동반성장

-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플랫폼 구현
- 에너지 · 온실가스 솔루션 개발
-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효율성 향상

- 교육 · 훈련 등 인재 개발 투자
- 합리적인 성과 평가
- 인적자본 투자수익률(Human Capital ROI) 효율화

2014 Performance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해지율: 2.0% 이하 달성 고객정보 유출 0건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E 보급률: 58.5% 3band LTE-A 상용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솔루션 사업 매출 20% 성장 달성 유무선 IPTV 가입자 520만 명 달성 병원솔루션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사우디 수출 |
|---|---|--|

- '브라보! 리스타트' 벤처 창업 지원 23건
-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 인큐베이팅 10건
- 스마트농축수산업 솔루션 개발

- 운영 온실가스 연 증가율 5% 이내 달성
- 클라우드 BEMS 및 FEMS 솔루션 30여개 사이트 적용

- Any where, Any time Smart 러닝 환경 100% 구축
- 임직원 1인당 인재개발비: 346만 원
- 임직원 성과 평가 비율: 96%

Target & Goals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해지율 2.0% 수준 유지 고객정보 유출 0건 유지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E 보급률: 65% 달성(by 2015), 80% 달성(by 2018) 5G 서비스 상용화(by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솔루션 사업 매출 6,970억 원 달성(by 2015) 유무선 IPTV 가입자 1,500만 명 달성(by 2018) 헬스케어 매출 1조 원 달성 (by 2020) |
|--|--|--|

- '브라보! 리스타트' 벤처 창업 지원 신규 11건, 누적 34건(by 2015)

- 운영 온실가스 연 증가율 5% 이내 및 절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달성 (by 2015)
- T맵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국내 탄소배출권 인정

-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 500명 (by 2015)

Link In this Report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siness Cases 1 (p.52) Non Financial MD&A(p.1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siness Cases 2(p.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siness Cases 3(p.62) |
|--|--|--|

- Business Cases 4 (p.66)
- Non Financial MD&A(p.122)

- Business Cases 5(p.70)
- Non Financial MD&A(p.123)

- Business Cases 6(p.74)
- Non Financial MD&A(p.119)

창조적 고객가치 혁신을 통한 '고객 행복'의 실현

SK텔레콤은 과열된 시장 경쟁 속에서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본원적 경쟁력에 집중합니다.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보호와 긍정적인 고객경험 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 가치인 '고객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LTE 성장에 따른 ARPU 성장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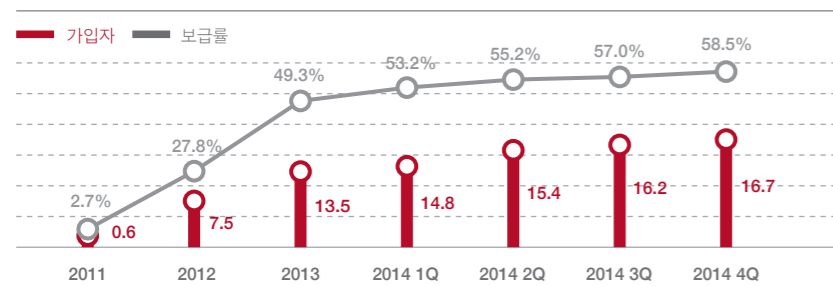
2014년 국내 통신산업은 스마트폰 사용자 수의 지속적 증가 및 LTE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이용 확대를 이어왔습니다. LTE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SK텔레콤은 2014년 12월 3band LTE-A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LTE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2014년 말 LTE 가입자 비중 58.5%를 달성하였

으며, 향후 고객의 데이터 이용 패턴 확산에 따른 LTE 가입자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TE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데이터 소비 증가 패턴에 따른 업셀링(Up-selling) 효과 등 상위 요금제의 상품력을 바탕으로 청구 ARPU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청구 ARPU는 전년 34,560원 대비 4.5% 상승한 36,10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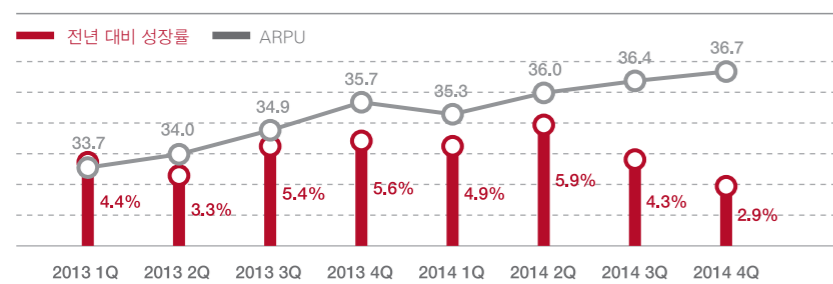
평균 청구 ARPU (단위: 원)



LTE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백만 명)



청구 ARPU 추이 (단위: 천 원)



연간 고객 유지 효과



연간 가입자 유치 비용 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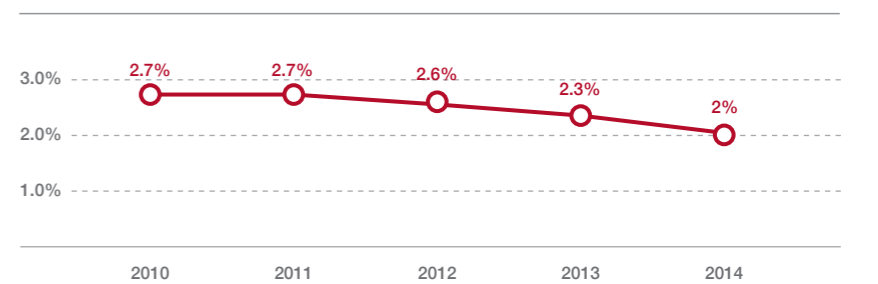


고객 유지(Retention) 전략의 재무적 영향
SK텔레콤은 기존의 소모적 보조금 지출을 통한 신규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원적 상품 및 서비스 경쟁 위주로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고객 유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4년 전년 대비 0.3% 감소한 2.0%의 월평균 해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해지율입니다.
SK텔레콤의 2014년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모집 수수료 기준 2조 1,860억 원 수준이며, 무선 가입자 1인당 마케팅 비용은 약 27만 원입니다. 2014년 월평균 해지율 0.3%의 감소는 연간 약 1백만 7천 명 이상의 고객 유지 효과를 낸 것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2,810억 원의 가입자 유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고객경험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CE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고객경험 관리(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고객경험의 핵심 가치를 '고객의 행복'으로 선정하여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행복한 믿음', '오래 쓸수록 늘어나는 행복한 혜택',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가장 먼저 만나는 행복한 경험'의 실행 원칙을 정립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행 원칙들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다량 사용 시대 도래에 따라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되도록 정립되었습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전달된 상품·서비스는 고객경험 단위로 체계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 고객 및 경쟁사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등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015년 18년 연속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CE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고객불만을 감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외 기관을 통해 접수된 고객불만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사 및 각 지역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된 고객불만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2012년 이후 가입자 10만 명당 고객불만 발생 건수(CPCB, Claim Per Customer on Board)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사적으로 고객불만 접수 후 48시간 이내 처리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조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불만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월평균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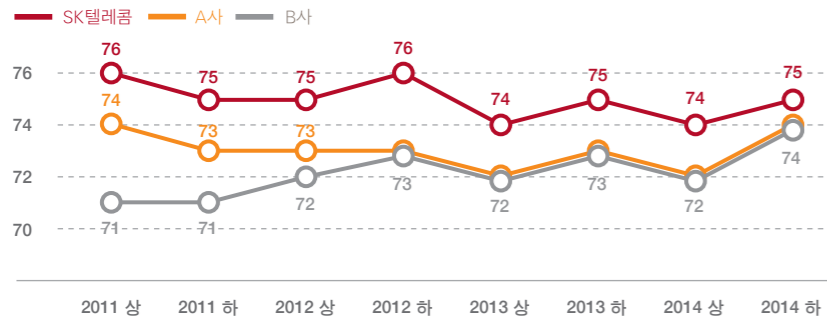


국내 3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주관 기관	2014년 성과
NCSI 국가고객만족도	한국생산성본부	76점(18년 연속 1위, 2015년 기준)
KCSI 한국산업고객만족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75.4점(17년 연속 1위)
KS-SQI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한국표준협회	70.6점(15년 연속 1위)

SK텔레콤 내부 고객만족도(CSI) 결과 추이

단위: 점



* SK텔레콤의 CSI 조사는 Dr. Clases Fornell(美 National Qualit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에 의해 개발된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모델을 적용함

고객가치 제고의 첫걸음, 고객정보보호 강화

인터넷의 발달과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 전달력의 가속화와 함께 해킹 기술은 진화하고 이에 대한 보안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을 비롯해 SNS, 모바일 앱 등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싱·스미싱·파밍은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하여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31,808건, 피해액 규모는 3,693억원으로 사건당 평균 피해액이 약 1,161만원에 달해 여전히 국민과 SK텔레콤 고객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MNO총괄 책임하에 전사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5,800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통망, 접점 채널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고객정보보호센터(SOC) 및 고객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구축해 보안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고객정보 보유 시스템과 취급자의 고객정보 유출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하

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자체 점검에 의존하던 시스템 점검 및 직접 관리 범위를 투자회사까지 확대하고, 대리점 PC 내 고객정보 포함 파일의 원격 삭제, 고객정보 관리 기준 위반 매장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의 관리 수준 강화, 고객정보 중요성에 대한 계약서 문구 추가, 유통망 직원 대상 SMS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시행하여 '계약서 가져가기'에 대한 고객 인지율을 캠페인 시행 전 29.8%에서 캠페인 시행 후 57.2%로 상승시켰으며, 실제 계약서 회수 비율도 캠페인 시행 전 81.5%에서 캠페인 시행 후 86.1%로 상승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스팸 필터링¹⁾, 스팸 SMS 차단²⁾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목소리 인증 시스템' 도입, 전자청구서 발송과 같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4년 하반기 지능형 스팸 차단 정확도 1위, 소액결제 피해 발생률³⁾ 0.10%, 로밍요금 고객불만(VoC) 발생률⁴⁾ 0.27%, 고객정보 유출 0건 등 주요 안심 지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

- 1) 고객에게 착신되는 SMS의 스팸 여부를 판단하여 차단하는 서비스
- 2) 음성정보 서비스를 회선번호로 하여 수신되는 스팸 SMS를 착신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 3) 소액결제 피해 발생률: 연간 소액결제 이용 건수 대비 소액결제 피해 접수 건수
- 4) 로밍 요금 고객불만(VoC) 발생률: 연간 로밍 상담 접수 건수 대비 로밍 불만 VoC 건수

소액결제 피해 발생률



로밍 요금 고객불만(VoC) 발생률



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 및 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에 대해서도 2년 이내에 복구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그리고 법률 준수를 통해 고객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스미싱·스팸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주요 활동 및 성과

주요 활동	성과
안심 메시지 서비스 제도	연간 1,910만 건의 스미싱 문자 차단
스미싱 3단계 방어 기술 구현	일 300종 이상의 스팸 차단
감시용 회선 확대 운영(기존 2,000개 → 1만 개)	월 50종 이상의 이미지 스팸 차단
실시간 스팸 차단 시스템 운영	
이미지 스팸 차단 기술 개발	
단말기 스팸 간편 신고 기능 탑재	
악성 앱 감염 방지 모바일 백신 'T가드' 탑재	

미래형 유통망 강화를 통한 유통 혁신

이동통신시장은 기존의 가격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압도적 유통 경쟁력으로 고객가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2013년부터 중·장기 유통문화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한 해 동안 소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480개의 유통망 순증으로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쟁열위 상권 및 공백 상권 대상 전략적 매장 개설, 프리미엄 매장 벤치마킹을 통한 미래형 유통 인프라 확산 가속화 등 인프라의

질적 성장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점점에서의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고객 맞춤형 응대 매뉴얼 개편과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대 체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장 내 TV를 활용한 유통망 교육 서비스 및 홍보물 방영 채널인 'T방송', 단말 구매 및 각종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채널 'T World Direct', 미래형 유통망인 'T Premium Store' 등을 중심으로 기존 영업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한층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지킴이' 캠페인 시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특화 요금제 혁신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특화 요금제의 혁신은 향후 성장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금제의 혁신은 고객의 니즈별로 데이터 체감 효용을 극대화해 고객가치를 높이고 SK텔레콤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과금 시스템, 네트워크, 가입자, 빅데이터 등 고유의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금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T끼리·전국민 무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음성 무제한 요금제 시대를 선도해온 데 이어 2014년에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라인업을 신설하고, 데이터 혜택 뿐만 아니라 모바일 TV 및 음악 등의 콘텐츠 혜택과 멤버십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창조적 고객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연령대 및 시간·장소·상황(Time·Place·Occasion)에 따라 세분

화된 TPO 요금제 등의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경험을 창출하였습니다. 키즈 전용 웨어러블 기기인 'T키즈폰 준(JooN)'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 가입자 17만 명을 달성하였고, 야외 활동이 많은 고객 대상 웨어러블 기기 맞춤형 상품인 'T아웃도어'는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달성하는 등 관련 상품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2010년부터 'T가족결합', '온가족 무료' 등의 결합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데이터 기본료 할인, 데이터 추가 생성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유무선 결합 상품을 통한 고객가치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글로벌 톱(Top) 수준의 과금과 최적화된 네트워크, 가입자 및 빅데이터 역량을 적극 활용한 요금제 혁신으로 시장 우위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T키즈폰JooN 2 출시

특화 요금제

특화 요금제 분류	주요 요금제	
TPO 요금제	Time(시간)	출퇴근 프리 요금제: 출퇴근 시간대 데이터 무제한
	Place(장소)	지하철 프리 요금제: 지하철 내 데이터 무제한
	Occasion(상황)	T아웃도어: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사용 T키즈폰 JooN: 통화, 위치 확인, 비상호출 기능으로 미취학 어린이 타겟
콘텐츠-서비스 번들 요금제	Btv팩, T스포츠팩 등 서드-파티(3rd Party) 파트너십 요금제	
스폰서 및 B2B 요금제	홈쇼핑(GS홈쇼핑), IoT 솔루션 연계 요금제(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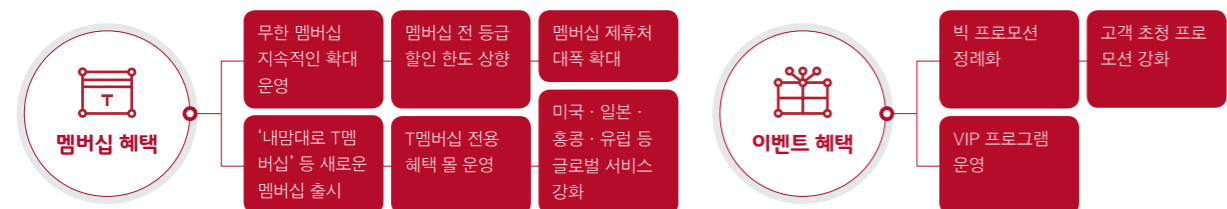
웨어러블 맞춤형 상품, T아웃도어



Retention 제고를 위한 T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SK텔레콤은 단유법 도입 이후 고객 혜택 차별화를 위해 '무한 멤버십' 출시 등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멤버십 영역에서의 경쟁 차별화와 고객의 실질적 혜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향후 멤버십 고객과 제휴사 기반을 활용하여 멤버십 할인과 결제 통합 서비스, 생활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풍성한 모바일 라이프(Mobile Life)를, 연관 산업에는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휴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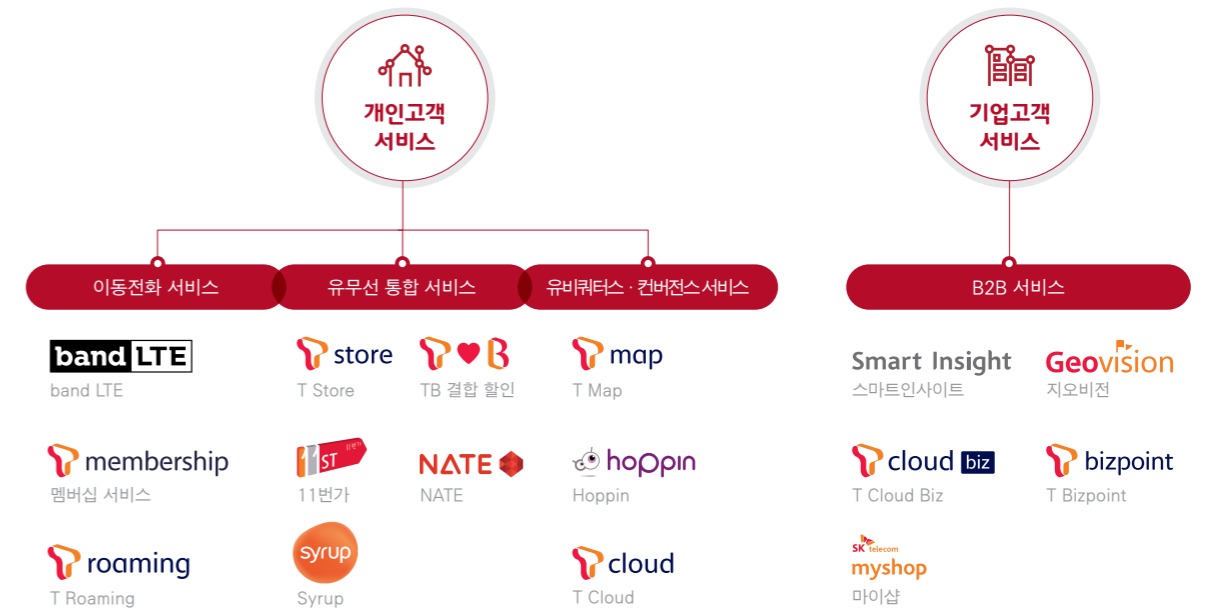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SK텔레콤 브랜드 파워

SK텔레콤은 개인고객 서비스 브랜드 'T'와 기업고객 서비스 브랜드 'Smart', 라이프 웨어 패밀리 브랜드 'United Object(U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는 2006년 론칭하고 2008년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왔으며, 가장 높은 인지도(TOM, Top of Mind)와 업계를 대표하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Smart'는 B2B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SK텔레콤의 ICT 컨버전스 솔루션 브랜드로 유무선 회선 분야에서 최근 사물인터넷(IoT) 관련 솔루션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신성장 사업에서의 브랜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O'는 스마트빔, 스마트스피커 등 다양한 라이프웨어 제품의 패밀리 브랜드로 2015년 론칭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전사 브랜드전략위원회'를 상

설화하고 연 1회 서울 및 전국 6대 광역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파워지수 조사(Brand Power Index Research)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인터브랜드가 주관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5'에서 서비스 업종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무 성과뿐 아니라 트렌드 선도력, 품질 등 다면적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는 본 평가에서 SK텔레콤의 브랜드 가치는 2013년 대비 1.9% 성장한 4조 5,35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국내 전체 산업 중 통신 및 서비스 업종으로는 유일하게 톱 4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한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지수(K-BPI) 이동통신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차별화된 기술 혁신과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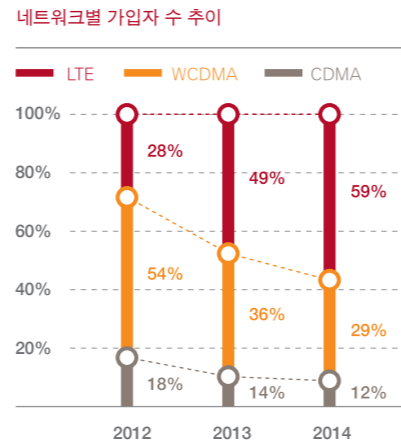


차별적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투자

SK텔레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보다 나은 통화·데이터 품질 확보와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band LTE'
SK텔레콤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LTE를 포함한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제고와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band LTE'는 SK텔레콤이 상용화한 '3band LTE-A'를 시작으로 향후 4개, 5개의 주파수 대역을 연결하는 4band, 5band, 5band LTE-A와 5G까지 아우르는 SK텔레콤의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입

니다. SK텔레콤은 2013년 6월 LTE-A의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2014년 6월 광대역 LTE-A 서비스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이후 불과 6개월 후인 12월 3band LTE-A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LTE보다 4배, 3G보다 약 21배 빠른 네트워크 통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규모인 총 2만 6,000석의 2.1GHz 기지국을 구축하여 서울 및 수도권 외 전국 85개 도심지와 지하철 전 구간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LTE 네트워크 제공	LTE 보급률	58.5%(2013년 대비 10% 증가)
네트워크 품질 향상	LTE 품질 조사	광대역 LTE-A 및 3G 분야 1위(미래창조과학부, 2014)
기술 경쟁력 확보	신규 기술 상용화	광대역 LTE-A(225Mbps) 세계 최초 상용화(2014년 6월)
		3band LTE-A(300Mbps) 상용화(2014년 12월)
		5G 시연 성공(2014년 7월) 및 에릭슨, 노키아와 MOU 체결



SK텔레콤-노키아, 5G 기술 개발을 위한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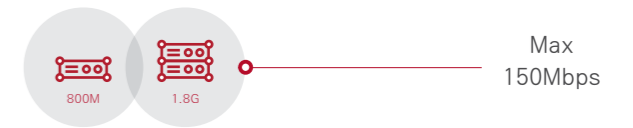


2020년 5G 통신 시대의 밑그림 담은 <5G 백서> 발간

네트워크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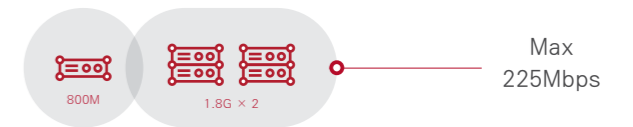
LTE-A

2013년 말 기준
전국 84개 시 중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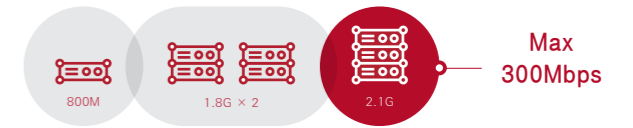
광대역 LTE-A

2014년 3월 광역시 서비스
2014년 7월 전국망 구축



3band LTE-A

2014년 말 단말기 출시와 함께 상용화



차별화된 네트워크 기술 리더십 그리고 5G

SK텔레콤은 3band LTE-A 상용화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노키아와의 MOU를 통해 5G 시대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차세대 주파수 간섭제어 시스템 '전파송신 스케줄링(eICIC)' 기술을 2015년 1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소형 기지국 혼재 지역에 위치한 주파수 전파 간섭을 기존 대비 15%가량 개선하여 고객의 체감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SK텔레콤은 기존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이 빠르게 소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초고주파 대역 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모바일 세계 회의(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 5G 핵심 기술을 통해 초고주파 대역에서 7.5Gbps의 세계 최고 속도

를 시연하는 한편, 5G 시대의 비전과 핵심 기술, 서비스, 요구 사항, 주파수의 분석과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5G 백서>를 발간하는 등 5G 시대로의 준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2014년 12월 네트워크 가상화 관련 핵심 기술인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기술 및 '클라우드 vRAN(Cloud virtualized Radio Access Network)' 기술을 개발하는 등 5G 네트워크를 위한 필수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망 진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주파수 결합(CA)' 기술과 기지국 협력통신 시스템인 '셀 간 간섭제어(CoMP)'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이번 'eICIC' 기술의 상용화 성공, 그리고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해 5G 시대로의 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 사업자로써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파수 결합	셀 간 간섭제어	전파송신 스케줄링
CA Carrier Aggregation	CoMP Coordinated Multiple Point	eICIC Enhanced Inter-cell Interface Coord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개의 LTE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단말기로 전송 2012년 2월 시연 성공, 2013년 6월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셀 간 신호 간섭을 자동으로 제어해 기지국 경계 지역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 2012년 1월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크로-스몰셀 간 협력으로 스몰셀의 커버리지 확대와 경계 지역 단말기 속도 개선 2012년 6월 시연 성공 2015년 1월 상용화

LTE에 버금가는 와이파이 기술력

SK텔레콤은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T wifi zone'에 최적 AP 접속 기술을 적용하여 와이파이의 고객 체감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차세대 와이파이 자동 로밍 기술인 '핫스팟 2.0'과 와이파이 기반의 광고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SK텔레콤은 '와이파이 인더스트리 어워드(Wi-Fi Industry Award)에서 지난 2013년 '최고 Wi-Fi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4년 '차세대 Wi-Fi 선도사업자부문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진화와 삶의 변화

초고속 LTE-A의 상용화와 2020년 상용화를 전망하고 있는 5G의 도입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빠른 네트워크 속도에 힘입어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원활해지며 이미 SK텔레콤이 제공하는 'B tv mobile', '그룹영상통화', '멜론 FLAC(Free Lossless Audio Codec) 음원 제공 등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모든 통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5G 시대의 도래는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입니다.

유선이 사라지고 모든 기기가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는 초고해상도·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한 무선 영상 서비스가 일반화될 수 있고, 입체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홀로그램이나 무안경 방식 3D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발맞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발전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고 ICT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파수 확보로 미래 경쟁의 발판 마련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거 3G 서비스와 달리 LTE 서비스는 연속한 주파수의 대역폭이 최고 속도를 결정하는 만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확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춘 최적화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2023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1,190MHz 주파수의 적기·적정량을 확보할 예정이며, 동시에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데이터 사용량 추정 및 사전 수요 예측을 통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적기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볼 때 SK텔레콤의 LTE 주파수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향후 LTE 트래픽 증가 및 3G 이용자 감소를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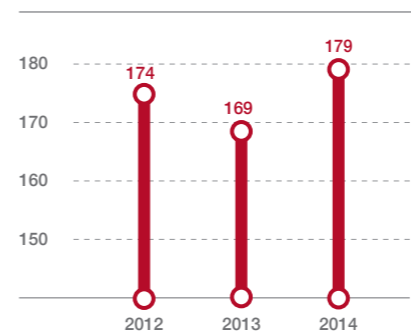
주파수 현황

구분	주파수	사용 대역(양방향 기준)
2G	800MHz	10M
3G	2.1GHz	40M
LTE	800MHz	20M
	1.8GHz	35M
	2.1GHz	20M
WiBro	2.3GHz	27M

2014년 통신 서비스 취약 지역 설치



보편적 의무손실부담 지원금 단위: 억 원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정보격차 해소

SK텔레콤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항목 중 취약 지역 음성 및 무선인터넷 성공률 측정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성장을 위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기술 발전 추진을 목표로 이동형 ICT 체험관 '티움 모바일관(T.um Mobile)' 개설부터 '찾아가는 지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울릉도 및 독도에 LTE-A망을 개통하는 한편, 2014년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지역 및 등산로에 band LTE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산간오지 지역 등 최외곽 지역에 LTE 중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 지역 해상사고 발생 시 긴급통신이 가

능하도록 해상도로 전 구간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기타 도서 지역 통신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품질 측정을 통해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산간오지나 도서 지역 등 통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위해 통신 제공 지역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저소득층이나 인구 저밀도 지역주민에게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편적 의무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 타 기간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지원한 보편적 통신 서비스 비용은 총 485억 원이며, 이 중 SK텔레콤의 부담액은 179억 원이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 관련 주요 수상 내역

Global Mobile Award 2014. 02 최고 LTE 공헌상 & 모바일 기술 대상	Telecom Asia Awards 2014. 04(3년 연속 수상) 최우수 이동통신사업자	Small Cell Industry Award(SCIA) 2014. 06(3년 연속 수상) '혁신적인 상용화 기술 부문' 스몰셀 네트워크 혁신상
LTE Asia Awards 2014. 09 LTE 아시아 어워즈 2014 수상	Wi-Fi Industry Award 2014. 10 차세대 Wi-Fi 선도사업자부문 최고상	

이동형 ICT 체험관 '티움 모바일관'



융합과 컨버전스 시대를 선도할 비즈니스 모델 확장

사물인터넷(IoT)과 새로운 융합 하드웨어의 부상은 데이터의 생성과 소비, 연결을 통한 산업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ICT 노믹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SK텔레콤은 ICT 노믹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장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의 본격화

서비스와 융합된 신규 하드웨어의 부상은 급격히 많은 양의 데이터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ICT 노믹스로 연결됩니다.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의 등장 등 다변화된 인터넷 연결 기기의 확산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으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정보의 가공과 처리가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생산과 처리를 위한 컴퓨팅 지능 고도화 등 경제 전반의 혁신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밸류 체인(Value Chain)의 확장

이동통신산업 밸류 체인인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측면에서 융합과 컨버전스는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스마트폰 중심의 획일적 디바이스에서 자동차·시계·안경 등 기기의 변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단순한 개별 애플리케이션에서 고도화된 솔루션 플랫폼으로의 이동, 음악·영화 중심의 콘텐츠에서 위치정보·헬스정보 등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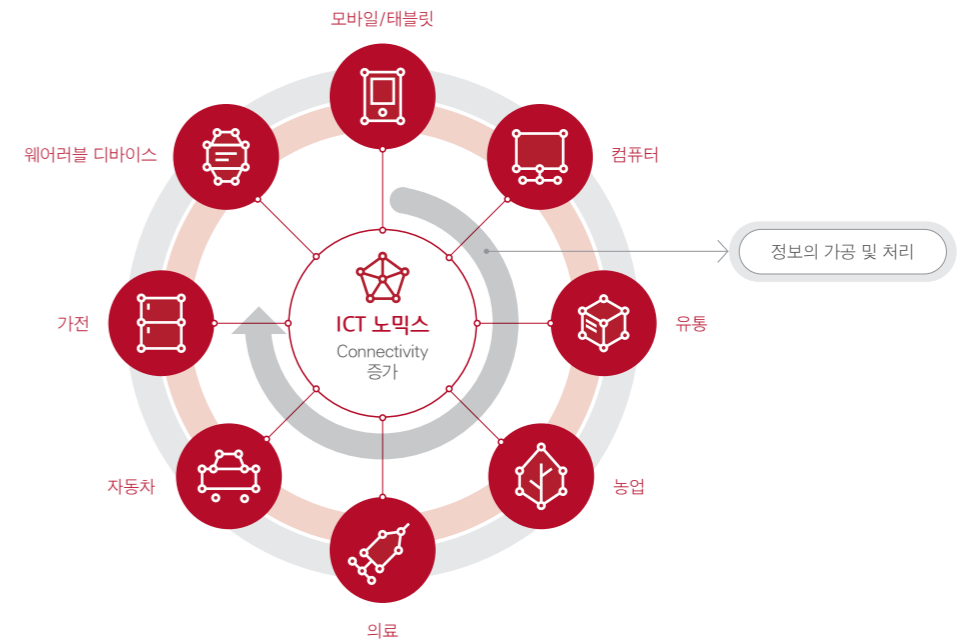
합한 빅데이터 콘텐츠로의 이동 등 전 밸류 체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형태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ICT 생태계 형성은 빅데이터 처리 및 전달, 솔루션 개발, 서비스와 융합된 신규 하드웨어 영역에서의 사업 기회 등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연결성(Connectivity)' 기반의 전 방위적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컨슈머 IoT 확대를 위한 '라이프웨어'

SK텔레콤은 2014년 한 해 동안 솔루션, 헬스케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개인 대상의 컨버전스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왔습니다.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SK텔레콤은 성장 사업의 강화와 더불어 기존 비즈니스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기업솔루션과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 to Machine) 회선사업을 연계한 IoT 플랫폼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커머스 등 미디어 기반 사업 모델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한 기술 리더십 강화를 추진하고자 인텔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활성화

사물의 연결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제를 창출하는 ICT 노믹스



중국 SK심천메디컬센터 개소



2014 아시아-태평양 지역 헬스케어 분야 올해의 통신사 수상

와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부문에서는 특히 센서, 프로세서, 연결성(Connectivity)을 통해 스마트기기로부터 수집,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 영역을 '라이프웨어(Lifeware)'로 새롭게 정의하고, 고객 니즈 기반의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이프웨어' 사업은 2015년 신성장 사업으로서의 가치 입증 및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서비스 기반의 고객가치 향상을 통해 기업 가치 3조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사업 부문의 의미 있는 성과 달성
2014년 SK텔레콤은 체외진단기기 프렌드 TSH(감상선암)의 미국 FDA 승인 획득, 중국 SK심천메디컬센터 개소 등 중국

헬스케어 사업의 본격 진출과 병원솔루션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체외진단기기 사업의 경우, 2014년 4월 나노엔텍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미국 시장 진입 및 확대를 더욱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심천에 SK심천메디컬센터 개소하여 헬스케어 사업의 중국 거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병원솔루션 HIS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700억 원대 병원정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지역 수출의 지속적인 확장에 성공할 경우 5년간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물인터넷(IoT) 및 융합형 성장 솔루션 사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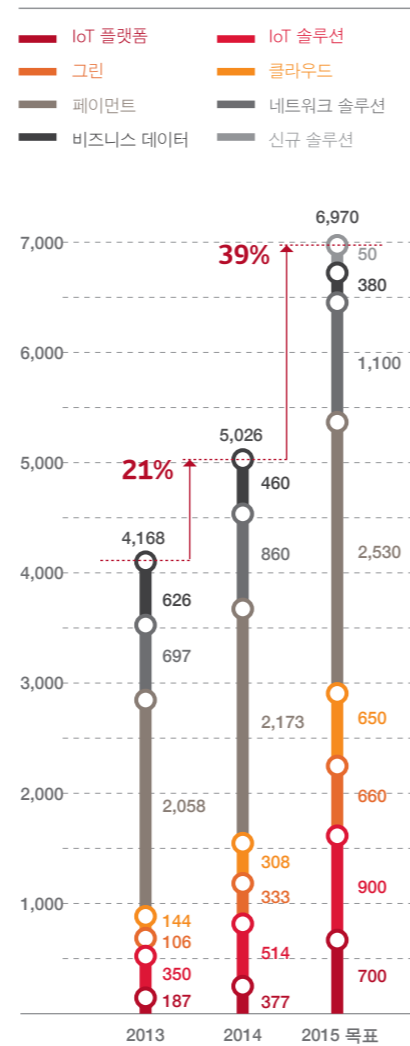
솔루션 사업은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외부의 경제·환경·사회적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ICT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CT 사업 플랫폼 기반 사업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여 중기 성장 중심축으로의 가치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2014년 솔루션 사업 영역에서는 사업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솔루션 사업은 2013년 대비 20.6% 성장하였으며, 특히 그린(Green) 부문의 성장률은 215%에 달할 만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이하여 ICT 노믹스를 추구하며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지속 성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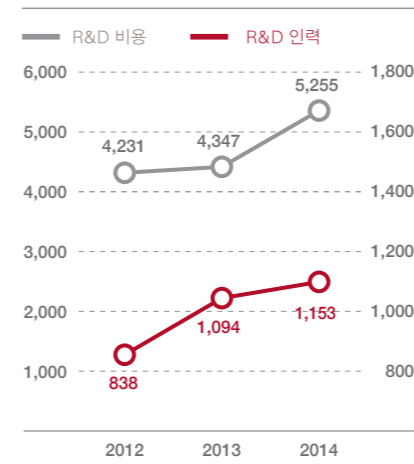
솔루션 사업 영역별 성과와 계획

개념	2014 주요 성과	2015 계획
IoT 솔루션	기업고객의 산업별 밸류체인과 사업 프로세스 특성을 반영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효율화 인프라 전반을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다양한 사업 영역 대상 서비스 기반 확보 및 산업 특화 상품 출시(e-Call 서비스 시범 사업자 선정, ICT 융합 신개념 가구 스마트 퍼니처)
IoT 플랫폼	빌딩과 공간에 센서, 통신 및 IT 기술을 결합하여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정보를 확인, 제어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	주요 영역별 솔루션 매출 확대(스마트 & 케어: 중증장애인 돌보미, 전자바우처, 경기버스·택시관제 등 교통, 스마트농축수산업, 식자재 직거래 서비스 등)
Green	빌딩, 공장, 공공기관, 시설물 등 전 영역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파워 플랜트 등의 솔루션 제공·구축·운영 사업	다양한 빌딩·산업체 유형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사업 수주를 통한 지속 확장 기반 마련
Payment	휴대폰 기반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 시 결제를 대행하는 DCB(Direct Carrier Billing) 사업 등 결제 서비스	중·장기 결제 사업 성장 모델(T Smart Pay) 구체화 및 실행, 이용 한도 및 수익 개선 등 단기 과제 추진 확대
Cloud	보안·안정성, 모바일 최적화 등 특화 인프라형 상품 관련 클라우드 제공	글로벌 클라우드, 웹들 등 솔루션 라인업 확대 및 게임, 커머스, 금융 등 주요 고객군 대상 사업 확장

솔루션 사업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R&D 비용 및 인력 현황 단위: 억 원, 명



영역별 R&D를 통한 자기완결적 기술 개발 추구

SK텔레콤은 기존 이동통신사업 및 성장 사업과의 균형 잡힌 R&D 추진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성장 사업의 R&D 실행력을 높이고자 2013년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ICT R&D와 미래 성장 R&D를 분리하여 기존 ICT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ICT 융합 및 인접 산업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기회 확보

를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유무선 네트워크,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에서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제품·네트워크·단말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 기반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기술 혁신 및 기술 기반 신규 사업 강화로 미래의 새로운 영역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R&D 활동 현황

ICT 영역	네트워크	IT	성장 영역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초 20M+10M 광대역 CA 상용화 기술 및 3band MC/CA 상용화 기술 개발 LTE-A 진화 기술(SUPER Cell, FDD-TD 간 CA 기술 등) 가상화 기반 네트워크 구조 혁신(vRAN, vSOFT Core 등) 차세대 전송망 및 Wi-Fi 기술(T-SDN, Carrier Wi-Fi 등) 개발 고효율·대용량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DU, IMS/HLR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t-API, T Developers 플랫폼 등) OpenStack 기반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OS EMD 차세대 인프라 진화 기술 개발 BLE(Bluetooth Low Energy) 기반 Offline Payment 기술 및 개인화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모델 혁신 융합 제품(Convergence Product) 개발 (Location, IoT 플랫폼 등) 사물인터넷(IoT)용 SoC(System on Chip) 솔루션 개발 NAND Flash 특화 제품 개발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개발 상황인지·증강현실·가상현실 등 Virtual Experience 기술 개발 Laser 기반 Pico Projector, Smart Earset 개발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관제, 침입 탐지, 이동 객체 추적 등 영상통합관제 솔루션 개발 한국어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SQL-on-Hadoop 기반 DW(Data Warehouse) 솔루션 개발 분자 진단 및 면역 진단 기술, 특정 부위 항체 성능 개선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관제, 침입 탐지, 이동 객체 추적 등 영상통합관제 솔루션 개발 한국어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SQL-on-Hadoop 기반 DW(Data Warehouse) 솔루션 개발 분자 진단 및 면역 진단 기술, 특정 부위 항체 성능 개선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관제, 침입 탐지, 이동 객체 추적 등 영상통합관제 솔루션 개발 한국어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SQL-on-Hadoop 기반 DW(Data Warehouse) 솔루션 개발 분자 진단 및 면역 진단 기술, 특정 부위 항체 성능 개선 기술 개발

‘ICT 생태계 확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SK텔레콤은 ICT 대표 기업으로서 융합화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 · 농축수산업 · 의료 ·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ICT를 통한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창조경제를 이끄는

SK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과 개인 등 경제 주체들 간의 다양한 연계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입니다.

SK그룹의 대전 ·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참여를 계기로 SK텔레콤은 기존의 전 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및 농수산업 ICT 융 · 복합 사업 등의 창조경제 선도 경험과 역량을 지역 창조경제 사업으로 확대 ·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SK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년의 성과

SK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주기적 사업을 지원하는 ‘드림 벤처스타’와 경쟁력 있는 ICT 기반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벤처스타’, 유망기업을 연계해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파트너’ 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드림 벤처스타 1기 기업 10개사를 선발하여 입주 공간부터 초기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전담 멘토 배정,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을 해왔으며, 창업과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기관을 연계하여 약 10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4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인 씨메스는 산업용 3D 스캐너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간 12억 9,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한편, ‘테그웨이 (TEGway)’의 ‘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 기술’은 2015년 2월 유네스코의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그랑프리에 선정되어 전 세계적 인정을 받고 현재 실리콘밸리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즈니스 모델 수출

2015년 3월 사우디텔레콤과 ‘SK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수출 및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판 창조경제형 ‘민 · 관 · 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양사 간 협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지역에 스마트시티 · 헬스케어 · 스마트러닝 ·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SK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벤처스타’ 선정팀 발대식



SK텔레콤-사우디텔레콤 MOU 체결



‘브라보 리스타트’ 2기 ‘빅노트’ 시연 모습

ICT 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브라보! 리스타트’는 창업 기회가 부족한 장년층과 기발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한 ICT 융합형 벤처 창업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창업 지원과 함께 해당 벤처와의 공동 개발 사업을 통해 SK텔레콤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기여하며, 벤처 창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결집한 통합적 지원 체계입니다. 공모를 통해 창업가를 발굴하고, 초기 창업 지원금 지원 및 공동 개발 지원 투자, 판로개척, 창업가 케어(Care) 프로그램, 1:1 멘토링 등을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선정된 총 23개 팀에 2015년 11개 팀을 추가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34개의 창업 벤처를 육성하며 성공적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 출시에 의한 매출 발생, 총 7건의 특허출원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달성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고부가 창업 모델 및 성공 스토리와 사회적 ·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리스타트’ 공동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협력적 가치 창출

(주)아이에스엘코리아는 ‘브라보! 리스타트’ 2기에 최종 선발되어 SK텔레콤과 사업 모델 공동 수립, 해외 동반 진출, 전시회 동반 참가 등을 통해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아이에스엘코리아는 영상좌표분석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터치스크린 장치인 ‘빅노트(Bignote)’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러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시장 진출을 돕고자 2014년 6월,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AE, Mobile Asia Expo) 전시회 공동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현지 시장분석 제공 및 현지 업체 대상 제안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해외 진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고객 대상 총판 체계를 구축하고, 2014년 10월 SK텔레콤과 4.6억 원 규모의 납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현재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리스타트’ 3기 창업 아이템

사업명	서비스 개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점자 스마트워치
아이트래킹 고속 입력 시스템	안구 움직임 추적을 통한 문자 입력 기술
휴대용 스마트멀티캠	스마트빔 형태의 휴대용 카메라
스마트에어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과 연동한 주변 공기 감지 기술
모바일 비디오 제작 도구 ‘Collavo’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가능한 앱
SNS 기반 브랜드 플랫폼 ‘Brandy’	유명 기업 및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집단 대상 SNS 서비스
엄마들을 위한 지역 기반 SNS 서비스	육아 관련 정보 공유와 커머스를 연계한 SNS 서비스
빅데이터 기술 기반 뉴스 제공 솔루션	자체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정보 제공 솔루션
3D 변환 Photo Booth System	3D 화상 전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카메라 기반의 3D 스캐너
저비용 실내 전등 스마트 무선제어 시스템	배선 공사 없이 스마트 무선제어 시스템 적용 가능 기술
휴대용 음악 작곡 · 편집 디바이스	작곡 · 편곡 · DJ 장비 소형화 및 유통 플랫폼 구축



‘브라보! 리스타트’ 3기 발대식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촌을 혁신하는 스마트 기술

지난 2012년 서울 중곡동 제일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SK텔레콤은 2013년 5월 인천 신기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한 ICT 솔루션 적용을 통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솔루션인 '마이샵(MYSHOP)', 모바일 전자지갑 등은 상인과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화된 ICT 솔루션으로 전통시장의 창조적 미래상을 조망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스마트전단'을 통한 매출 20~50% 증가, '함께하는 금요장터'를 통한 방문객 50% 및 매출 30% 증가, 신기시장 멤버십

제도 도입을 통한 멤버십 회원 약 3,700명 유치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매출 확대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스마트 기술은 농어촌 경제의 활로 모색에도 기여합니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시설원에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인 '스마트팜', 행복ICT와 함께 구축한 국내 최초의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에 이어 2014년 8월에는 양식장의 수조 내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양식장' 시범 사업 등 다양한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농촌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ICT 융합 솔루션

구분	솔루션	세부 내용
전통시장 혁신	경영 시스템	마이샵 소상공인 경영 지원 솔루션 - 태블릿 PC 활용 판매·경영 관리, 고객 관리
	고객가치 제고	전통시장 멤버십 카드 전통시장 전용 멤버십 도입 - 신규 고객 확보 및 고객 유지 기능
	ICT 체험관	전통시장 내 알버트, 아미 등 교육용 로봇을 포함한 ICT 솔루션 체험 공간
마케팅 역량 강화	아리청정	전통시장 고유 상품 브랜드 - 11번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배송 지원	미유박스(무인 택배) 전통시장 상품 구매 및 배송 시스템
농어촌 혁신	생산성 향상	스마트양식장 양식장 수조 내 산소 포화도, pH 등 정보 관리
	직거래	스마트로컬푸드 농어촌 생산품 직거래 사업 지원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반 '양식장 관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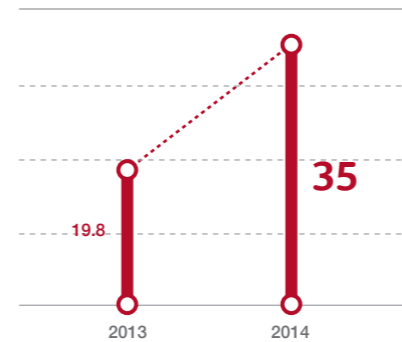
'재단법인 행복ICT' 취약계층 고용률



'재단법인 행복ICT' 사회적 가치 창출(2014년 기준)



'행복한 에코폰'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T Open Lab을 통한

ICT 융합 비즈니스 개발

SK텔레콤의 협력회사 (주)비디는 2013년 12월 T Open Lab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된 업체로 SK텔레콤과 함께 'IoT 양식장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무선 네트워크 기반 양식장 수조 감시 시스템으로 양식장 수조 내 수온, pH 농도,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먹이량과 출하량 등의 사육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주)비디와 함께 센서 발굴 조사 및 현장 답사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4년 4월 시스템 기획 및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4년 7월 민간 공동 투자 기술 개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8월 전북 고창의 장어 양식장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양식장 관리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폐사율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어업계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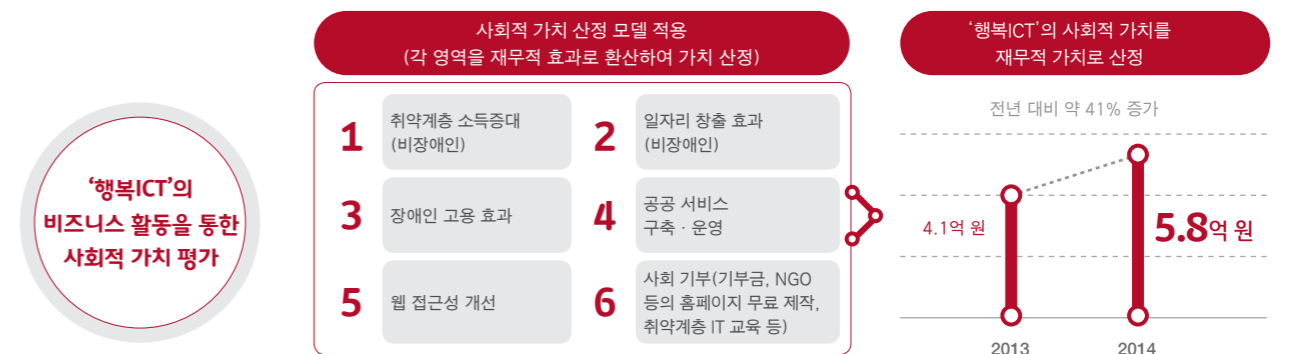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재단법인 행복ICT' 설립에 이어 2013년 중고폰 유통사업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에코폰'을 설립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통해 창출한 취약계층 소득 증대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공공 서비스 구축·운영 효과, 웹 접근성 개선 효과 등의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여 가치 산정

과 등의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및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ICT'는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사회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13년 4.1억 원 대비 약 41% 증가한 5.8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복ICT'는 취약계층 고용 32.3% 달성과 함께 2014년 4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모바일 기반 청소년사업 관리 시스템', '스마트로컬푸드 사업 지원 시스템' 등 기업 역량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른 ICT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

2014년 SK텔레콤은 ICT 전문 자원봉사자의 체질 전환과 구성원 재능기부 강화 방향성을 기반으로 정보 소외계층 대상의 스마트폰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등 바른 ICT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Sunny)'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휴대폰 활용 교육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비롯하여 '이음 페스티벌' 행사,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가정 대상 휴대폰 활용 교육,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대회 등 취약계층 스마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SK텔레콤의 ICT 관련 자원봉사 비율은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ICT 전문·재능 봉사 강화를 통해 투입 역량 및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사회적 기업 '행복ICT' 사회적 가치 산정 모델



스마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ICT 솔루션

기후변화는 일상생활과 산업,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리스크이자, 새로운 그린 산업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입니다. SK텔레콤만의 혁신적 ICT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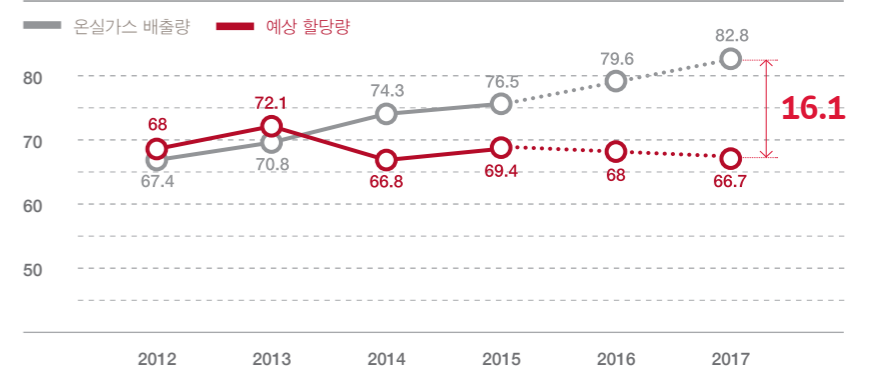
국내 기후변화 규제와 SK텔레콤의 적극적 대응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해왔으며, 2015년부터 국가 단위로는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시행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5% 이상을 전력에 의존하며, 전국에 걸친 통신망 장비가 주된 전력 소비원입니다. 이에 고효율 통신 장비(저전력 중계기 등) 개발 및 적용, 기지국 온도 상향 조정으로 냉방 전력 감축, 클라우드 BEMS(Cloud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사옥 에너지 관리, 기기당 개별 전력계 설치 등의 노력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2014년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66.8만 톤) 대비 약 7.5만 톤을 초과한 총 7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더불어 201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강화된 규제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목표 할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크 품질 고도화를 위한 365일 24시간 네트워크 운용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시설 투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자체 감축을 통한 감축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01~2017.12)동안 약 44.8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규모 감축 활동 및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미래 규제 변동과 탄소 배출권의 가격 형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직접적인 재무적 타격이 되지 않도록 배출권 거래제(ETS), 청정개발체제(CDM) 등 기후변화 공동 협력 대응책 참여와 함께 ICT를 활용한 배출권 확보 연구 및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T맵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저장 분야 솔루션 영역 확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 할당량

단위: 만 tCO₂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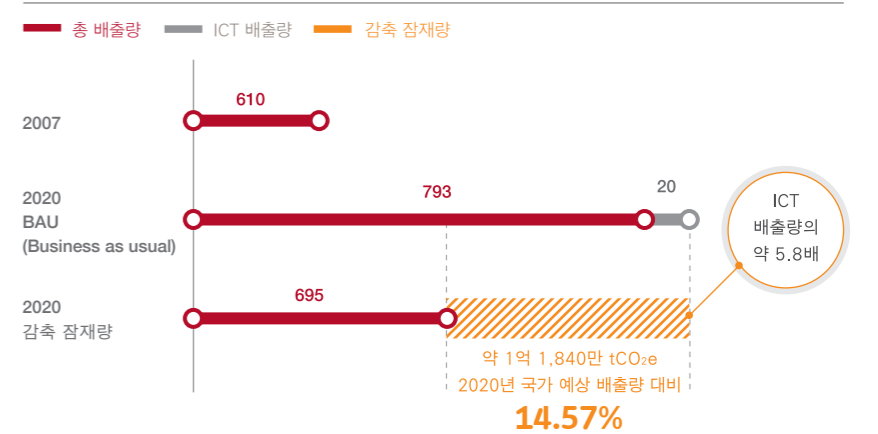
ICT를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확보 노력

SK텔레콤은 핵심 역량인 ICT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제품·서비스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인 Scope3에 해당하는 사회적 온실가스의 감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이후 Scope1 및 Scope2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비용 및 양적인 부분에서 한계에 봉착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ICT 서비스를 통해 2020년까지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2020년 기준 약 1억 1,840만 톤, ICT 배

출량의 약 5.8배)을 산정하였고, 이는 국내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 사례로 활용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보고서로 2013년에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T맵',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의 기술 개발과 더불어 산·학·관 이해관계자 자문회의를 통한 정부 정책 연구 추진 등 ICT를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감축량 인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상쇄 배출권 활용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회와 환경 그리고 기업 모두의 경쟁력 상승 및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ICT를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ITU국제보고서)

단위: MtCO₂e



T맵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선도

SK텔레콤의 'T맵(T map)'은 실시간 교통 정보 기반의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하는 통신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이를 통해 물리적 이동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2012년 SK텔레콤은 국립전파연구원(RRA)과 함께 'T맵을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3년 12월 페루에서 개최된 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환경 및 기후변화 표준화 회의에서 'ITU 국제 권고 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14년 4월 200여 회원국의 검토 절차를 거쳐 국제 방법론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같은 구체적인 ICT 서비스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최초의 국제 권고 표준이며, 주요 내용은 실시간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교통 정체 구간을 우회하여 통행 속도의 증가 및 운행 시간의 감소로 감축하는 온실가스량을 수행기관이 일관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차종, 연료, 시간, 샘플링한 거리 경로를 통제변수로 하여 일반 내비게이션(최단 경로 안내)과 T맵 이용자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조사(95% 신뢰도 수준)하였으며, T맵 이용자들이 통행 속도 9.99km/h 향상, 연료 소모량 11.9% 감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12.6%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T맵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 UN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CT 서비스 기반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정 및 상쇄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4년 환경부 주관으로 ICT 서비스를 활용한 친환경 라이프사이클 촉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ICT를 활용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

축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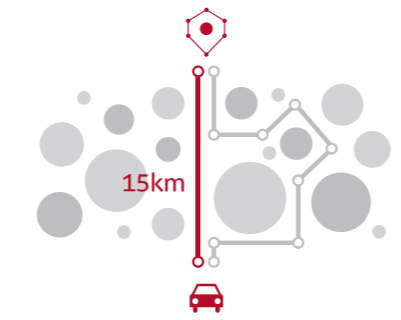
ICT 기반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 사업 확대

SK텔레콤은 빌딩, 공장, 공공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및 스마트파워 플랜트(SPP, Smart Power Plant) 솔루션을 제공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고객 유형별 레퍼런스(Reference)를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한 질적·양적 성장을 병행한 결과 전년 대비 215%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매출 98%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대표적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인 '클라우드 BEMS' 및 '클라우드 FEMS (Cloud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는 빌딩 및 공장 설비 운영의 개선점과 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클라우드상에서 관리·분석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2014년, SK텔레콤은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에너지 소비 및 설비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통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BEMS 2.0'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사업장의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군(群) 관리 기능', 목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목표 관리 기능', 사업장 사용 전력의 최대치를 관리하는 '전력 최대(Peak) 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을 구현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2014년 SK텔레콤은 ICT 기반의 BEMS 및 FEMS 솔루션을 30여 개의 빌딩, 공장 등의 사업장에 적용하여 고객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클라우드 BEMS' 솔루션은 병원, 호텔, 백화점 등에 적용하였으며 리조트, 오피스 빌딩 등 다양한 유형별 빌딩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FEMS'

T맵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매일 15km의 거리를 승용차로 왕복한다고 가정할 경우 T맵을 통해 이동 시간을 약 10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연간 110리터에 달하는 주유비 10% 절약을 통해 연간 274kg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게 됩니다. 이는 연간 91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T맵 내비게이션



클라우드 BEMS 2.0 출시

솔루션을 화학공장 등에 구축하였으며, 석유화학, 식품,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FEMS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저장 분야 솔루션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유지·보수비 절감, 정부 환경규제 대응, 신규 수익 창출 등의 장기적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BEMS 2014년 주요 절감 실적

프로젝트	주요 에너지 절감 내역	에너지 절감량	연간 절감액
SK이노베이션 서린빌딩	보일러 운전방식 조정 공조기 최적 기동·정지 냉각수 온도 조정	42,000Nm ³ (LNG) 270MWh(전기)	약 6,400만 원
현대백화점 울산점	냉수·냉각수 시스템 개선	1,290MWh(전기)	약 17,600만 원
제주 한라병원	열원 시스템 개선	98,000Nm ³ (LNG)	약 17,900만 원
시화병원	냉난방 개선, 조명 개선	41,000Nm ³ (LNG) 240MWh(전기)	8,200만 원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자체 감축 노력

SK텔레콤은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환경 솔루션 제공, 에코카드 도입 외에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응 및 배출권 거래제 적극 참여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체 운영 과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타이머 및 자동온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 시간 외 냉난방 감축, 터보 냉각수 펌프 인버터 설치 운용 등으로 연간 약 3,143MWh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독성 물질 및 유해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없어 환경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2014년 환경법규 위반이나 그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납부 사실이 없습니다.

친환경 모바일 멤버십을 통한 자원 절약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T멤버십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를 모바일 에코카드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T멤버십 모바일 에코카드 이용 고객 1인당 약 4.88g의 플라스틱 절감과 약 12g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A4 용지 4장을 절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동시에 소나무 40그루의 호흡량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T멤버십 운영을 위해 평균 500만 장 이상의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왔으며, 이를 전량 모바일 카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4톤 이상의 플라스틱 자원 절약과 함께 약 55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은 고객이 모바일 멤버십 카드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통해 모바일 멤버십 카드 이용률 제고와 고객의 환경보호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체계적 인재 관리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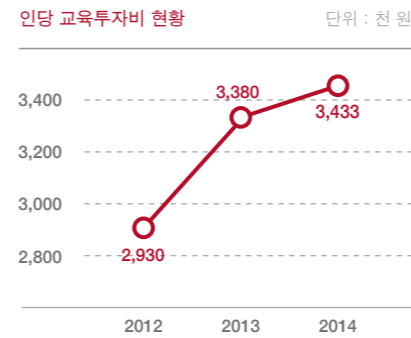
체계적 인재 육성 및 관리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의 중추인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을 통해 사람과 문화를 혁신하고, 더 나아가 SK텔레콤 성장의 기틀을 견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SK텔레콤은 실무진부터 경영진까지 조직별·직급별로 업무 기본 소양(SK Values), 리더십,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을 구분하여 교육 체계를 나누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및 발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무선사업 조직과 성장 조직의 경우 서로 다른 사업구조 및 구성원 특징으로 인하여 SK텔레콤은 조직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선사업 조직의 경우, 철저한 기본기에 바탕을 둔 실행력 강화와 구성원의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케팅, 네트워크, 기업솔루션 등을 핵심 필수 역량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 조직의 경우, 공통 영역 중심의 육성 및 구성원 상호 간의 역량 이전을 강화하여 보유 역량의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구성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훈련 방식을 단위 조직이 주체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했습니다. 단위 조직이 자율적으로 실력 육성 프로그램을 편성·집행하고 중앙부서는 전사 차원의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현장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실력 육성전

락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점검하였으며, 마케팅(B2C), 기업솔루션(B2B), 네트워크, R&D 현장 조직 구성원의 육성 제도를 개선·시행하였습니다. 또한 SKMS 실천 수준에 대한 진단을 상·하반기 각각 실시하고, 자기개발계획(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오너십을 현장으로 이관함으로써 실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계층(Band)별 리더십 및 직무 역량 강화
SK텔레콤은 전사 리더십 파이프라인(Leadership Pipeline)에 따라 임원, 팀장 등 각 계층별 리더십 및 직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대상으로 역할 인식 및 조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임원 코칭 제도와 스스로 필요한 영역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러닝 어카운트(Learning Account) 제도, 외부 대학 등과 연계한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과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팀장의 경우 정기적인 전사 팀장 워크숍 및 '아우소(아침을 여는 우리 팀장들의 소통)'를 통해 경영 현황 및 주요 이슈와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리더 확보를 위해 각 계층(Band)별 HiPo(High Potential) 인력을

조직별 구성원 육성 체계



별도 선발하여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즉시 보임 가능한 팀장 후보 육성을 위한 'LIP(Leadership Intensive Program)'를 비롯하여 'T-Professional', 'T-Challenger'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존의 '2015년 전사 차세대 리더 500명 육성'의 목표를 2014년 말 누적 565명 양성으로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계층(Band)별 1·4년차 프로그램을 통해 각 계층 659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및 고객 기반의 정선무장과 계층별 역할 인식, 핵심 역량 습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온 결과, 2014년 인당 교육 투자비는 3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임직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사업 관점의 이점(Business Benefit)
임원 코칭	임원 리더십 및 조직 관리 역량 강화
전사 팀장 워크숍 및 아우소	전사 변화 방향 및 팀장 역할의 명확한 인식
HiPo(High Potential) 핵심 인재 교육	HiPo 인재의 선제적 육성을 통한 미래 리더 풀(Pool) 확보
T클래스(T-Class)	직무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주제를 통한 폭넓은 사고와 경험 제공
T-University	SK텔레콤 및 투자회사·관계사의 각 부문별 교육과정 상호 공유를 통한 직무 전문 역량 강화 시너지 제고
터닝(T-earning)	모바일 학습 플랫폼을 통한 ICT 트렌드, 직무 전문 지식, 어학 등 효과적 학습
밴드별 1·4년 차 프로그램	밴드별 역할 인식 및 핵심 역량 습득 개발

CDP 수립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SK텔레콤은 개인별·직종별 전문성 제고와 전사 인적 역량을 적재적소에 실현·배분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lan)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를 통해 직종 변경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임직원 역량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 'T클래스' 찾아가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 'T클래스 (T-Class)'는 2012년부터 규모와 인지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2014년에는 구성원들의 니즈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런천 T클래스 (Luncheon T-Class)와 인텐시브 T클래스 (Intensive T-Class) 등 형태를 다양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교육 참가

인원이 대폭 상승하여 총 108개의 과정에 14,368명이 참가함으로써 전년 대비 과정별 평균 약 64.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의 상승세에 힘입어 향후 당사 사업과의 연관도를 제고하고, 사내 역량 전이 및 재생산 기능을 강화하여 T클래스를 더욱 고도화시킴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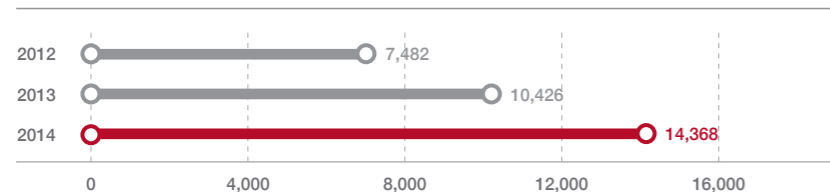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천 T클래스

T클래스 성장 과정

	2012	2013	2014
추진 개요	론칭 및 정착	월별 테마가 있는 구성	형태 다양화 및 참가 규모 확대
교육 현황	- 153개 과정 - 총 7,482명 참여	- 118개 과정 - 총 10,426명 참여	108개 과정 - 총 14,368명 참여
주요 프로그램	- 저녁 T-Class - 찾아가는 T-Class	- 저녁 T-Class - 부문 주도 T-Class	- 저녁 T-Class - 찾아가는 T-Class - Luncheon T-Class - Intensive T-Class

T클래스 교육 참가 현황

단위 : 명



경력단절 여성 상담사 정규직 채용

다양한 제도 및 채널을 통한 인적 다양성 확대

SK텔레콤은 글로벌·여성·지역 인재 등으로 채용 인력의 다양성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글로벌 리크루팅 프로페셔널(Global Recruiting Professional)' 및 '글로벌 테크 리더 서밋(Global Tech Leader Summit)'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수 인재 채용과 함께 미국 내 SK텔레콤의 고용 브랜드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 SK그룹 차원의 임원협의체 'W-Network'를 구성하여 멘토링, 워크숍 외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평가·승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 자동 전환제를 시행하는 등 매년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필요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61명의 경력 단절 여성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가점 적용, 별도 채용 인원 확보를 통한 특별 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별 커리어 센터 및 장애우 지원 센터와 연계한 추천 채용 등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무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 채용 시에는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 채용'을 실현하기 위해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스토리 심사 및 오디션 '바이킹 챌린지(Viking Challenge)' 외에 '탈런트 페스티벌 (Talent Festival)', 'It's You 캠프' 등 다양한 열린 채용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린 채용 프로세스, 'It's You 캠프'

육성 중심의 성과 평가와 수평적 조직 문화

SK텔레콤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성과 평가 비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5%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에는 단기 및 중·장기적 성과 측면과 조직에 대한 기여도, 구성원의 역량과 실행력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고려되며,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행동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더가 연중 수시로 '진행 과정 리뷰 및 코칭(Progress Review & Coaching)'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관리가 구성원을 육성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리뷰와 결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성에 초점을 둔 평가 제도를 통해 구성원에게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발전과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기본적으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남녀 간 동일한 급여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단, 임직원의 근속 연수, 직급, 성과 평가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직위 체계를 폐지하고 매니저(Manager) 제도를 도입하여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하고 직위는 급여 체계(Pay Band)로 구분하여 직위보다는 직책 중심의 인사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3. Governance & Leadership

거버넌스 리포트

리스크 리포트

윤리경영

이사회 프로파일

SK텔레콤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 등 총 6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제31기 주주총회를 통해 장동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으며, 이사회 의장은 독립 사외이사인 정재영 이사입니다. SK텔레콤의 이사회는 경제 및 사회, IT 등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영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2008.03)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2010~현재)
 아태경제학회 회장(2013~2014)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
 (2003~2006)
 · 기업시민위원회
 · 보상심의위원회
 · 투자심의위원회



장동현

CEO & 사내이사(2015.03)
 SK텔레콤 대표이사 · 사장(2015~현재)
 SK플래닛 COO 부사장(2013~2014)
 SK텔레콤 CMO 마케팅부문 부사장(2011~2013)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오대식

사외이사(2013.03)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2008~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청장(2007~2008)
 국세청 조사국 국장(2006~2007)
 · 감사위원회
 · 기업시민위원회
 · 보상심의위원회
 · 투자심의위원회



이재훈

사외이사(2014.0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2014~현재)
 지식경제부 제2차관(2008~2009)
 산업자원부 제2차관(2007~2008)
 · 감사위원회
 · 보상심의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투자심의위원회



안재현

사외이사(2014.03)
 KAIST 경영대학 대외부학장(2013~현재)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장(2011~2013)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2011)
 · 감사위원회
 · 기업시민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투자심의위원회



조대식

사내이사(2013.03)
 SK(주) 대표이사 · 사장(2013~현재)
 SK(주) 재무팀장 겸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
 (2012)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원칙으로 한 지배구조 확립

SK텔레콤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기반으로 이사회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효율성과 독립성 강화

SK텔레콤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2015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8명(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3명)으로 운영하던 이사회 규모를 6명(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2명)으로 축소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국내 대기업 상장사 평균(49.6%, 201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대비 높은 수준인 66.7%까지 상향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시민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여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장동현 사내이사 후보 및 이재훈 감사위원 후보의 인적 사항을 2015년 2월 25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사항에 공시하고, 3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이사 및 신임 감사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선임 건은 2015년 3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사 선출의 투명한 절차

SK텔레콤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사외이사를 선출합니다. SK텔레콤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은 국내 상법의 요구 사항 및 국내 지배구조의 모범 기준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ICT 산업·경영·경제·회계·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사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인을 선정합니다. 이사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후보 개인의 역량은 물론, SK텔레콤 이사로서 전문 역량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가 선정되면 이후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로 추천된 후보의 선임을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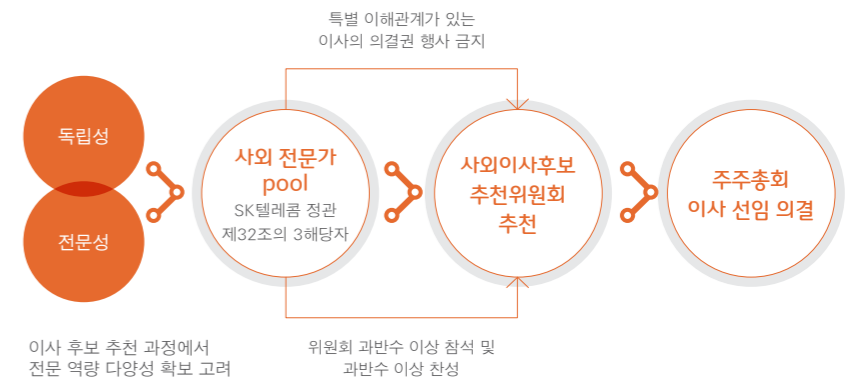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SK텔레콤의 이사 독립성 기준

독립성 결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해관계 상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관련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사외이사 선출 프로세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SK텔레콤은 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독립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의 심의,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사항, 내부 회계 관리자와 외부 감사인이 보고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등을 감사합니다.

이해관계 충돌 방지

SK텔레콤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동종 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사외이사와 감사의 겸직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과 책임(2015)

구분	구성	권한 및 책임
사외이사후보	사내이사 1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	· 이사직무집행감사권, 영업보고요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 상법에 따른 이사회에 대한 조사권 · 상법에 따른 위법행위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 · 상법에 따른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관한 대표권 · 상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감사인의 선임 · 친족 계열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 금액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상품·용역 제공·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특정 계열회사와 수익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 건당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특정 계열회사와 수익계약에 의해 계속 거래하는 경우, 동일 회계 연도 내 추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일괄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보상심의위원회	사외이사 3	· 대표이사의 보상체계 및 보상수준 심의
투자심의위원회	사외이사 4	· 차기 연도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심의 · 당해 연도 사업계획 일괄 변경 시 투자계획 심의 · 주요 투자의 변경(CAPEX의 10% 초과 시) · 분기 또는 반기별 투자 집행 실적
기업시민위원회	사외이사 3	· CSR 추진 방향 설정 및 심의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고충 처리 · CSR 추진 활동 관련 이사회 보고

*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업시민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활동 및 평가

SK텔레콤은 매년 이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합니다. 또 임기 만료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재선임 추천 시 기존 이사회의 활동 내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사의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이사회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지급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경영 전략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최고 경영진의 보수 결정, 이사 후보 추천, 회계 및 성과 공시에 대한 감사 등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 현황(2014)

회차	개최일	주요 안건	이사 참석률
제361차	2014.02.06	제30기 재무제표(안) 제30기 영업보고서(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013년 4/4분기 사후 보고 사항	100%
제362차	2014.02.20	2014년 SK플래닛과의 상품/용역/자산 거래(안) 피에스앤마켓팅 증자 참여(안)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100%
제363차	2014.03.21	대표이사 선임(안) 이사회 의장 선임(안) 위원회 위원 선임(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2014년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지급(안)	100%
제364차	2014.04.24	SK브로드밴드와의 B box 관련 자산 거래(안) 사채 발행(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금융 거래(안) 2014년 1/4분기 사후 보고 사항	100%
제365차	2014.06.26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100%
제366차	2014.07.24	중간배당(안) 2014년 상반기 결산 보고 2014년 2/4분기 사후 보고 사항	100%
제367차	2014.09.24	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 용역 거래(안) 사채 발행(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100%
제368차	2014.10.23	Tianlong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홍콩 자회사 출자(안) 2014년 3/4분기 사후 보고 사항	100%
제369차	2014.11.27	2015년 SK입업과의 거래(안) 인등산 SUPEX센터 임대차 거래(안) 2015년 고객접점체널 운영 용역(안) 업무용 항공기 공동관리 계약(안) 준법 점검 및 유효성 평가 결과	100%
제370차	2014.12.19	2015년 경영계획(안) 아이리버 성장 추진을 위한 출자(안) 2015년 SK플래닛과의 상품/용역/자산 거래(안) 2015년 SK브로드밴드와의 유선상품 재판매(안) 2015년 기지국 유지보수 용역(안) SK브랜드 사용계약 연장(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자금운용 거래(안) 계열금융회사(SK증권)와의 회사채 거래(안)	100%

위원회 활동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2014)

구분	위원	개최일	주요 안건	이사 참석률
감사위원회	오대식	2014.02.05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안)	100%
	임현진 안재현		2013년 하반기 경영진단/감사 실적 및 2014년 경영진단/감사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014.02.19	2013년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2013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안) 제30기 감사보고서(안) IT SM 재계약(안) 2014년 SK와이번스(주) 용역 거래(안) SKTCH 용역계약(안) 2014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4.03.20	2014년 2/4분기 SK C&C(주) 거래(안)	
		2014.04.23	위원장 선임(안) - 오대식 이사 행복나래(주) 소모성 자재 구매(안) 2014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4년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안) 2014년 외부감사인 용역제공 일괄 승인(안) 2014년 회계감사 계획	
		2014.06.25	2014년 3/4분기 SK C&C(주) 거래(안) SK브로드밴드와의 에너지 절감 사업계약(안)	
		2014.07.23	2014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4년 상반기 경영진단/감사 실적 및 하반기 계획 2014 회계연도 IFRS 반기 검토 결과	
		2014.09.23	2014년 4/4분기 SK C&C(주) 거래(안)	
		2014.11.26	2014년 유무선 Network 구축공사(안) 2015년 광선로 유지보수 용역(안) 2015년 전기통신설비 임차 거래(안) 2015년 유선망 용역 위탁(안)	
		2014.12.18	2015년 1/4분기 SK C&C(주) 거래(안) 2015년 SK와이번스(주) 용역 거래(안) 2015년 매출채권 추심 위임(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2014)

구분	위원	개최일	주요 안건	이사 참석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하성민	2014.02.20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100%
	오대식		- 이재훈 이사, 안재현 이사	
	이재훈	2014.04.23	위원장 선임(안) - 하성민 이사	

투자심의위원회 활동 내역(2014)

구분	위원	개최일	주요 안건	이사 참석률
투자심의위원회	이재훈	2014.04.23	위원장 선임(안) - 이재훈 이사	100%
	정재영	2014.10.22	주요 투자회사 현황 보고	
	오대식	2014.11.26	주요 투자회사 현황 보고	
	안재현 지동섭	2014.12.18	2015년 투자계획(안)	

보상심의위원회 활동 내역(2014)

구분	위원	개최일	주요 안건	이사 참석률
보상심의위원회	임현진	2014.04.23	위원장 선임(안) - 임현진 이사	100%
	정재영 이재훈	2014.12.18	임원 보상구조 및 개선 사항	

기업시민위원회 활동 내역(2014)

구분	위원	개최일	주요 안건	이사 참석률
기업시민위원회	정재영	2014.04.23	위원장 선임(안) - 정재영 이사	100%
	임현진		2014년 CSV 추진 계획 보고	
	안재현 지동섭	2014.06.25	2013년 통합보고서 핵심 이슈 2014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2014년 고객정보보호 강화 방안	
		2014.10.22	2014년 환경경영 활동 2014년 윤리경영 추진실적/계획	
		2014.11.26	UNGC LEAD CSR 교육	

보수 지급

2014년 이사회의 보수 한도는 법률 규정 에 따라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 회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주주총회 의 승인 금액은 120억 원이었으며, 2014 년 지급한 보수 총액은 35억 200만 원입 니다. SK텔레콤은 이사 보수의 투명성 강화 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2014년부터 5억 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를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

이사의 급여는 이사의 보수 한도 범위 내에 서 수행 직무의 가치를 반영한 포지션 그레 이드에 따라 산정하며, 연간 급여 총액을 월 단위로 분할해 매월 균등 지급하고 있 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 회사 성과(Profit

Sharing)의 성과급 유형과 더불어 개인의 성과와 보상 연계를 강화해 개인 단위의 성과 관리를 고도화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타 겿 인센티브(Target Incentive)'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성과 보수는 매출 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와 연계한 계 량 지표와 리더십, 전략 과제 달성도, 전문 성 및 기타 회사 경영 성과 기여도로 구성 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 연봉의 0~20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 습니다. 경영진의 경우 추가적으로 3대 주 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DJSI 평가 결과 등의 외부 인지도 지표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ICT 솔루션 매출, 임직원 이직률, ICT 기반 사회적 기업의 사회 가치 창출 목표 달 성, 사회 기여 솔루션 매출 등의 환경·사회 적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인원수	지급 총액	인당 평균보수액
사내이사	3	3,102	1,034
사외이사	2	160	80
감사위원회 위원	3	240	80
총계	8	3,502	-

직원 보수 평균값 대비 최고 보수 비율

	총 CEO 보수*	직원 보수 평균값*	비율	전년 대비 증감비**
2014	1,458백만 원	102백만 원	14.29	18.55%

* 최고 보수 수량자 및 직원 보수는 연봉 및 성과급을 포함
** 2013년 직원 보수 평균값 대비 최고 보수 비율(12.06배) 기준

기업시민위원회를 통해 국제적 기준의 CSR 역량 강화

SK텔레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책임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2008년 5월 SK텔레콤은 이사회 산하에 기업시민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핵심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의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과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CSR 및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에 관한 최고이사결정기구로서 기업시민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 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며 고객 중심 경영, 동반성장, CSV 및 사회 공헌, 투명 윤리경영, 친환경 경영 등 지속 가능 경영 5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CSR 및 CSV 추진 활동 자문, 주요 이슈 및 성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GRI 가이드라인(GRI G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행 보고서(COP) 등 글로벌 표준 기관으로부터 최고이사결정기구의 CSR 참여 강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시민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최고이사결정

기구의 통합 보고서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핵심 이슈 사항을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시민위원회는 기업 홈페이지 내에 이해관계자의 노동·인권·환경·윤리와 관련한 불만·고충 통합 채널을 운영하도록 의사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협조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2013년에 이어 2014년 11월 이사회 대상 CSR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SK텔레콤은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의 발전 및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고객, 협력 회사, 구성원, 지역사회·NGO, 주주, 정부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각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소통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에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고충·불만을 수렴하는 온라인 채널, 온라인 고객센터(T월드), 협력 회사 포털, 노사협의회 등 6대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상시

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사회·환경·인권·노동 등 책임 경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관심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조치 사항은 영향도가 크거나 중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시민위원회에 보고됩니다. 2014년 공식적인 고충 처리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이슈는 46건이며, 모든 건에 대한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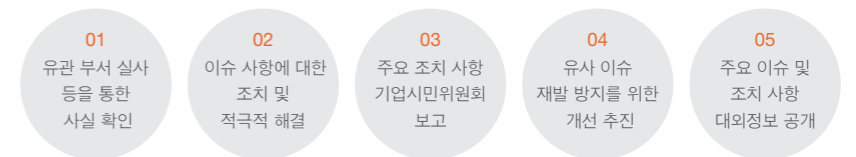
매년 경영 우선순위와 주요 이슈를 파악하

기 위해 SK텔레콤은 연례 온라인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사는 3월에 실시했으며, 총 357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사에는 임직원과 주주, 고객, 정부 기관, NGO 등 SK텔레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품질·고객만족·고객 유지, 책임 있는 마케팅, 인재 유치 및 유지 등 11개의 핵심 이슈를 파악했으며, 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은 기업시민위원회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거쳐 본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CSR 고충·불만 채널 운영
인권·노동·사회·환경·정보보호 이슈 관련 고충 및 불만 접수 프로세스



2014 CSV 자문위원회의 주요 안건

차수	날짜	주요 안건
1차	2014.06.12	CSV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2014년 CSV 추진 계획 행복동행 1주년 성과 리뷰 및 변화 추진 방향
2차	2014.08.22	ICT 동향 및 전망 CSV의 진화 과정과 미래 추진 방향 'BRAVO! Restart' 추진 성과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관련 환경 분석
3차	2014.12.30	2014 CSV 추진 성과 보고

SK텔레콤은 2003년부터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CSV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CSV, 사회복지, ICT 기반 사회가치 창출 이슈와 관련한 자문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항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서비스 기획부터 유통까지 참여하는 '고객자문단' 발족

SK텔레콤은 2014년 5월 고객·상품·서비스의 기획·개발·유통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고객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의 관점까지 고려하고 회사가 개발 중이거나 발굴하려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고객 참여 프로그램인 '고객 자문단'을 업계 최초로 발족하였습니다. 자문단은 성별·직업별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고객들로 구성되었으며, SK텔레콤의 서비스 경쟁 선도에 대한 진정성과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특정 고객집단의 니즈 발굴 및 특화 상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 도출된 고객자문단의 아이디어와 의견은 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반영합니다.

국제 원칙 및 이니셔티브 지지와 준수

SK텔레콤은 2007년 5월 4대 그룹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고, 2011년 1월 국내 최초로 우수 기업 협의체인 리드(LEAD) 기업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 기업으로서 SK텔레콤은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개 부문의 10대 원칙을 이행하고 있으며,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유엔의 개발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한 존 러기(John Ruggie)의 프레임 워크(Frame Work)를 지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시스템 표준인 ISO 26000 준수, 통합 보고(IR, Integrated Reporting)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08년부터 7년 연속 아시아 통신기업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월드에 편입되는 한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등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위원회 이사진의 전문성 향상

SK텔레콤은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지속가능경영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11월, 기업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드(LEAD) 보드(Board)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국제비영리단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가 참여



SK텔레콤 3기 고객자문단 발대식

UNGC 협회 활동 현황

협회/이니셔티브	가입일	목적 / 비고
UNGC 본부	'07년 5월	글로벌 CSR 이니셔티브
UNGC 한국협회	'07년 9월	활동을 통해 당사 CSR 고도화 및 국내외 CSR
UNGC LEAD	'11년 1월	고도화 및 국내외 CSR Reputation 제고

해 개발한 이사회 특성화 CSR 교육과정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과 '이사회 역할'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된 교육은 기업시민위원회 이사진들에게 주요 글로벌 CSR 트렌드 및 기업의 CSR 추진 동력으로서 이사회 역할에 제시해 이사진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기업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의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당사 최고이사결정기구의 CSR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SK텔레콤은 2007년 UN 산하의 기업협의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가입 이래, 국내외 사회 문제 해결 및 글로벌 CSR 트렌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국내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 산하 선도기업협의체인 리드(LEAD) 기업으로 활동하면서, 리드(LEAD) 중점 프로젝트인 보드(Board) 프로그램(이사회 대상 CSR 교육)을 기업시민위원회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글로벌 CSR 베스트 프랙티스를 국내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로컬 협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창립 멤버로서 2007년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CSR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Y-CSR 컨퍼런스, 한·중·일 라운드 테이블 등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의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CSR 분야 선도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인권·노동·환경·윤리 이슈 관리 강화

SK텔레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리드(LEAD) 기업으로서 인권·노동·환경·윤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

으며, 특히 이러한 위험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비롯한 공급망 내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3년 4월 '유엔 인권 기본 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CEO 명의로 천명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본 정책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권고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의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을 통해 협력회사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거래 규모, 사업 리스크 강도 등의 평가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 대상을 설정하고,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및 협력회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최초 등록 평가 시에는 기본적인 재무구조 평가 이외에도 2차 업체로의 대금지급 수단, 협력회사의 인권·노동·환경 관련 정책 수준 등의 항목을 심사 항목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망 장비 및 단말 수급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이 주 사업 지역인 한국 이외의 지역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SK텔레콤은 주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추적과 실사(Due Diligence),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SK텔레콤의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의 의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운영

SK텔레콤은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견제하고, 명확한 대응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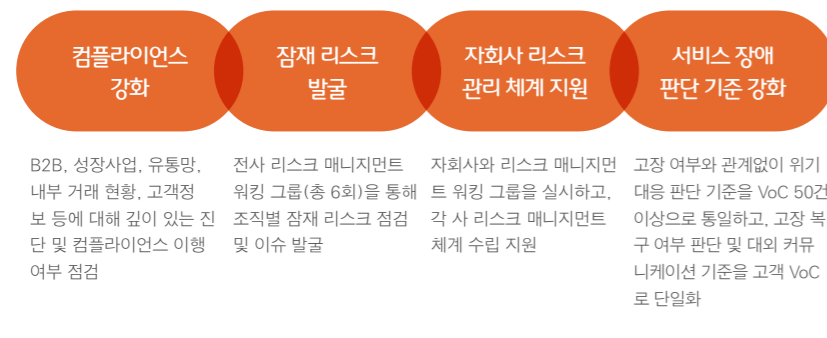
주요 리스크 이슈별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최근 유통 채널 또는 공급망 등 통상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및 시설의 집중화와 대형화 추세로 재해, 고객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SK텔레콤은 인지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컴플라이언스의 강화, 발생 가능한 잠재 리스크의 지속적 발굴, 유통망과 자회사 등 리스크 인식과 관리 범위의 확대, 서비스 장애 기준 등 리스크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자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 지원

SK텔레콤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자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실시하는 한편, 자회사를 포함한 리스크 보고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주요 리스크별 회사 간 상황 전파 기준을 명확히 해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자회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잠재 리스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자회사 참여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2014 주요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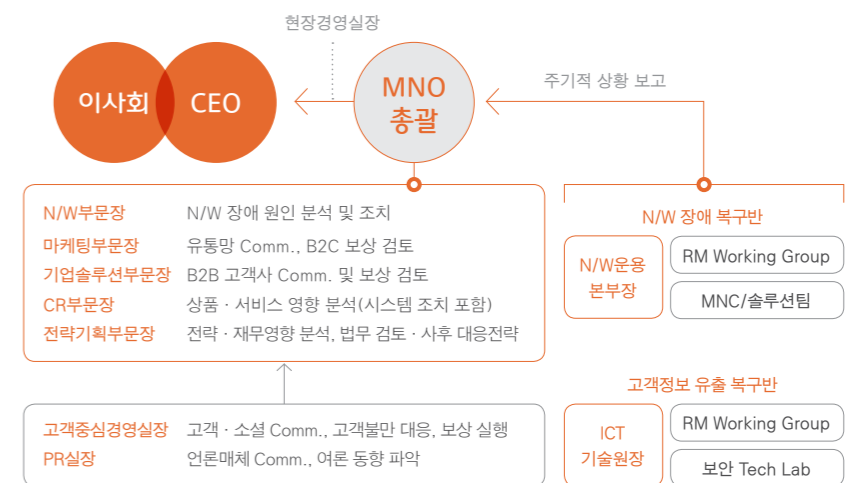


전사 위기대응상황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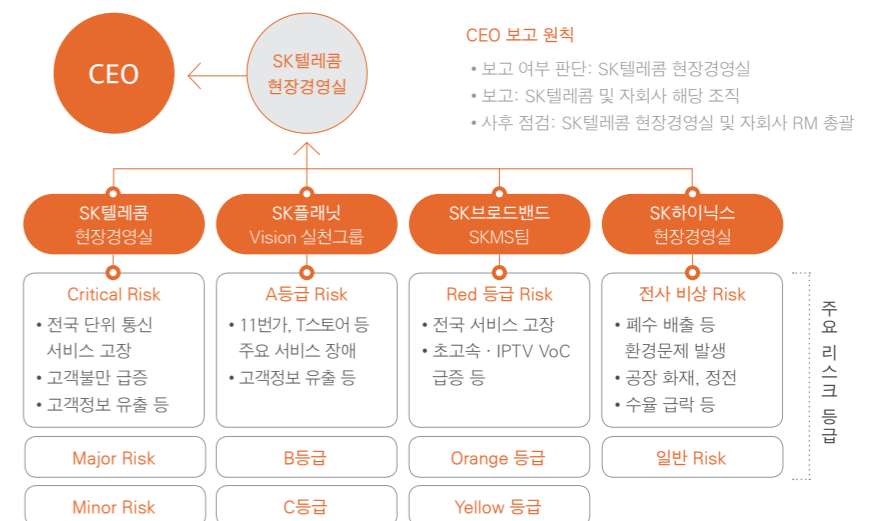
SK텔레콤은 2014년부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사 위기 대응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전사 위기대응상황실은 고객가치 및 회사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사내 여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동일 유형의 고객불만(VoC, Voice of Customer)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거나 누적 1,000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언론 및 소셜 보도가 급증하거나 비중 있게 확산되는

경우 등 시급한 대응을 요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소집합니다. 이러한 전사적인 위기 상황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장애 발생(자연재해 포함),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와 관련한 수사 또는 보도 등을 포함하며, 사건 발생 시 현장경영실이 해당 사안의 영향을 판단해 CEO에게 보고한 뒤 MNO 총괄 주관의 전사 위기대응상황실을 소집해 대응합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을 통한 사업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 전사 위기 발생 시 상황실 운영 체계



자회사 주요 리스크 및 관리 체계



SK텔레콤의 위험과 기회

SK텔레콤은 회사의 경영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도에 따라 리스크를 분류하여 리스크별 전략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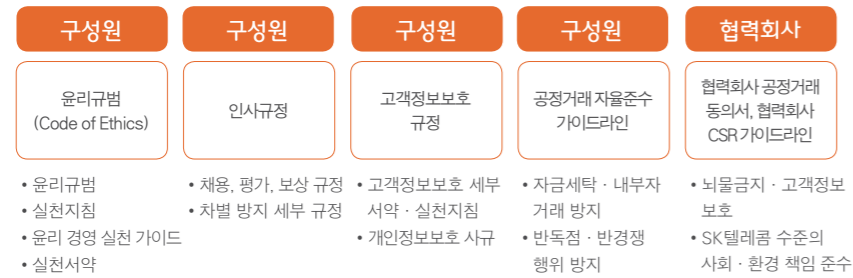
이러한 리스크별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merging Risks	Nature of Risks	Trends & Potential Impacts	What are we doing about it?
규제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사업자 승인을 받아 이동통신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규제를 따르고 주파수 할당, 영업 및 마케팅 등 정부 정책의 영향하에서 사업을 운영함 ·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후생 강화 정책 방향에 따라 요금 인하 이슈, 알뜰폰(MVNO) 활성화,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리스크가 잠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10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사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 과열을 억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축소되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확대되는 등 시장의 경쟁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부문에서 시장지배적 위치로 인해 비대칭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타 사업자 대비 추가 규제 발생 시 당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은 정부 정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에 따라 규제 변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의 간담회 참석 등 정부 참여 및 정책 제안 등 선제적 활동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단말기 유통법을 포함한 규제 취지에 따라 이용자 차별 근절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규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동통신 시장 포화 및 사업자 간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규제 등 시장과열 방지 정책과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장 규모의 한계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됨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높아 가입자 성장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으로 인한 소모적 마케팅 경쟁이 지속될 경우, 이는 SK텔레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향후 통신업계에서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등 신규 경쟁자가 출현하거나 현 경쟁사들의 과도한 경쟁은 SK텔레콤의 사업과 경영 성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시장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본원적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경쟁 전략을 강화하여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합니다. · 유통망 등 서비스 접점의 품질 관리와 멤버십 등 Retention 프로그램 강화, 결합 상품을 통한 차별적 고객 혜택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 시장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5년 3월 장기 미사용 선불폰 가입자 작권 해지를 단행하여 점유율이 50%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SK텔레콤은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본원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마케팅의 효율성 및 수익성에 집중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통해 점유율 회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이용 패턴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 저하 및 기술 진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SK텔레콤의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에 따라 주파수 및 네트워크 용량(Capacity)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경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업계의 특성은 지속적인 기술의 개선과 진보로 요약됩니다. SK텔레콤은 2011년 7월 LTE 상용 서비스 시작 이래 LTE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으나, 차세대 네트워크의 품질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향후 LTE 서비스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경우, LTE 서비스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기술 이행은 상당 수준의 자본적 지출 및 기타 비용 지출이 필요하며, SK텔레콤은 3band LTE-A 서비스를 포함한 LTE 서비스의 개발 · 강화를 위해 앞으로 도 미래 예측과 기술 적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로드맵에 따라 안정화된 CAPEX 투자 지출을 시행합니다. ·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 사업자와 함께 관련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미래 시장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및 투자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요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는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임 · 스팸, 개인정보 해킹, 바이러스 등은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적절한 고객 보호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SK텔레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므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저장과 함께 해킹 및 기타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의 유무선 가입자는 인터넷을 접속할 때 당사의 망을 이용합니다. 스팸 메일, 개인정보 해킹, 바이러스나 웜, 파괴적 소프트웨어 등이 보급될 경우 SK텔레콤 또는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저하, 콜센터의 통화량 증가, 고객 장비 또는 데이터의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사고는 서비스 비용 및 망 보안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2014년 전담 조직인 정보보호기획팀을 신설하고,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안심메시지, T실버 서비스 등 고객정보보호와 스팸 · 스미싱 방지를 위한 차별화된 고객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주요 자회사를 포함한 통합 보안 관제센터를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제 ·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 등 비사업 규제 리스크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은 네트워크 및 기지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전반에 막대한 전력을 사용함 · 기후변화 위험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아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등 규제가 변동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출 전망 대비 낮은 온실가스 할당량과 배출권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은 환경 부채 발생 등 SK텔레콤의 재무적 부담과 함께 미래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상 에너지 사용량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한편, 저전력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T맵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등 ICT를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체질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SK텔레콤은 행동강령 체계 구축, 윤리규범 제정 및 실천 등 SKMS에 입각한 윤리경영 체질화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SK텔레콤 행동강령 프레임워크



SKT Statement on Human Right(2013)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2004)

UNGC 10 Principles(2008)

Ruggi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2012)

윤리경영 내재화 및 확산

SK텔레콤은 기존의 윤리규범 체계를 윤리 규범과 실천지침으로 재정립해 개개인의 상이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동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라인(FAQ)은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제시해 명확한 이해로 실천력을 높였습니다.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구성원 ·

협력회사 · 고객 · 주주 · 지역사회에 대한 SK텔레콤의 책임을 비롯해 구성원의 자세, 윤리규범(Code of Ethics) 적용 기준 등 회사의 윤리경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고객정보보호 서약, 공정거래 동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해 명시함으로써 SK텔레콤의 윤리경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윤리

윤리경영 교육 이수 구성원 수(2014년 기준)

4,298명

준수 사항에 대한 재인식과 자율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윤리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실천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윤리 경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4년 총 4,298명의 구성원이 윤

리경영 교육(온라인 포함)을 이수했으며, 추가적으로 교육 대상 범위를 협력회사까지 넓혀 총 71명의 협력회사 임직원이 윤리경영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내 공지, 협력회사 인터뷰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확산과 체질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체계 재정립



부패방지 교육

차수	2012	2013	2014
부패방지 · 윤리경영 교육 임직원	3,688명	4,000명(VLS)	4,052명(VLS)
협력회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	1,117명(집합교육)	175명(집합교육)
유통망 대상	-	152명(기업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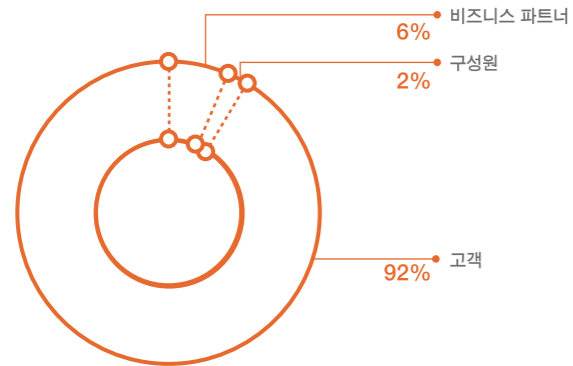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 시스템(VLS, Virtual Learning System)

윤리상담 · 제보센터

SK텔레콤은 조직 구성원을 포함한 고객, 협력회사 등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SK텔레콤 및 자회사의 윤리경영과 관련한 상시 상담용 온 · 오프라인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담 · 제보자의 신분 및 상담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윤리규범 제정과 함께 설

치한 윤리상담 · 제보센터는 구성원의 부정 · 비리 등에 관한 제보 창구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상담 센터로 역할하며, 웹사이트 · 전화 · 대면 상담 · 서신 등의 채널을 통해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My Counselor'와 'Letter to HR'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성희롱 전담 여성 상담 인력을 두어 인터넷으로도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담센터 운영 현황



채널별 윤리상담 운영 현황

단위 : 건

	2012	2013	2014
감사위원장 직보 채널	78	146	105
윤리상담센터 접수	493	713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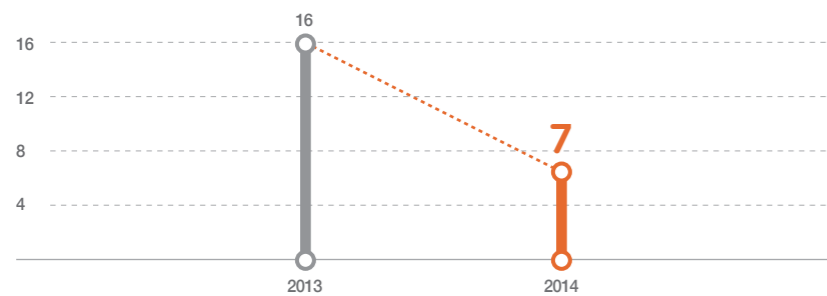
*윤리상담센터 접수 현황은 고객불만 VoC 포함된 수치임

2014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구분	건수	조치 사항
항응·접대수수	-	
허위보고·예산낭비	-	
회사비용 부당편취	-	
품위손상	1	각 위반 건에 대하여 견책, 감봉, 정직,
금전대차	-	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성희롱	3	
근무규정위반	2	
관리책임	1	
공정거래 규정 위반	-	
계	7	

윤리규정 위반 건수

단위 : 건



공정 경쟁 및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

SK텔레콤은 공정한 경쟁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동반성장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선도를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ICT 산업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협력회사 선정, 거래 후 평가 등 협력회사와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 전 영역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선정 시 자체 공급업체 관리 규정에 따라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구매담당 임원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구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협력회사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또한 '공정·투명거래 등 CSR 실천 동의서'를 통해 거래 대상 및 공급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 및 준수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의 협력회사 등록을 불허하거나 기존 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들은 국가 및 지역 제한 없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에는 관련 구성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를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 사항을 준수하고 4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의미의 4수 4불(4守4不)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대 실천 사항으로는 계약 체결, 협

력업체 선정 및 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서면 발급 보존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4대 불공정 행위로는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을 꼽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2013년 1월 '컴플라이언스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사 임원·팀장·매니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온라인 필수 교육(임직원 100% 이수)을 시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신입·경력 입사자 대상 교육, 자회사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SK텔레콤이 속해 있는 SK그룹은 2008년 이후 'SK 컴플라이언스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각 관계사에 배포하는 등 공정거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4년 어떠한 반독점 조사에도 개입된 바 없으며, 공정거래 관련 사항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ICT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공공정책 협력

SK텔레콤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반부패·공정거래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고용 창출, 양성평등, 창조경제 등 공공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4. Financial & Non-Financial Statement

재무 성과표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비재무 성과표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3자 검증의견서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재무 성과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자산			
유동자산	5,083,148	5,123,415	5,294,4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834,429	1,398,639	920,125
단기금융상품	313,068	311,474	514,417
단기투자자산	280,161	106,068	60,127
매출채권	2,392,150	2,257,316	1,954,920
단기대여금	74,512	79,395	84,908
미수금	690,527	643,603	582,098
미수수익	10,134	11,941	8,714
선급금	70,772	20,966	35,628
선급비용	134,404	108,909	102,572
유동파생금융자산	-	10	9,656
재고자산	267,667	177,120	242,146
기타의 유동자산	4,814	4,307	3,554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10,510	3,667	775,556
비유동자산	22,858,085	21,453,100	20,301,138
장기금융상품	631	8,142	144
장기투자자산	956,280	968,527	953,712
관계기업투자	6,298,088	5,325,297	4,632,477
유형자산	10,567,701	10,196,607	9,712,719
투자부동산	14,997	15,811	27,479
영업권	1,917,595	1,733,261	1,744,483
무형자산	2,483,994	2,750,782	2,689,658
장기대여금	55,728	57,442	69,299
장기미수금	3,596	-	-
장기선급비용	51,961	32,008	31,341
보증금	285,144	249,600	236,242
파생금융자산	70,035	41,712	52,992
이연법인세자산	25,083	26,322	124,098
기타의 비유동자산	127,252	47,589	26,494
자산총계	27,941,233	26,576,515	25,595,559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부채			
유동부채	5,420,310	6,069,220	6,174,895
매입채무	275,495	214,716	253,884
미지급금	1,381,850	1,864,024	1,811,038
선수금	129,255	102,931	106,239
예수금	1,053,063	728,936	717,170
미지급비용	952,418	988,193	890,863
미지급법인세	99,236	112,316	60,253
선수수익	327,003	441,731	258,691
유동파생금융부채	-	21,171	-
유동성충당부채	51,075	66,775	287,307
단기차입금	366,600	260,000	600,245
유동성사채 및 장기차입금	590,714	1,042,276	714,997
유동성금융리스부채	3,804	19,351	19,904
유동성장기미지급금	189,389	206,800	157,966
기타의 유동부채	-	-	2,033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채	408	-	294,305
비유동부채	7,272,653	6,340,738	6,565,882
사채	5,649,158	4,905,579	4,979,220
장기차입금	149,720	104,808	369,237
장기미지급금	684,567	838,585	715,508
장기선수수익	19,659	50,894	160,821
금융리스부채	26	3,867	22,036
확정급여부채	91,587	74,201	86,521
파생금융부채	130,889	103,168	63,599
비유동충당부채	36,013	28,106	106,561
이연법인세부채	444,211	168,825	-
기타의 비유동부채	66,823	62,705	62,379
부채총계	12,692,963	12,409,958	12,740,777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4,506,739	13,452,372	11,854,777
자본금	44,639	44,639	44,639
기타불입자본	277,998	317,508	(288,883)
이익잉여금	14,188,591	13,102,495	12,124,657
기타 자본구성요소	(4,489)	(12,270)	(25,636)
비지배지분	741,531	714,185	1,000,005
자본총계	15,248,270	14,166,557	12,854,782
자본과부채총계	27,941,233	26,576,515	25,595,559

연결손익계산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수익	17,163,798	16,602,054	16,141,409
매출액	17,163,798	16,602,054	16,141,409
영업비용	(15,338,693)	(14,590,945)	(14,411,360)
종업원급여	1,659,777	1,561,358	1,267,928
지급수수료	5,692,680	5,498,695	5,949,542
감가상각비	2,714,730	2,661,623	2,421,128
망접속정산비용	997,319	1,043,733	1,057,145
전용회선료 및 전파사용료	399,014	448,833	468,785
광고선전비	415,857	394,066	384,353
임차료	460,309	443,639	422,388
상품 및 기타구입비용	1,680,110	1,300,375	1,292,304
기타영업비용	1,318,897	1,238,623	1,147,787
영업이익	1,825,105	2,011,109	1,730,049
금융수익	126,337	113,392	444,558
금융비용	386,673	571,203	638,285
기타영업외수익	56,279	74,467	195,910
기타영업외비용	273,558	507,173	188,30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관련이익	906,338	706,509	(24,560)
법인세차감 전 계속영업순이익	2,253,828	1,827,101	1,519,368
계속영업법인세비용	454,508	400,797	288,207
계속영업당기연결순이익	1,799,320	1,426,304	1,231,161
중단영업손익	-	183,245	(115,498)
연결당기순이익	1,799,320	1,609,549	1,115,663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801,178	1,638,964	1,151,705
비지배지분	(1,858)	(29,415)	(36,042)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원)	25,154	20,708	18,015
희석주당순이익(원)	25,154	23,211	16,525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연결당기순이익	1,799,320	1,609,549	1,115,663
연결기타포괄손익	(28,486)	18,497	(319,54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32,942)	5,946	(15,048)
법인세비용차감 후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32,942)	5,946	(15,04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4,456	12,551	(304,49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7,267	2,009	(149,08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8,187	3,034	(82,513)
파생금융상품평가손익	(45,942)	11,222	(23,36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14,944	(3,714)	(49,538)
연결총포괄손익	1,770,834	1,628,046	796,121
연결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777,519	1,655,570	851,565
비지배지분	(6,685)	(27,524)	(55,444)

연결자본변동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자본					비지배자본	자본 합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2012.01.01(기초자본)	44,639	(285,347)	11,642,525	260,064	11,661,881	1,070,828	12,732,709
연결총포괄이익	-	-	1,151,705	-	1,151,705	(36,042)	1,115,663
연결기타포괄손익	-	-	(14,440)	(285,700)	(300,140)	(19,402)	(319,542)
배당금지급	-	-	(655,133)	-	(655,133)	(2,133)	(657,26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	-	-	-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연결범위변동	-	-	-	-	-	-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	-	-	-	-	-	-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등	-	(3,536)	-	-	(3,536)	(13,246)	(16,782)
2012.12.31(기말자본)	44,639	(288,883)	12,124,657	(25,636)	11,854,777	1,000,005	12,854,782
2013.01.01(기초자본)	44,639	(288,883)	12,124,657	(25,636)	11,854,777	1,000,005	12,854,782
연결총포괄이익	-	-	1,638,964	-	1,638,964	(29,415)	1,609,549
연결기타포괄손익	-	-	3,240	13,366	16,606	1,891	18,497
배당금지급	-	-	(655,946)	-	(655,946)	(2,242)	(658,188)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98,518	-	-	398,518	-	398,518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	(8,420)	-	(8,420)	-	(8,420)
자기주식의 처분	-	271,536	-	-	271,536	-	271,536
연결범위변동	-	-	-	-	-	-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	(61,854)	-	-	(61,854)	-	(61,854)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등	-	(1,809)	-	-	(1,809)	(256,054)	(257,863)
2013.12.31(기말자본)	44,639	317,508	13,102,495	(12,270)	13,452,372	714,185	14,166,557

단위: 백만 원

	자본					비지배자본	자본 합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2014.01.01(기초자본)	44,639	317,508	13,102,495	(12,270)	13,452,372	714,185	14,166,557
연결총포괄이익	-	-	1,801,178	-	1,801,178	(1,858)	1,799,320
연결기타포괄손익	-	-	(31,440)	7,781	(23,659)	(4,827)	(28,486)
배당금지급	-	-	(666,802)	-	(666,802)	(170)	(666,97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	-	(16,840)	-	(16,840)	-	(16,840)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연결범위변동	-	-	-	-	-	23,667	23,667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	(28,641)	-	-	(28,641)	-	(28,641)
종속회사의 자본변동 등	-	(10,869)	-	-	(10,869)	10,534	(335)
2014.12.31(기말자본)	44,639	277,998	14,188,591	(4,489)	14,506,739	741,531	15,248,270

연결현금흐름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77,385	3,558,570	3,999,66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070,982	3,915,055	4,609,832
연결당기순이익	1,799,320	1,609,549	1,115,663
수익·비용의 조정	2,978,995	3,275,376	3,289,86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707,333)	(969,870)	204,308
이자의 수취	56,706	64,078	88,711
배당금 수취	13,048	10,197	27,732
이자의 지급	(280,847)	(300,104)	(363,685)
법인세 납부	(182,504)	(130,656)	(362,92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83,165)	(2,506,477)	(5,309,58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41,387	1,251,786	1,831,226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5,627	186,425	464,531
단기투자자산의 순감소	-	-	65,000
단기대여금의 회수	207,439	290,856	282,658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535	16	23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65,287	287,777	511,41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7,333	43,249	1,518
유형자산의 처분	25,143	12,579	271,122
투자부동산의 처분	-	-	43,093
무형자산의 처분	10,917	2,256	21,048
매각예정자산의 감소	3,667	190,393	-
장기대여금의 회수	4,454	13,104	11,525
예치보증금의 감소	8,891	8,509	41,785
기타의비유동자산의 처분	94	683	1,853
연결대상종속기업지분의 처분	-	215,939	89,002
연결범위포함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	-	26,65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24,552)	(3,758,263)	(7,140,810)
단기투자자산의 순증가	174,209	45,032	-
단기대여금의 대여	202,501	279,926	245,465
장기대여금의 대여	4,341	4,050	3,464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522	7,510	16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41,305	22,141	92,92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60,020	97,366	3,098,833
유형자산의 취득	3,008,026	2,879,126	3,394,349
투자부동산의 취득	-	-	129
무형자산의 취득	130,667	243,163	146,249
매각예정자산의 증가	552	-	51,831
예치보증금의 증가	6,903	83,314	43,534
기타의비유동자산의 취득	18,233	1,830	8,619
영업양수로 인한 현금유출	124,486	-	12,003
연결대상종속회사지분의 취득	250,787	94,805	43,38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9,399)	(573,157)	585,26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421,088	1,852,237	4,245,254
단기차입금의 차입	102,868	-	-
사채의 발행	1,255,468	1,328,694	2,098,351
장기차입금의 차입	62,552	105,055	2,059,004
신증자본증권의 발행	-	398,518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200	19,970	87,89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80,487)	(2,425,394)	(3,659,987)
단기차입금의 상환	-	340,245	61,401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207,791	161,575	102,672
사채의 상환	1,039,938	771,976	1,145,691
장기차입금의 상환	23,284	467,217	1,660,509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6,444	-	5,415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19,388	20,342	20,794
배당금의 지급	666,802	655,946	655,133
신증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6,840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의 감소	-	8,093	8,372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565,179)	478,936	(724,653)
기초현금 및 현금성자산	1,398,639	920,125	1,650,794
외화표시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969	(422)	(6,016)
기말현금 및 현금성자산	834,429	1,398,639	920,125

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재무 MD&A

본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MD&A,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금액은 연결 기준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한국통화(KRW)로 표시하였습니다. 본 경영실적 분석 내에서 '당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연결대상 자회사를 의미하며, 'SK텔레콤'은 SK텔레콤주식회사를 지칭하나 연결대상 자회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고 수정된, 당사와 당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현재의 기대·가정·추정 및 예측에 관한 '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측진술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측진술이 근거한 가정은 합리적이라고 기대되지만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가정에 근거한 예측진술 또한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추가 정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F 양식의 최근 연차보고서와 기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위험과 불확실성 그리고 기타 다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예측진술에 포함된 계획과 목표 또는 예측 재무 실적을 당사가 반드시 달성한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예측진술을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습니다.

1. 2014년 개괄

LTE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당사는 기존의 무선통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T전화,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요금 혜택 등의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band LTE-A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LTE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IPTV·헬스케어·기업솔루션 등 3대 성장영역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유무선 사업

2014년 당사는 무선통신사업에서 리더십을 유지하였습니다. 2014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2,861만 명(당사의 망 임대해서 사용하는 알뜰폰(MVNO) 가입자 포함)을 넘어섰으며, 이 중 LTE 가입자는 1,674만 명, 스마트폰 이용 가입자는 1,949만 명에 달합니다. 가입자 수 기준 당사의 한국 무선통신시장 점유율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50.02%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 통신산업은 스마트폰 사용자 수의 지속적 증가 및 LTE-A 서비스 고도화에 힘입어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꾸준히 높은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당사는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높은 품질의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단말기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3개 대역의 주파수를 결합해 최대 300Mbps의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3band LTE-A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유선 사업 분야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시너지를 강화하여 유무선 결합, 브로드밴드 인터넷, VoIP와 IPTV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결합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6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SK브로드밴드를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유무선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성장 사업

SK텔레콤의 주요 신규 사업에는 플랫폼 사업, B2B 솔루션 사업과 헬스케어 사업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타 사업이 해당됩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스토어(모바일 오픈마켓), T맵 내비게이션(GPS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11번가(유무선 쇼핑 서비스 연계형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핵심 플랫폼 사업은 2014년 강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를 기타 서비스 제공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공유하며 플랫폼 사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플랫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육성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B2B 솔루션 사업 또한 2014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4년 4월, 주거, 소기업용 전자 부품 및 기타 알람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자인 네오에스네트웍스의 지분을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서비스, 홈시큐리티 및 모니터링 서비스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SK텔레콤은 헬스케어 사업 중국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반이 될 헬스케어 R&D센터 및 SK심천메디컬센터를 중국 심천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6개 병원에 대한 병원 정보 시스템 수출 계약 및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 헬스케어 사업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전략 기회를 선별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2014년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아이리버의 지분을 인수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물리전자기기,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과의 연결성 등을 의미하는 사물인터넷(IoT)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무선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기기들의 고급 기능을 개발·상용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물인터넷(IoT) 사업이 변화하는 ICT 산업 환경의 주된 특징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이리버 인수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업 영역에 한 걸음 다가서며 스마트빔, 스마트스피커,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SK텔레콤의 통신·의료 기술 전문성을 향상시킬 음성 및 화상기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요약

당사의 무선사업 매출은 월 이용료 및 발신 통화료로 구성되는 음성통화 서비스 요금과 무선데이터 서비스 이용료로 구성되는 데이터 서비스 요금,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선 및 무선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고객 및 가입자의 망 사용을 위해 당사에 지불하는 망 접속료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당사의 총수익은 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부과 요금,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사용량, 그리고 타 통신 사업자와의 상호 통신망 접속 정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서비스 포함) 및 유선전화 서비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 피에스앤마켓팅(PS&Marketing)의 단말기 판매 등 연결대상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다음에 제시한 요약 연결 재무정보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추출한 정보입니다.

요약 재무정보(연결 기준)

단위: 십억 원

	2014	2013	증감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17,163.8	16,602.1	3.4%
EBITDA ⁽¹⁾	4,716.7	4,830.9	-2.4%
영업비용	15,338.7	14,590.9	5.1%
계속사업 영업이익	1,825.1	2,011.1	-9.2%
당기순이익	1,799.3	1,609.5	11.8%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27,941.2	26,576.5	5.1%
현금 및 현금성자산 ⁽²⁾	1,427.7	1,816.2	-21.4%
부채총계	12,693.0	12,410.0	2.3%
이자지급성 금융부채 ⁽³⁾	6,756.2	6,312.7	7.0%
자본총계	15,248.3	14,166.6	7.6%
재무비율(%)			
EBITDA 마진	27.5	29.1	-1.6%p
영업마진	10.6	12.1	-1.5%p
순마진	10.5	9.7	0.8%p
부채비율 ⁽⁴⁾	44.3	44.6	-0.3%p

(1) EBITDA = 계속사업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R&D 관련 감가상각비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투자증권 + 단기금융상품

(3) 이자지급성 금융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사채(less present value discount and current installments) + 장기차입금(less present value discount and current installments)

(4) 부채비율 = 이자채권 / 자본총계

당사는 2014년 4월 피에스앤마켓팅(PS&Marketing)의 SK네트웍스 휴대폰 단말기 유통사업 양수를 통한 단말기 판매 증가, SK 플래닛 11번가 등의 급격한 성장,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 매출 증가 등 연결대상 자회사의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LTE 서비스 가입자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16조 6,021억 원 대비 3.4% 상승한 17조 1,638억 원의 영업수익을 달성했습니다.

2014년 영업비용은 2013년 14조 5,909억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이보다 5.1% 증가한 15조 3,3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품매출 원가와 지급수수료, 인건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2014년에는 영업비용 증가분이 영업수익 증가분을 초과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도 2조 111억 원 대비 9.2% 감소한 1조 8,251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 마진은 1.5%p 감소한 10.6%, EBITDA 마진은 1.6%p 감소한 27.5%를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3년 1조 6,095억 원에서 11.8% 증가한 1조 7,99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사의 자산총계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26조 5,765억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이보다 5.1% 증가한 27조 9,41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20.07%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 상승에 따라 관계사에 대한 투자자산이 증가하였고, LTE 네트워크 투자와 관련된 당사의 자산 및 장비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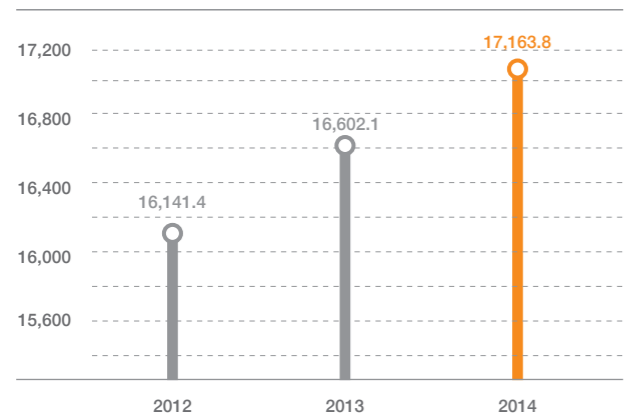
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부채총계는 2014년 네오에스네트웍스, 아이리버, 샵픽 인수 및 브로드밴드 인터넷, IPTV 경쟁력 제고 등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인해 사채 발행이 증가함으로써 2013년 12월 31일 기준 12조 4,100억 원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2.3% 증가한 12조 6,93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기준 14조 1,666억 원에서 2014년 12월 31일 기준 15조 2,483억 원으로 7.6%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44.6%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44.3%로 감소하였습니다.

3. 수익

2014년 영업수익은 2013년 16조 6,021억 원보다 5,617억 원(3.4%) 증가한 17조 1,63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4년 4월 피에스앤마켓팅(PS&Marketing)의 SK네트웍스 휴대폰 단말기 유통사업 양수를 통한 단말기 판매 증가, SK플래닛 11번가 등의 급격한 성장,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 매출 증가 등 연결대상 자회사의 수익 증가와 함께 LTE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영업수익(연결)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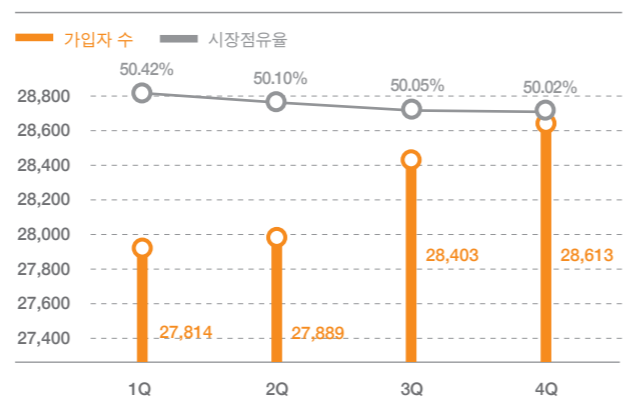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한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약 5,720만 명으로 111.5%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4년 한 해 내내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2014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약 2,861만 명(당사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가입자 포함)에 도달하였습니다.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당사의 한국 이동통신 시장점유율(MVNO 가입자 포함)은 2013년과 동일한 50.0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3년 1,346만 명에서 2014년에는 1,67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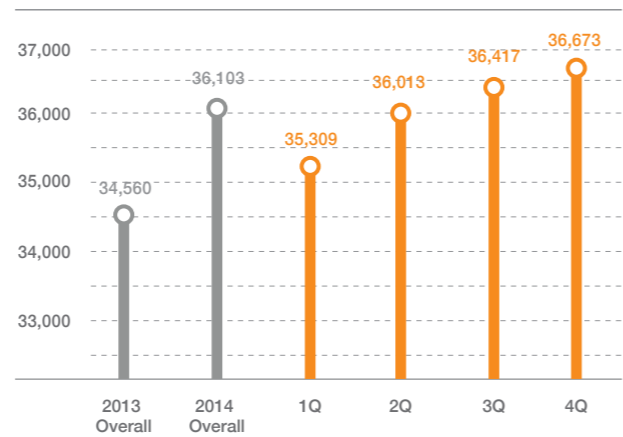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단위: 천 명, %



청구 ARPU

당사의 청구 ARPU 총액은 2013년 34,560원에서 2014년에는 4.5% 증가한 36,10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 기본요금인 높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LTE 가입자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서비스 사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청구 ARPU 총액 단위: 원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은 1)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수익, 2)기업 데이터 서비스 수익, 3)유선전화 서비스 수익, 4)IPTV 서비스 수익, 5)기타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IPTV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IPTV 서비스 수익의 증가로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은 2013년 2조 5,400억 원에서 4.5% 증가한 2조 6,5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를 보면,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 가입자 수는 약 480만 명,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약 450만 명(VoIP 서비스 가입자 포함), IPTV 가입자는 280만 명으로, 가입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25.1%, 15.4%,

26.6%를 기록하였습니다.

피에스앤마켓팅(PS&Marketing)의 매출은 주로 단말기 판매로 창출됩니다. 2014년 4월 SK네트웍스의 휴대폰 단말기 유통사업 양수 당시 190개의 대리점을 함께 인수함에 따라 2014년 매출은 전년도 1조 1,000억 원 대비 47.2% 증가한 1조 6,2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SK플래닛의 매출은 11번가, 오케이캐쉬백, T스토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4년에는 2013년 1조 3,800억 원 대비 9.7% 증가한 1조 5,1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4. 수익성

손익계산서(연결)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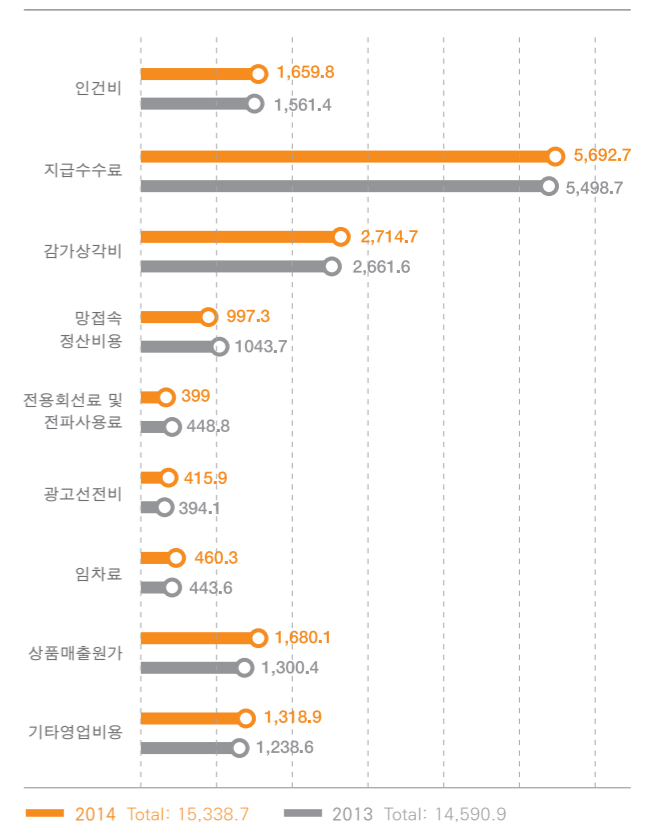
	2014	수익 비율(%)	2013	수익 비율(%)
계속사업				
영업수익	17,163.8	100.0%	16,602.1	100.0%
영업비용	15,338.7	89.4%	14,590.9	87.9%
인건비 ⁽¹⁾	1,659.8	9.7%	1,561.4	9.4%
지급수수료 ⁽²⁾	5,692.7	33.2%	5,498.7	33.1%
감가상각비 ⁽³⁾	2,714.7	15.8%	2,661.6	16.0%
망접속정산비용	997.3	5.8%	1,043.7	6.3%
전용회선료 및 전파사용료	399.0	2.3%	448.8	2.7%
광고선전비	415.9	2.4%	394.1	2.4%
지급임차료	460.3	2.7%	443.6	2.7%
상품매출원가	1,680.1	9.8%	1,300.4	7.8%
기타영업비용	1,318.9	7.7%	1,238.6	7.5%
계속사업 영업이익	1,825.1	10.6%	2,011.1	12.1%
금융수익	126.3	0.7%	113.4	0.7%
금융비용	(386.7)	(2.3%)	(571.2)	(3.4%)
자회사 및 관계사 투자관련손실	906.3	5.3%	706.5	4.3%
기타영업외수익	56.3	0.3%	74.5	0.7%
기타영업외비용	(273.6)	(1.6%)	(507.2)	(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53.8	13.1%	1,827.1	11.0%
계속사업 법인세 비용	454.5	2.6%	400.8	2.4%
계속사업 순이익	1,799.3	10.5%	1,426.3	8.6%
중단사업				
법인세차감후	-	-	183.2	1.1%
중단사업손익				
당기순이익	1,799.3	10.5%	1,609.5	9.7%
EBITDA ⁽⁴⁾	4,716.7	27.5%	4,830.9	29.1%

(1) 인건비 = 급여 + 확정급여부채충당금
(2) 마케팅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포함
(3) R&D 관련 감가상각 제외
(4)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R&D 관련 감가상각비

영업비용

2014년 당사의 영업비용은 15조 3,387억 원을 기록하여 2013년 14조 5,909억 원 대비 1.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상품매출원가, 지급수수료 그리고 인건비가 각각 29.2%, 3.5%, 6.3%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2014년 상품매출원가는 2013년 1조 3,004억 원 대비 29.2% 증가한 1조 6,80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4월 피에스앤마켓팅의 SK네트웍스 단말기 유통사업 양수가 주된 요인입니다.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2014년 5조 6,927억 원으로 2013년 5조 4,987억 원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증가한 주요인은 2014년 상반기 경쟁사인 KT 및 LG U+와의 LTE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피에스앤마켓팅의 SK네트웍스 단말기 유통사업 인수 및 SK텔레콤의 네오에스네트웍스 인수와 같은 해 8월 SK텔레콤의 아이리버 인수 등 여러 건의 인수를 통해 직원 수가 늘어남으로써 인건비는 2013년 1조 5,614억 원에서 6.3% 증가한 1조 6,5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비용 단위: 십억 원



영업이익 및 EBITDA

영업비용이 영업수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영업이익은 2013년 2조 111억 원 대비 9.2% 감소한 1조 8,25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마진 또한 2013년 12.1%에서 2014년 현재 10.6%로 감소하였습니다. EBITDA는 2013년 4조 8,309억 원에서 2.4% 감소한 4조 7,16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및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은 2013년 1,134억 원에서 2014년 1,263억 원으로 1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에는 없었던 파생상품 평가이익의 증가, 외화환산이익의 증가, 장기투자증권 처분이익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증가분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 2014년 출자 전환된 나노엔텍(NanoEnTek) 전환사채 평가에서의 이익이 2014년 평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일부 손실 상쇄되었습니다. 금융비용은 2013년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당사의 전환채권 평가손실에 의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된 손실 감소와 교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사채상환손실로 인하여 2013년 5,712억 원 대비 32.3% 감소하여 2014년 3,86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가 20.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9,165억 원의 평가이익으로 인하여 당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손익은 2013년 7,065억 원 대비 28.3% 증가한 9,06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 및 기타 수익 감소로 인하여 2013년 745억 원 대비 24.4% 감소한 56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은 자산, 설비 및 무형자산 처분손실 감소로 인해 2013년 5,072억 원에서 2014년 2,763억 원으로 46.1% 감소하였습니다.

법인세

계속사업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23.4% 증가함에 따라 2013년 4,008억 원 대비 13.4% 증가한 4,54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당사의 유효세율은 20.2%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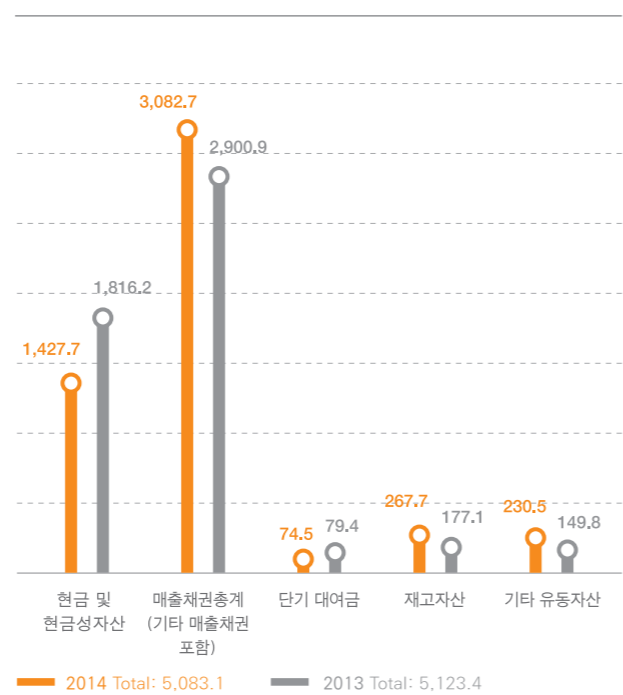
위에서 주로 언급된 요인의 결과로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1조 6,095억 원 대비 11.8% 증가한 1조 7,9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률은 2014년 10.5%로 전년도 9.7%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 재무구조

유동자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유동자산은 5조 831억 원으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 5조 1,234억 원에서 0.8%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인수 목적의 투자 지출로 인한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감소로 당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2013년 1조 8,162억 원에서 21.4% 감소한 1조 4,2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총계(기타 매출채권 포함)는 3조 827억 원으로 전년도 2조 9,009억 원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4월 피에스앤마켓팅의 SK네트웍스 휴대폰 단말기 유통사업을 양수한 점이 주된 요인입니다.

유동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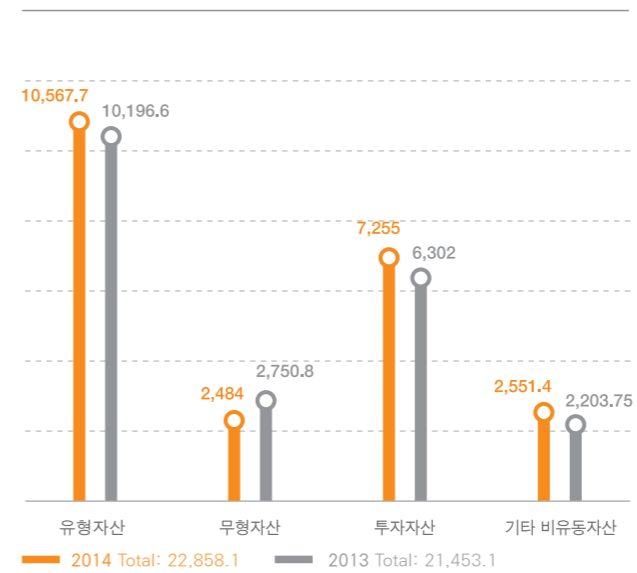


비유동자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비유동자산은 22조 8,581억 원으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 21조 4,531억 원보다 6.5% 증가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20.07%의 SK하이닉스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 상승에 따라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관계사 투자 및 합작 투자를 합한 당사의 투자자산은 2013년 6조 3,020억 원에서 15.1% 증가한 7조 2,5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형자산은 LTE망 투자 증가로 인해 2013년 10조 1,966억 원에서 3.6% 증가한 10조 5,6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유동자산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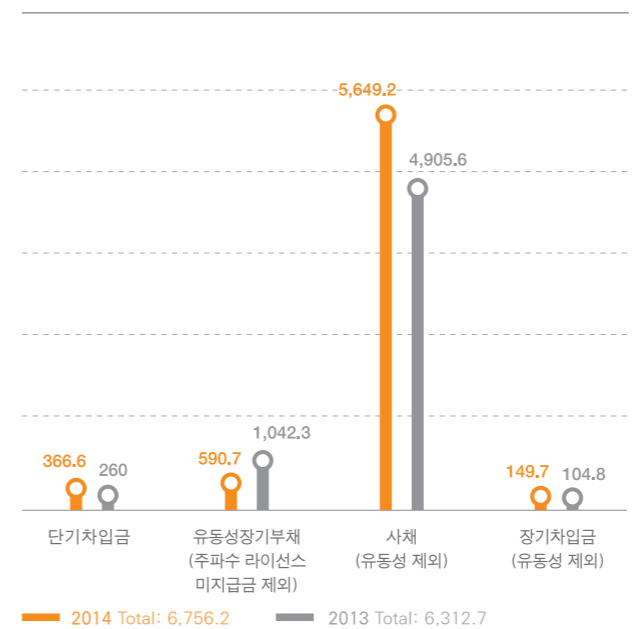


부채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부채총계는 12조 4,100억 원이었으나 2014년 네오에스네트웍스, 아이리버, 샵틱 인수 및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IPTV 경쟁력 제고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인해 사채 발행이 증가하여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전년 대비 2.3% 증가한 12조 6,93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성 금융부채는 2013년 6조 3,127억 원에서 7.0% 증가한 6조 7,56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44.3%로 2013년 같은 시기의 44.6%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지급성 금융부채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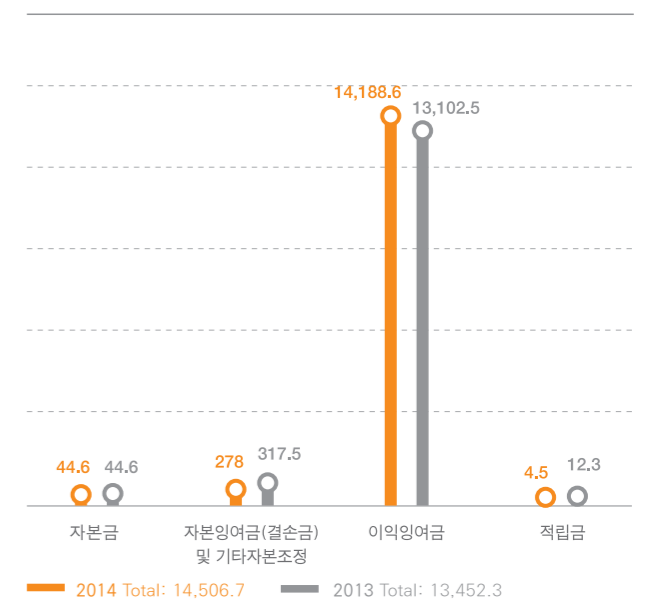


자본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15조 2,483억 원으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 14조 1,666억 원 대비 7.6%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13조 1,025억 원이던 이익잉여금이 2014년 12월 31일 현재 14조 1,886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자본

단위: 십억 원



6. 투자 지출(개별 기준)

SK텔레콤은 2014년 약 2조 1,000억 원을 투자 지출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2013년 2조 3,200억 원의 투자 지출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총 투자 지출 중 63.3%에 해당하는 약 1조 3,572억 원을 LTE 네트워크 품질 제고 및 LTE망 확대를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 및 당사 IT 시스템 유지 및 업그레이드 등 네트워크 이외 부문에 총 4,12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비재무 성과표

Section	MD&A	2012	2013	2014	
Human Capital	1.1	고용 현황(명)			
		총 직원	4,081	4,203	4,253
		특별채용 및 마이너리티	203	200	215
		해외사업장 근무자 수	155	103	99
	1.2	채용 및 이직(명)			
		총 신규 채용	425	418	396
		총 이직	242	238	265
	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자 수(명)	152(남122)	161(남124)	147(남110)
		육아휴직 사용자 수(명)	35(남2)	25(남2)	71(남9)
	-	성과 평가			
		성과 평가를 받은 직원 비율(%)	95	96	96
	1.4	임직원 교육			
		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시간)	100	83.7	91
	1.5	노동관행(%)			
	노동조합 가입 비율(%)	81.2	84.3	83.4	
	산업재해율(%)	0.02	0.02	0	
Social Capital	2.1	제품 및 서비스			
		해지율(%)	2.6	2.3	2.0
		고객정보 유출(건)	0	0	0
	2.2	협력회사 동반성장			
		동반성장협약 체결(개사)	263	205	291
		동반성장펀드 대출누적액(십억 원)	161	183	208
	2.3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개사)			
		총 신규 협력회사 등록 수	-	677	712
		인권·환경·윤리·사회 부문 평가 협력회사 수	-	346	235
	-	취약계층 요구감면 총액(백만 원)			
		장애인	145,057	138,443	128,422
		저소득층	62,503	62,891	58,299
		국가유공자	9,960	10,105	9,931
		기타	199	178	154
		총액	217,719	211,617	196,806
2.4	임직원 자원봉사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시간	24,524	16,190	19,689	

Section	MD&A	2012	2013	2014	
Natural Capital	3.1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총 배출량(tCO ₂ e)	673,742	707,963	742,884
		온실가스 집약도(tCO ₂ e/십억 원)	54.63	55.05	57.09
	3.2	에너지 소비			
		총 에너지 소비량(TJ)	13,847	14,589	15,271
		총 전력 사용량 절감 실적(MWh)	48,362	46,487	45,729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 생산(MWh)	2,729	2,729	2,729
		에너지 집약도(TJ/십억 원)	1.12	1.13	1.17
	3.3	용수			
		연간 용수 사용량(m ³)	649,351	683,387	695,725
		용수 사용 집약도(m ³ /십억 원)	52.65	53.14	53.46
	3.4	폐기물 및 재활용			
		총 배출량(톤)	1,726	1,646	1,763
		폐기물 배출 집약도(톤/십억 원)	0.140	0.126	0.135
	3.5	자원 사용(%)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	61.5	69.4	77.0
		단말기 회수율	7.4	8.0	4.5
3.6	생물다양성				
	생태보호구역 내 기지국 수(개)	56	91	650	
	생태보호구역 내 중계기 수(개)	553	184	5,105	
3.7	환경 원가				
	총 환경 원가(녹색 구매비용 제외, 백만 원)	542	324	268	
	녹색 구매비용(백만 원)	984	6,084	7,368	

비재무 경영실적 진단 및 분석

Basis of Preparation

보고 기준 및 원칙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Non-Financial Statement)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당사의 핵심적인 비재무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사회윤리와 국제환경 개선을 위해 유엔 기구들과 기업들이 협조하여 발의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블루프린트(Blueprint)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선도기업 협의체인 GC 리드(GC LEA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은 매년 10대 원칙에 따른 비즈니스 성과를 정리한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행보고서)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제출하고 있으며, 본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GC Advanced Level COP 요건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는 이 외에도 다음의 국제적 보고 기준과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01_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G4

GRI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의 성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 측면(Aspect)과 지표(Indicato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RI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각 측면의 연관성에 따라 보고 주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RI 요구 사항에 따른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는 p.138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02_Accountability의 AA1000

AA1000 시리즈는 조직과 연관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발견하고 우선순위화하며, 이에 대응하는 프레임워크와 원칙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의 정보는 AA1000AS(Assurance Standard)에 따른 제3자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 의견서는 p.130을 참조해 주십시오.

03_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IR> 프레임워크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배경(Context)하에서 조직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와 미래 전망이 조직의 단기·중기·장기적 가치 창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간결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통합보고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자본 모델(Capital Model)은 p.22를,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성 평가는 p.138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참고 기준

01_UNGC COP(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p.14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기관이 UNGC 10대 원칙 준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보고 가이드라인

02_ISO26000

국제표준기관이 2010년 11월 발표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03_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Telecommunication Standards(p.145)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가 2014년 4월 공개한 통신부문 주요 성과 지표

데이터 범위

사회·환경 성과 상태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회사 및 공급망을 포함하지 않은 'SK텔레콤'의 데이터 범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지배기업인 SK텔레콤의 개별 기준 매출 발생 범위와 일치하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용수 등 환경 데이터는 SK텔레콤의 26개 국내 사업장*(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매출은 95% 이상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함된 데이터 커버리지는 매출 대비 95% 이상 기준을 만족합니다.

*26개 사업장: T타워, 남산, 구로, 장안, 서울대, FMI, 용인, 보라매, 성수, 수유, 인천, 분당, 둔산(신·구), 부산, 청주, 원주, 태평, 본리, 신천, 부암, 데이터센터, 안락, 우산, 송정, 전주,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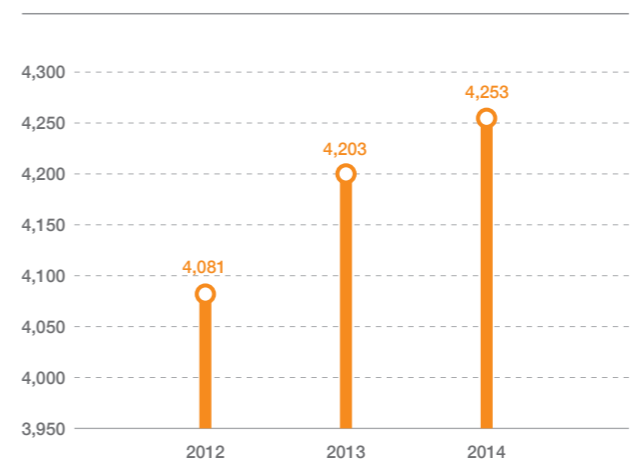
Section 1. 인적자본

1.1 총 고용 현황

총 직원 수는 SK텔레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SK텔레콤의 관계회사와 자회사에 소속된 인원 및 임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및 성장 사업 인력 확보에 따라 2014년 총 직원 수는 2013년 대비 약 1.1% 증가한 4,253명입니다. 총 직원 중 여성 비율은 13.9%로 전년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30~40대가 전체 인원의 87.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율은 97.5%로 전년 대비 약 0.4% 상승하였습니다. 마이내리티 부문에서는 장애인 6명과 국가보훈자 9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해외 인력의 경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무소 철수 및 복귀자 증가로 인해 해외근무 순인력이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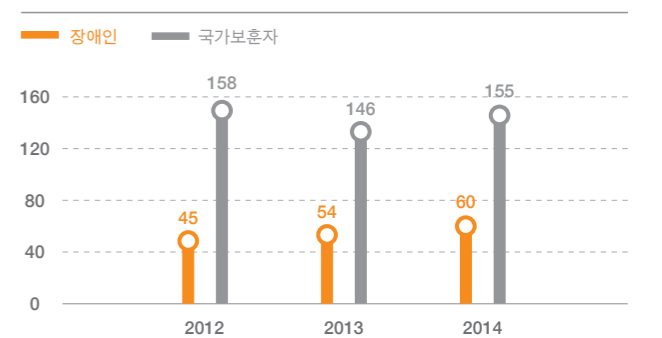
총 고용자 수



총 고용

		2012	2013	2014
고용 형태별	정규직	3,961	4,081	4,147
	비정규직	120	122	106
성별	남성	3,502	3,616	3,662
	여성	579	587	591
연령별	20대	363	328	290
	30대	1,359	1,340	1,277
	40대	2,220	2,372	2,450
	50대 이상	139	163	236
총 직원 수		4,081	4,203	4,253

특별고용 및 마이내리티



* 장애인 고용자는 연중 추가분류된 인원을 포함한 값으로 전년도 보고서 수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해외사업장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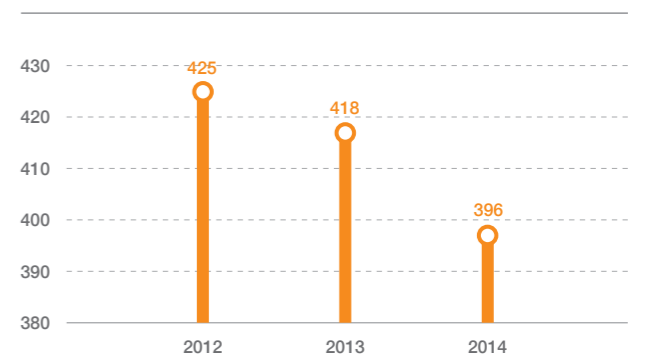
	2012	2013	2014
해외 파견자 수	72	31	26
현지인 고용자 수	83	72	73
총 해외사업장 근무자 수	155	103	99
총 관리자 수	28	28	19
현지인 관리자 수	6	5	6
현지인 관리자 비율(%)	21.5%	17.9%	31.6%

1.2 채용 및 이직

연령별·성별 신규 채용 인원수 및 이직자 인원수는 SK텔레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SK텔레콤의 관계회사와 자회사에 소속된 인원 및 임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4년 총 신규 채용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96명입니다. 여성 채용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3.9%입니다. 신입 사원 채용 시 연간 채용 인력의 25~30%는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5년까지 30%로 단계별 목표에 따라 채용 비율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으나, 40~50대의 채용 비율이 전년 대비 3.7%p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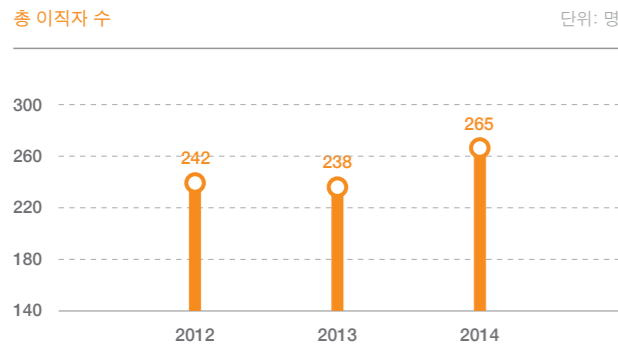
총 신규 채용자 수



신규 채용 단위: 명

		2012	2013	2014
성별	남성	326	317	302
	여성	99	101	94
연령별	20대	191	189	220
	30대	165	161	97
	40대	66	64	66
	50대 이상	3	4	13
총 신규 채용		425	418	396

2014년 총 이직률은 6.2%로 전년 대비 0.57%p 증가하였습니다. 30~50대의 이직률은 12.3%p 감소하였으나, 20대의 이직률이 전년 대비 0.9%p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가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별도 채용 인원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헬스-온(Health-On)' 프로그램 및 장기근속자 안식(Refresh) 휴가, 단독주거 사택 지원과 함께 동호회 지원 확대, 조부모 팔순 경조휴가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용 확대와 업무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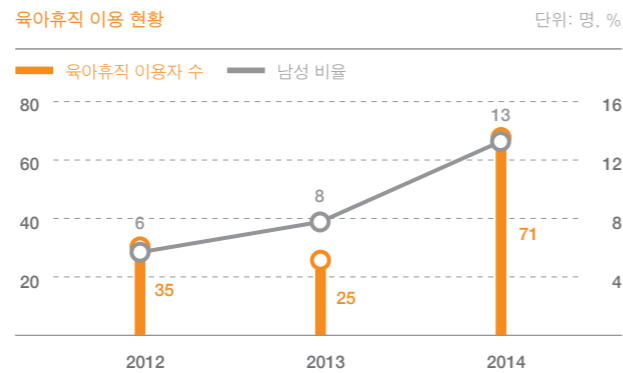


이직 단위: 명

		2012	2013	2014
성별	남성	166	141	181
	여성	76	97	84
연령별	20대	112	116	157
	30대	67	57	62
	40대	51	52	37
	50대 이상	12	13	9
비자발적 이직(해고)		3	6	2
총 이직자 수		242	238	265

1.3 출산 및 육아휴직

SK텔레콤은 모성보호와 여직원 인력유지를 위해 여성 휴게실, 출산 축하 경조금 등의 출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자기계발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Flexible Time)제도, 자녀 캠프 지원 등의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 휴직제, 가족건강검진 등 가족 간호 및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최대 9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 시 5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의 휴직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해 201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71명을 기록하였고, 남성의 사용 비율도 8% 수준에서 12.7%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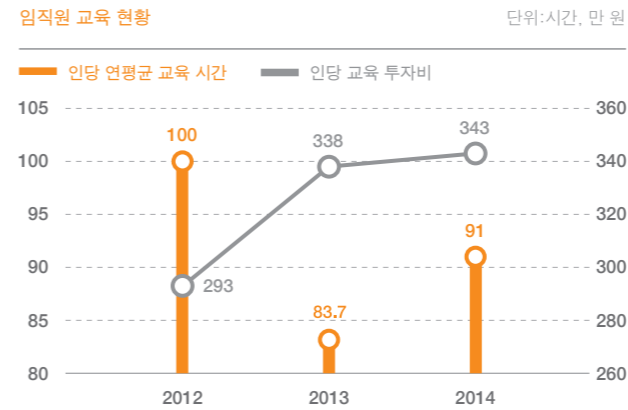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출산휴가 사용자 수(명)	152(남122)	161(남124)	147(남110)
출산휴가 후 복귀율(%)	98.7	99.4	100
육아휴직 사용자 수(명)	35(남2)	25(남2)	71(남9)
육아휴직 사용자 복귀 비율(%)	100	100	99
복귀 후 12개월 이하 퇴사율(%)	5.7	4	5.6

1.4 임직원 교육

2014년 총 인당 교육 투자비는 2013년 대비 2.3% 증가한 343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인당 교육 투자 대비 인당 매출 비율은 2014년 885배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으로 인해 교육비가 지속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은 향후 인적자본 개발의 질적·양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당 교육훈련 시간, 비용 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현업 적용도' 기준의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구성원의 자발적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자 인당 자기개발계획(IDP) 비용을 산정하여 재무적 지표로 목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성장조직 부문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장조직 구성원 직무역량 향상 만족도 설문에서는 5점 만점을 기록하였습니다.



1.5 노동관행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 구성원 수 중 현재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계산합니다. SK텔레콤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구성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4년 SK그룹 중 가장 먼저 통상임금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였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14년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80%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산업재해율의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건에 대하여 회사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화재 대피훈련(매월 2개층 실시)과 심폐소생술, 소화기 및 방독면 착용 실습교육 등의 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현황

	2012	2013	2014
노동조합 가입 대상 구성원 수(명)	2,612	2,513	2,497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명)	2,120	2,118	2,082
노동조합 가입 비율(%)	81.2	84.3*	83.4

* 전년도 보고서 데이터 오기입으로 인해 수정된 값입니다.

산업재해율

	2012	2013	2014
재해자 수(명)	1	1	0
산업재해율(%)	0.02	0.02	0

Section 2. 사회자본

2.1 제품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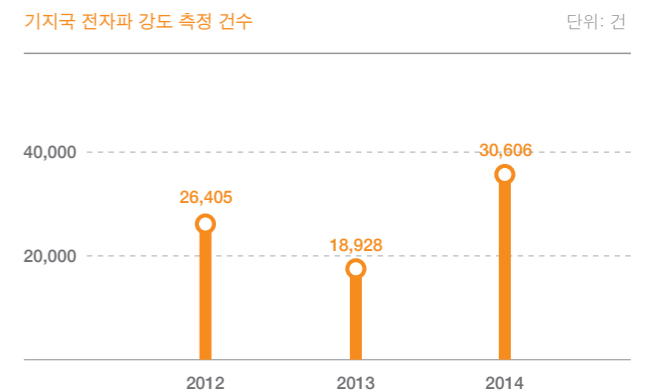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장기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지율을 감소시켜 2014년 월평균 해지율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2.0%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고객 피해 지표인 소액결제 피해 발생률과 로밍 요금 VoC 발생률은 각각 연간 소액결제 이용 건수 대비 소액결제 피해 접수 건수와 로밍 상담 접수 건수 대비 로밍 불만 VoC 건수를 의미하며, 2013년부터 해당 지표를 관리하여 현재까지 1% 미만의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은 SK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보관 시스템이 해킹으로 인해 침투·침해되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수를 의미합니다.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고객정보보호 수준을 안전하게 유지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SK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월평균 해지율 및 고객안심 지표 단위: %

	2012	2013	2014
월평균 해지율	2.60	2.30	2.00
소액결제 피해 발생률	-	0.12	0.10
로밍 요금 VoC 발생률	-	0.28	0.27

전자파의 경우 2007년 6월 전자파 측정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자파 강도 측정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2014년 전자파 강도 측정 대상을 전년 대비 62%가량 대폭 늘려 30,606건의 무선국 전자파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SK텔레콤 무선국의 측정 결과 값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 새롭게 도입된 전자파 등급제를 적용한 결과, 무선국의 99.9% 이상이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2014년 8월부터 한국전자파학회의 전자파 인체영향 5개년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15억 원의 재원 중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2 협력회사 동반성장

SK텔레콤은 2003년 업계 최초 동반성장 전담부서 BR(Business Relations)팀 신설을 시작으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협약이행 평가 및 동반성장위원회 협력회사 체감도 조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협력회사와의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86개사 증가한 291개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공정거래에 관한 4대 실천 사항(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영, 내부심의위원회, 서면보존·발급)에 대한 이행과 중소기업 대상 자금, 매출확대, 기술·교육·인력 지원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ICT 산업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협력회사와의 '행복 추구'라는 SK텔레콤의 동반성장 목표 아래 2014년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복지 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전자입찰 비율은 1.8%p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입찰의 협력회사 비효율 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4년 동반성장협약 주요 이행 실적

구분	이행 실적	달성도
납품단가 조정	협력회사의 원자재 및 기타 가격변동에 의한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대한 적극 인상 반영 · 협력회사 요청 건수 기준 100% 이상 반영	100%
협력회사 매출확대 지원	전년 대비 협력회사 거래 규모 44.7% 증가 · 전시지원, 판로개척 등 총 74건의 매출확대 지원	100%
자금(금융) 지원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 직접 출연, 네트워크론 제도 운영, 동반성장펀드 1,650억 원 규모 조성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 29억 원 이상 출연, 동반성장펀드 780억 원(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 예치 등	100%
결제수단 및 지급기일 개선	현금결제 비율 100%, 대금 지급기일 전년 대비 1.6일 단축 · 현금결제 100% 시행(지속), 중소기업 결제 우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급기일 10일 이내 유지	100%
기술지원 및 보호	기술지원 및 보호 적극 시행 ·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Open Collaboration, 인프라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자료 임차제도,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등	100%
교육/훈련 및 인력/채용 지원	총 교육 위탁 인원수 약 6,000명 이상 · SK동반성장아카데미 교육 지원, 차별화된 계층별 교육, 전문인력 파견 지원, 특성화고 인력 채용 지원 등	100%
기타 지원	· 구매 및 동반성장 전담 조직 KPI 할당, 위탁정보 통보 시스템 운영, 윤리경영 활동 지속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100%
기타 자발적 이행	협력회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 협력회사 복지 지원, 우수 협력회사 수의 계약, 경영컨설팅, 녹색구매 등	100%

2.3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2014년 실제 거래가 발생한 전체 1,510개 주요 협력회사 중 54%에 해당하는 815개사를 대상으로 기본서면 평가, 13.7%에 해당하는 207개사를 대상으로 상세 공급사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4년 동반성장 협약사인 205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연중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사 주요 공급망의 공급업체 선정 및 가격 결정 기준 등의 적정성을 자체 심의함으로써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환경/윤리/사회 부문 평가 현황 단위: 개사

	2013	2014	2015 목표
총 신규 협력회사 등록 수	346	712	
총 평가 협력회사 수*	346	235	
신규 협력회사 평가 비율	100%	100%	100%
목표달성 수준	Achieved	Achieved	

* 전체 대상으로 실시 (업체 주요 항목으로는 N/W장비, R&D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이 있음)

지속가능성 평가 현황 단위: 개사

	2013	2014	2015 목표
총 등록 협력회사 수	1,496	1,510	
서면조사 협력회사 수*	974	815	900
방문조사 협력회사 수**	162	205	237
목표달성 수준	Achieved	Achieved	

* 서면/방문조사(1 on 1 미팅)시, 실사(Audit) 병행함

** 방문조사 협력회사 수는 2014년 초 기준 동반성장 협약사 수이며, 동반성장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음

ESG 관련 협력회사 시정조치 현황 단위: 개사

	2013	2014	2015 목표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회사 수*	2	2	
일시 거래정지 (5)	1	1	
영구 거래정지 (6)	1	1	

* 구매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SK텔레콤은 공급사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구매를 원칙으로 건전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연말 공급사 종합평가를 통해 품질과 납기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협력회사에 대한 포상과 가점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분야의 경우, 연간 수요 물량을 협력회사에 예보함으로써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통합구축(SI; System Integration), 정보통신공사, 광고 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거래 기회 부여 확대를 통해 시장 전반의 공급망 다양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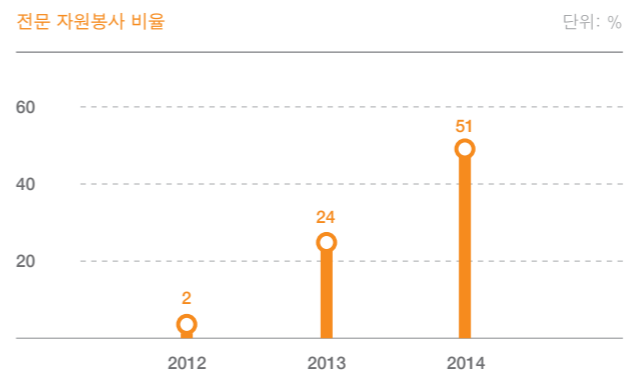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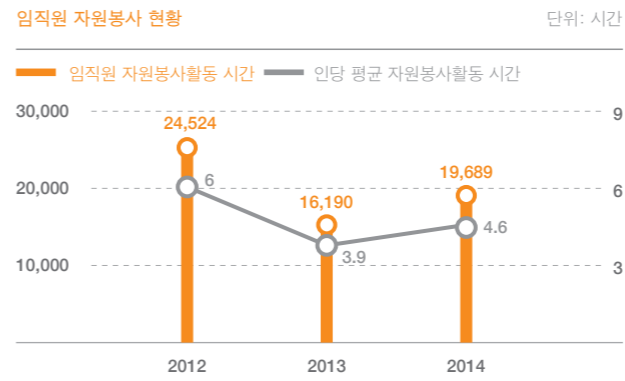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T Open Lab의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개발자 포럼 개최, T Developers, Big Data Hub 프로그램 등 협력회사 공동 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 공유를 통해 ICT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4 임직원 자원봉사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SK텔레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 시간을 의미합니다.

2014년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고, 인당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전년 대비 0.7시간 증가한 4.6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문 자원봉사 비율은 ICT 자원봉사 및 프로보노 봉사단의 봉사 시간을 전체 자원봉사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이는 2014년부터 새롭게 적용한 기준으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기존의 노력자원봉사 위주에서 임직원 자원봉사 만족도 제고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SK텔레콤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ICT 연관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 전문적 봉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전문 자원봉사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대비 49%p 증가한 5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은 모바일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공익 플랫폼을 구축하여 2004년부터 모바일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용자들의 손쉬운 기부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부 플랫폼 '기브유(GiveU)' 및 2013년 자원봉사 매칭 플랫폼 '위드유(WithU)'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2014년 말 기준 누적 모금액 8.89억원, 누적 등록 일감 수 40,755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 주요 기부처

SK텔레콤의 2014년 주요 기부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관	프로그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청소년 IT챌린지 개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대상 앱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운영
대한핸드볼협회	아시아게임·올림픽게임 훈련 및 지도자·선수 역량강화 지원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논문상 시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 불우이웃 돕기 등
사단법인 코피온	인도네시아 스마트러닝 지원 등 글로벌 CSR 사업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스마트폰 활용 교육
안주로컬푸드협동조합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고도화 및 활성화
서울YMCA서울기독교청년회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지원사업-청소년 신문고
부스려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 영어학습 지원사업-도전인글리쉬업
(재)플라톤아카데미	국내외 장학사업 및 인문·사회·자연 학술 회의 및 국제 포럼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전국 장애인 휠체어 농구 대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에코캠프 및 교육 지원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울 청소년봉사단 자원봉사활동 지원
세민얼굴기형돌기회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수술 지원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리드(LEAD) 연회비 납부 및 글로벌 CSR 컨퍼런스 지원
재단법인행복ICT	저소득 소농고령농가의 판로 개척을 통한 자립 지원사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어르신 휴대폰 활용 교육 및 휴대폰 활용 경쟁 대회
사단법인최경주복지회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등 지원
한국고등교육재단	교육 및 장학 지원
행복나눔재단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한 행복도시락 지원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가 양성
세스넷	프로보노 봉사단 및 관리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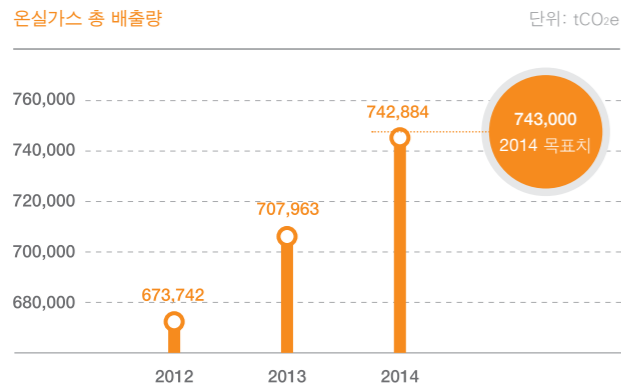
Section 3. 환경자본

3.1 온실가스 배출량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기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 차원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2015년 6월 예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SK텔레콤의 26개 주요 사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범위에는 네트워크 시설(기지국 및 장비)에 의한 배출량이 모두 포함되며, 자회사 및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SK텔레콤 개별 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와 일치)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4년 SK텔레콤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74.3만 톤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목표관리제 할당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은 LTE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의 신·증설 및 무선국 장비 집중화가 주된 요인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44.8만 톤의 탄소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중계기, 기지국 통합 관리 등의 자체 감축 활동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협력 회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쇄 배출권 확보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목표 달성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SK텔레콤은 2015년 배출량을 전년 대비 5% 증가 수준인 78.2만 tCO_{2e}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의 경우,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 연구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등을 통해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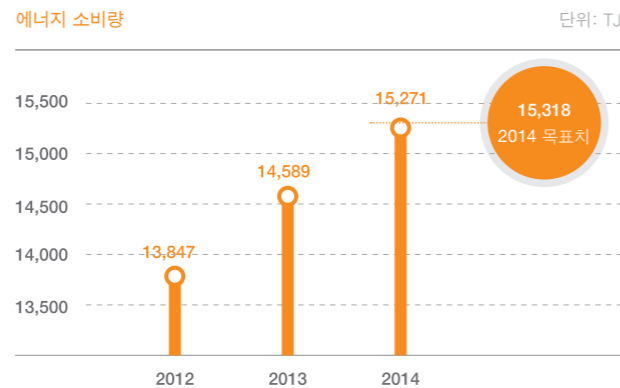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tCO_{2e}

	2012	2013	2014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7,803	7,375	7,134
고정연소	5,598	5,236	4,871
이동연소	2,205	2,139	2,263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665,939	700,588	735,750
전력	665,862	700,484	735,664
스팀	78	104	86
온실가스 총 배출량	673,742	707,963	742,884
온실가스 집약도 (tCO _{2e} /십억 원)	54.63	55.05	57.09

3.2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SK텔레콤의 26개 주요 사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범위에는 네트워크 시설(기지국 및 장비)에 의한 사용량이 모두 포함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에너지 사용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치는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고지서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집약도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SK텔레콤 개별 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와 일치)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에너지 절감 실적 중 자연공조 냉방기로 인한 절감 실적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실적은 과거 연도(2012~2013년) 실적 데이터를 산정한 값을 2014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014년 총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5,245TJ로 기존 자체 목표인 15,318TJ 이하 달성에는 성공하였습니다. 사옥에서 냉난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경우 사용량을 절감하였으나, 신·증설 장비 및 무선국 장비 집중화를 통한 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총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저효율 구형 장비 교체를 중심으로 사옥 관리,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력 생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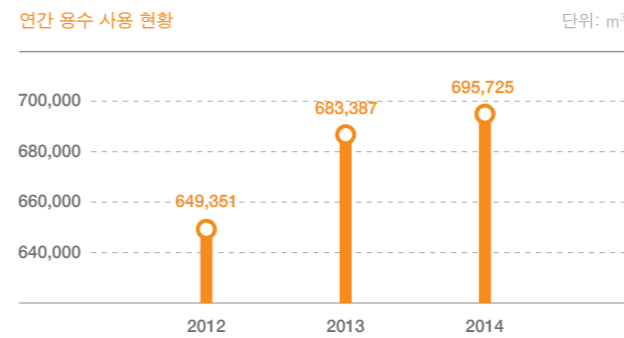
에너지 사용 현황

	2012	2013	2014
직접 에너지 소비량(TJ)	134	163	121
천연가스 사용량(Nm ³)	1,805,327	1,610,880	1,561,961
경유 사용량(Liter)	410,006	116,984	66,000
등유 사용량(Liter)	509,226	509,323	439,182
간접 에너지 소비량(TJ)	13,713	14,426	15,150
전력 사용량(MWh)	1,428,119	1,502,377	1,577,830
스팀 사용량(GJ)	2,608	3,318	3,192
총 에너지 소비량(TJ)	13,847	14,589	15,271
사옥 관리(MWh)	5,776	3,901	3,143
자연공조냉방기 도입(MWh)	39,857	39,857	39,857
총 전력 사용량 절감 실적(MWh)	48,362	46,487	45,729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 생산(MWh)	2,729	2,729	2,729
에너지 집약도(TJ/십억 원)	1.12	1.13	1.17

3.3 용수 사용량

용수 사용량은 SK텔레콤 26개 사옥의 수도 사용 고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용수 사용량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수 집약도는 총 용수 사용량을 SK텔레콤 개별 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와 일치)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4년 연간 용수 사용량은 2013년 대비 1.8% 증가한 695,725m³입니다. 용수 사용량의 주요 증가 원인은 교육 인원, 고객센터 구성원 등 식수 인원의 증가와 통신장비 증설에 따른 냉각탑의 냉각수량 증가입니다. 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성수 사옥은 냉각탑 드레인 양 조정, 원주 사옥은 냉각탑 보급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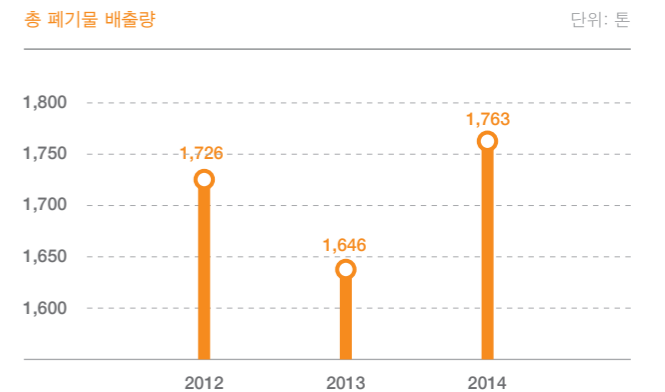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상수도 사용량	583,681	623,429	632,304
지하수 사용량	65,670	59,908	63,421
연간 용수 사용량	649,351	683,387	695,725
용수 사용 집약도(m ³ /십억 원)	52.65	53.14	53.46

3.4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은 SK텔레콤의 26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 및 공급망의 폐기물 배출량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배출 집약도는 총 폐기물 배출량을 SK텔레콤 별도 기준 매출(데이터 커버리지와 일치)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2013년부터 폐기물 배출량은 생활, 음식, 대형, 재활용, 지정 폐기물로 재분류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외주업체를 통해 월별로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량은 매월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폐기물 배출량은 생활 폐기물의 증가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1,763톤을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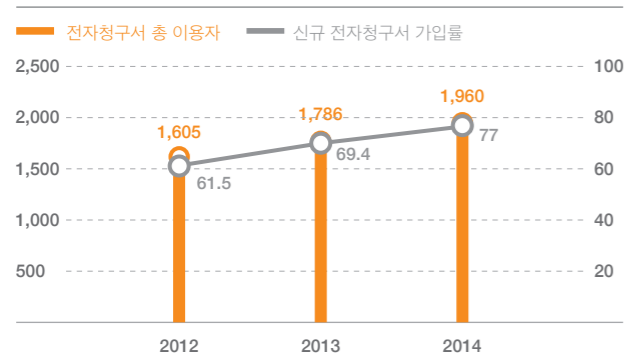
	2012	2013	2014
생활 폐기물	695	556	685
대형 폐기물	126	85	79
재활용 폐기물(B)	515	583	548
음식물 폐기물	355	373	416
지정 폐기물	36	29	33
총 배출량(A)	1,726	1,646	1,763
재활용률(B/A, %)	30	36	31
폐기물 배출 집약도(톤/십억 원)	0.140	0.126	0.135

3.5 자원 사용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는 SK텔레콤의 고객 중 스마트·이메일·문자(MMS) 청구서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입입니다.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은 신규 전자청구서를 신청한 고객의 비율입니다.

2007년 문자(MMS) 청구서 도입, 2010년 스마트청구서를 도입한 이후 전자청구서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전자청구서 총 이용자는 2013년 대비 9.7%가 증가한 1,960만 명입니다. 전자청구서 이용을 통해 청구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종이청구서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가입자 수는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자청구서 가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청구서 이용 현황 단위: 천 명, %



단말기 회수율은 연간 회수 단말기를 총 판매 단말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14년 단말기 회수율은 4.5%로 2013년 대비 3.5%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SK텔레콤의 폐휴대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에코폰'이 SK C&C로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SK텔레콤의 폐휴대폰 수거 실적이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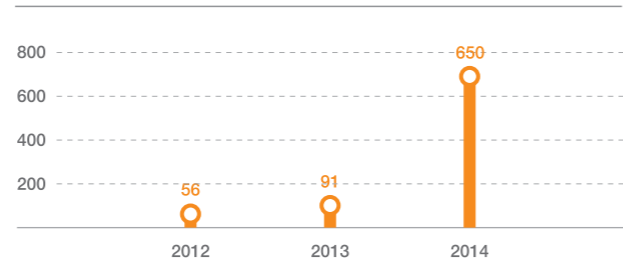
단말기 회수 현황

	2012	2013	2014
단말기 판매량(천 대)	11,928	9,838	8,133
단말기 회수량(천 대)	885	785	370
단말기 회수율(%)	7.4	8.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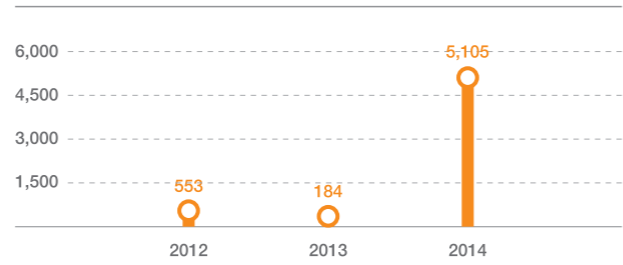
3.6 생물 다양성

생태보호구역 내 기지국 및 중계기의 숫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지국 정의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범위 내 해당 기지국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환경친화 무선국의 경우, 2014년부터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생태보호구역 내 기지국 현황 단위: 개



생태보호구역 내 중계기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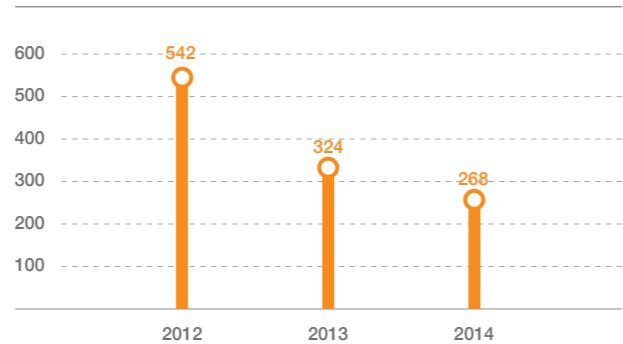


3.7 환경 지출 및 투자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는 SK텔레콤 개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녹색구매 비용은 2013년 기준이 변경되어 2012년 데이터부터 소급 적용하여 재산정하였습니다. 녹색구매 비용은 에너지 소비율 등급,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우수재활용 제품 품질인증, 환경마크 인증 등의 구매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옥 내 LED 조명 교체, 고효율 중계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최근의 녹색구매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외 자연보전 비용은 하천 정화활동 등과 같이 구성원의 환경 봉사

총 환경 원가(녹색구매 제외)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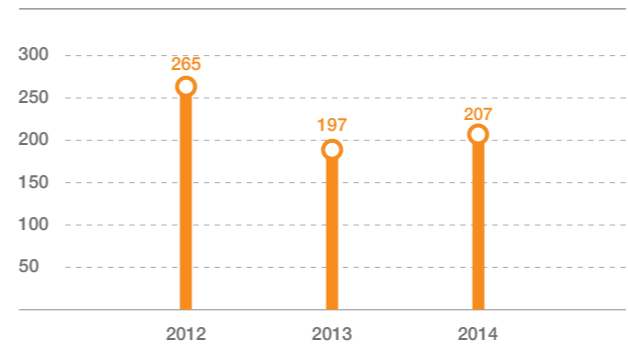


활동에 지출된 금액으로, 2013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존의 인력을 통한 노력 자원봉사에서 재능기부 자원봉사 위주로 봉사활동의 형태가 변형됨에 따라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한편, 2013년부터 폐휴대폰 수거 업무가 SK네트워크로 이관됨에 따라 기타 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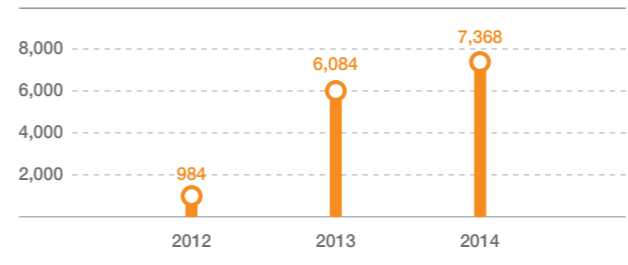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단위: 백만 원

	2012	2013	2014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117	94	101
교육·훈련 비용	10	35	13
기타 비용	77	0	0
재활용 위탁처리 비용	24	29	24
사외 자연보전 비용	108	18	7
부담금, 부과금	206	148	123
총 환경 원가(녹색구매 제외)	542	324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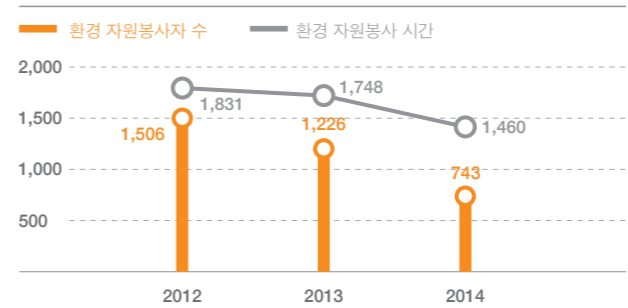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비용 단위: 백만 원



녹색구매 비용 단위: 백만 원



환경 자원봉사 현황 단위: 명, 시간



Other Disclosures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감독기관의 규제를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요구하는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제재 및 조치 현황

제재일	제재 개요	조치 현황
2014.03.07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중지 명령 불이행에 관한 건'으로 45일간의 사업정지명령 부과	사업정지명령 이행 및 이행 결과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보고를 2014년 5월 완료
2014.03.13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심결에서 과징금 166.5억 원, 신규모집금지 7일 및 시정명령 부과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2014년 4월 완료 신규모집금지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2014년 9월 완료
2014.08.21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심결에서 과징금 371억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2014년 9월 완료
2014.12.04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심결에서 과징금 8억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2015년 1월 완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의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

우리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종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의 21.2%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 영업수익의 11.7%, 법인세차감전손이익의 33.6%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소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외 1개 회사의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은 타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우. 135-984

T 02-2112-0100
F 02-2112-0101
www.kr.kpmg.com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5년 2월 2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제일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는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 텔레콤”)의 연차보고서 2014 (이하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SK 텔레콤은 보고서에 실린 모든 정보의 수집, 분석, 취합,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 의 책임은 SK 텔레콤의 경영진에 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검증은 DNV GL 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SK 텔레콤 보고서의 독자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SK 텔레콤이 관리통제력을 가지는 한국 내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다루고 있으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회사, 관련회사 및 협력사의 성과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 의 검증 업무는 2014 년도 데이터에 한정됩니다. DNV GL 의 검증 활동은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GRI G4 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 내용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
-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APS) 2008 에서 제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평가
-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정보 및 성과 데이터 검증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측면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DNV GL 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 (VeriSustainTM: www.dnvgl.com/assurance/default.aspx) 및 AA1000AS(2008)에서 정의하고 있는 Type 2 검증 방법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GRI G4.0 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지속가능성 성과 평가도 실시되었습니다. 검증팀은 중간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검증 심사는 2015 년 5 월 실시되었으며, 현장 검증은 SK 텔레콤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을 평가
- 주요 부서의 담당자들과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이해관계자 설문 보고서 및 중요성 평가 보고서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SK 텔레콤의 중요한 통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 3 자의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 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SK 텔레콤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DART 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SK 텔레콤의 홈페이지(www.sktelecom.com)에 게시된 자료는 금번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SK 텔레콤의 내부 문서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대비하여 검증되었으며, 검증팀은 경제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시험 했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샘플링을 포함해서 한정된 범위의 근거확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데이터의 경우, 취합데이터의 확인의 형태로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GRI 대비표에 직접 명시된 정성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 여부만을 검증하였습니다. DNV GL 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결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 은 보고서가 SK 텔레콤의 2014 년도 주요 경영 전략, 경영시스템 및 성과를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A1000 AP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성:

SK 텔레콤은 크게 고객, 정부,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및 NGO, 협력사 및 구성원으로 구성된 6 개의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했습니다. SK 텔레콤의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전사 차원 혹은 개별 부서 단위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SK 텔레콤은 이해관계자의 주요 이해사항 및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보고서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DNV GL 은 포괄성 원칙을 ‘양호’로 평가 하였습니다.

중요성:

SK 텔레콤은 연간 주기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분석, 동종사 벤치마킹, 미디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에 대해 그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평가된 이슈들은 수익성, 자본 효율성, 미래가치 창출 등의 재무적 측면을 반영하여 최종 11 개의 중요 측면이 결정되었습니다. SK 텔레콤은 가장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DNV GL 은 중요성 원칙을 '양호'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응성:

SK 텔레콤의 연차 보고서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측면의 중요 성과 측면에서 회사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SK 텔레콤의 이해관계자 설문 및 중요성 평가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는데 활용 되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반영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견해, 관심사항 및 기대사항을 보고서를 준비하고 SK 텔레콤의 지속가능경영을 체계화하는데 반영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 비전과 전략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관련 거버넌스와 2014 년도 달성 성과에 대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SK 텔레콤에서 지지하고 있는 UN Global Compact 에 대한 이행 정도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DNV GL 은 대응성 원칙에 대해 '양호'로 평가 하였습니다.

특정 성과 정보와 관련된 발견사항:

DNV GL 은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SK 텔레콤의 AA1000APS(2008)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 것에 더해, 정보/데이터 부분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Type 2 검증). 정보/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해당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용수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재해율 그리고 윤리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Type 2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SK 텔레콤의 개별 데이터 담당자는 상기에서 확인된 정보 및 데이터의 출처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해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 재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사팀은 금번 검증 활동을 통해 SK 텔레콤의 특정 정보 및 데이터의 생성 프로세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공시된 상기 정보 및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의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 은 보고서가 SK 텔레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경영시스템 및 성과를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기 원칙 달성 수준 부분에 언급된 권고사항에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들을 권고드립니다.

- 내외부 데이터 및 정보의 출처는 추후 보고서 발행과 데이터 관리자들이 일관성 있는 데이터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 은 지속가능보고서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NV GL 의 환경 및 사회 검증 심사 전문가들은 전세계 약 100 여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NV GL 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내의 기술내용과 데이터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DNV GL 은 검증 프로세스 동안 이해관계자 면담 시 중립성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5월 27일

서울, 대한민국

안인균

대표이사

(주)디엔브이제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검증 범위

이 검증의견서는 SK텔레콤(주)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LRQA)는 SK텔레콤(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주)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기록된 SK텔레콤(주)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관련 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측의 표와 같이 검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과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온실가스 보고서의 작성과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관리를 유지하는 책임은 SK텔레콤(주)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LRQA의 책임은 SK텔레콤(주)의 계약에 의해 보고서의 보증업무에 한정됩니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SK텔레콤(주)에 의하여 승인되고, SK텔레콤(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LRQA의 검증 방법

LRQA의 검증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SK텔레콤(주) 온실가스 보고서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합리적 보증 수준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심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심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장 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에너지 사용량 기록을 관리하는 관련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자료의 관리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2014년 SK텔레콤(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의 데이터 및 검증하였습니다.

보증 수준 및 중요성

이 검증의견서의 검증 보증 정도는 합리적 보증이며, 2.5%의 중요성 기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LRQA의 의견

LRQA의 검증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중요성 측면에서 의심을 줄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결론의 전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 장비 중 전기 사용량 정보가 관리되지 않은 일부 소형 기기들에 대한 배출량은 유사 기기들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 양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이 적용된 통신 장비의 숫자는 파악되었으나 기업정보 보안상 비공개 요청으로 본 보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승빌딩 17층 150-923

LRQA 참조번호 : SEO 6017128

SK텔레콤(주) 온실가스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정의에 따름)	2014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7,134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735,750
온실가스 총 배출량	742,884

상기 데이터는 CO₂의 환산 톤 수치에 해당함

2015년 3월 27일

유상근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를 대표하여

검증의견서

본 검증의견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 검증 의견임.

제3자 배상책임

LRQA, 그 관계사와 자회사 및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 조항에서 'Lloyd's Register Group'으로 나타냅니다. Lloyd's Register Group은 누구에게도 이 문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조언이나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야기된 어떠한 손실, 손상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예외로 하며, 이런 경우 모든 책임과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에 기술된 조건에 따릅니다.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5. Appendix

중요성 평가

CEO 인권정책성명

유엔글로벌콤팩트

SASB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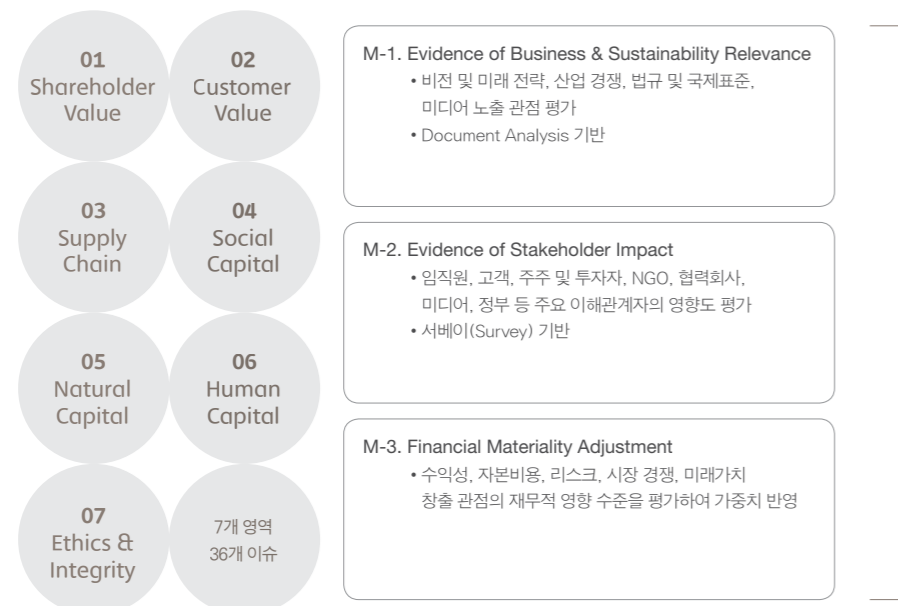
GRI 인덱스

재무 성과표(개별)

중요성 평가

SK텔레콤의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
SK텔레콤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RI 가이드라인과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IR> 프레임워크가 권고하는 보고 주제 결정과 내용 구성에 관한 가이드를 준수하며, 매년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통해 주요 보고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정의하고 있는 '중요성(Materiality)'은 사업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연관성(Relevance)과 SK텔레콤의 이해관계자 및 SK텔레콤의 지속적 가치 창출 능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Impact)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SK텔레콤의 비전 및 전략, 산업 경쟁, 국제표준과 미디어 노출 관점에서 평가하며, 연례 이해관계자 참여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영향도 평가를 수렴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의 단·중·장기적 재무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수익성, 자본비용, 리스크, 시장 경쟁, 미래가치 창출 측면의 영향을 고려한 재무적 영향도 평가(Financial Materiality)가 중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중요성 평가는 2015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M-1.

Evidence of Relev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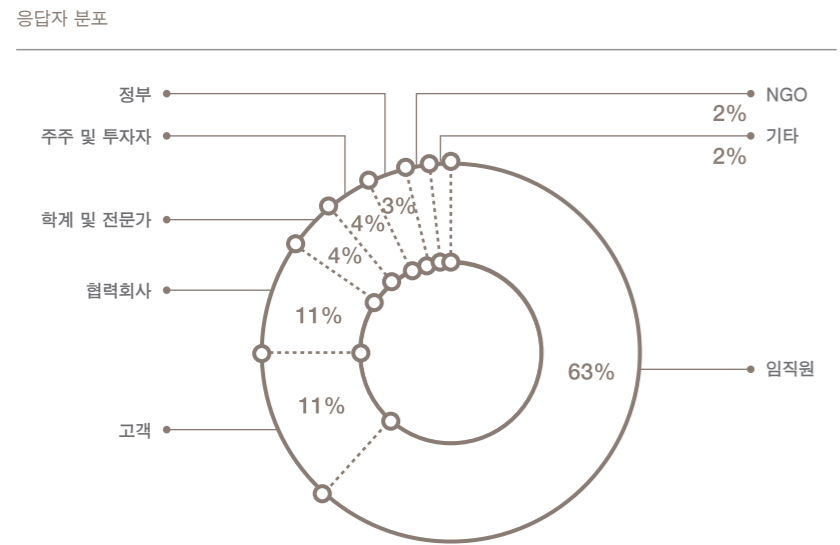
각 주제의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성 측면의 연관성(Relevance)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 비전 및 전략 연관성 평가, 산업 경쟁

이슈 평가, 국제 이니셔티브 연관성 평가, 미디어 노출 키워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평가는 문서화된 자료 분석에 근거하였으며,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보고 주제를 우선순위화하였습니다.

<p>비전 및 전략 연관성</p>	<p>동종산업 이슈</p>
<p>SK텔레콤은 2012년 새로운 비전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중기 전략으로 4th To-be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주제가 중·장기 비전 및 4th To-be 세부 전략을 달성하는 데 연관되어 있는 주제인지를 평가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내용: 비전 2020 연관성, 4th To-be Model,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 공식 보고 자료, 과거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4년 연간 애널리스트 미팅 자료 	<p>각 주제가 글로벌 통신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인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우선 및 유선통신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어떤 주제를 높은 우선순위로 보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업: 유무선 글로벌 통신기업 12개사 · 조사 내용: 통신기업 Annual Report 및 Sustainability Report의 보고 핵심 이슈
<p>국제 이니셔티브 연관성</p>	<p>미디어 노출 키워드</p>
<p>SK텔레콤이 대외 지지를 천명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콤팩트 Advanced Level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책임표준인 ISO26000,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벤치마크 DJSI 등 공신력을 인정받는 이니셔티브 및 표준(Standard)을 토대로 각 주제의 연관성을 평가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통합보고위원회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GRI G4 Guidelines · UNGC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Advanced Level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 ISO26000 	<p>2014년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주제를 조사하였습니다. 2014년 증시·인사 관련 기사를 제외한 1,141건 대상 기사의 대표 키워드를 분석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간: 2014.01.01~2014.12.31 · 대상 매체: 조선, 중앙, 동아 등 12개 전국 종합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TV 뉴스, 경제지 포함

M-2. Evidence of Impact
 각 주제의 이해관계자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조사는 SK텔레콤의 6대 이해관계자와 미디어 및 학계를 포함하여 총 357명의 개인 및 기관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 조사는 주요 이슈 선정 및 중요도 파악을 위한 문항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평가, 각 이슈별 현 수준 평가로 구성되었습니다.

- 조사 기간: 2015.03.01~2015.04.01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 3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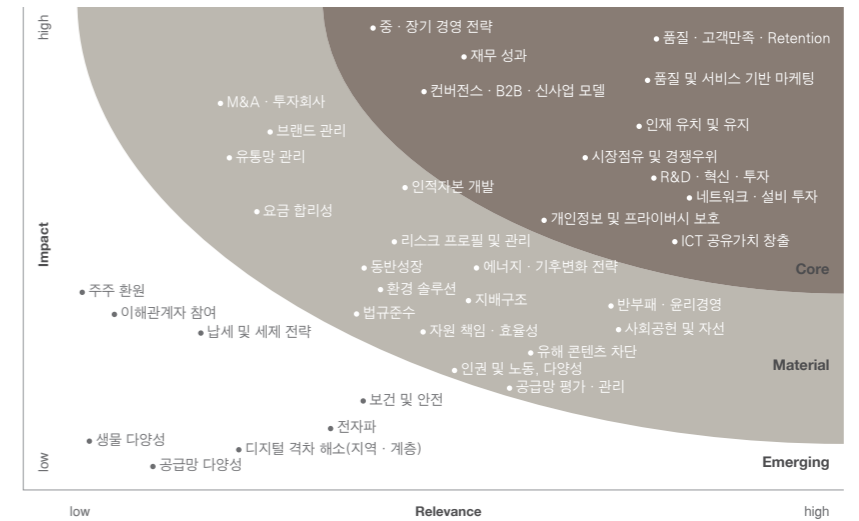


주요 응답 이해관계자

주주 및 투자자	정부	NGO
한국투자증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유니세프
신한금융투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어린이재단
미래에셋증권	국회 외	사단법인초록
CLSA		지구촌나눔운동 외
Credit Suisse		
Deutsche Bank 외		
학계 및 전문가	협력회사	미디어
유엔글로벌콤팩트	(주)감마뉴	국민일보
한국협회	(주)프레인	서울경제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주)비전아이디앤씨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주)아이에스엘코리아 외	이데일리 외
연세대학교 외		

M-3. Financial Materiality Adjustment
 각 주제가 SK텔레콤의 단·중·장기에 걸친 재무적 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1)수익성(Profitability), 2)자본 비용(Capital Efficiency), 3)리스크(Risk), 4)시장 경쟁(Market Competition), 5)미래 가치 창출(Future Value Creation) 등 총 5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주요 이슈 선정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 및 지속가능성 연관성 측면과 이해관계자 영향도 측면, 재무적 가치 창출 영향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우선순위화하여 보고에 반영하였습니다. '품질 · 고객만족 · Retention'을 비롯한 11개 'Core Group'에 관하여는 모두 서술적(Narrative) 방법을 통하여 각 주제별 주요 현황과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Material Group'의 경우 대부분 서술적 방법을 통해 보고하였으나 일부 이슈는 데이터만 보고하였습니다.

핵심 이슈 보고 위치

핵심 이슈	관련 GRI Aspects	보고 위치 및 방법
1. 품질 · 고객만족 · Retention	Product and Service Labeling (Customer Satisfaction)	p.52
2. 품질 및 서비스 기반 마케팅	Product and Service Labeling Marketing Communications	p.52, p.121
3. 인재 유치 및 유지	Market Presence Employment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p.74, p.115
4. 재무 성과	Economic Performance	p.26, p.36, p.102
5. R&D · 혁신 · 투자	Non GRI	p.62
6. 시장점유 및 경쟁우위	Market Presence	p.48
7. 네트워크 · 설비 투자	Non GRI	p.58
8. 중 · 장기 경영전략	Non GRI	p.42
9. 컨버전스 · B2B · 신사업 모델	Non GRI	p.62
10. ICT 공유가치 창출	Local Communities Indirect Economic Impact	p.66
1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Customer Privacy	p.54

*모든 중대 측면별 보고 경계는 SK텔레콤으로 한정하였음

CEO 인권정책성명

SK텔레콤은 '기업의 영구 존속, 발전을 통해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는 SKMS규범을 근간으로 삼아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준수하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당사의 사회적 책임은 고객,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에 높은 수준의 인권 존중에 관한 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높은 수준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일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계약, 구매,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SK텔레콤은 '유엔 인권 기본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 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SK텔레콤은 사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침해의 방조 또는 공모 행위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노동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갖는 조직, 운영구조, 모니터링 절차, 발생 사건에 대한 조치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투명한 경영구조를 갖출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본 정책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자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ICT 사업자로서 다음의 측면에서 잠재적 인권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예방적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사업장 내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인권
 - 강제노동·아동노동 등 잘못된 노동관행의 근본적 방지
 -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신 등에 따른 차별 방지
 - 정치적·종교적·신체적 자유와 시민권 존중
 - 기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 안전·보건, 근무시간 등

-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법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요구 및 기록, 저장
 - 정보 저장에 대한 사전 고지와 주의 의무, 개인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삭제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등 충분한 보안 체계
 - 서비스·마케팅 차원에서 제한되고 책임 있는 개인정보 활용

- 3)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 계층·장애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 의무
 - 디지털·스마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요금제도, 시스템 등
 -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 보호를 위한 유통 정보에 대한 책임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지지

- 4) 기술, 서비스, 데이터 오용 방지
 - 기술, 전자 장비, 데이터의 범죄 목적(Dual Purpose) 활용에 대한 거부
 - 도청, 전파 방해, 해킹 등의 기술 오용 근절

SK텔레콤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침해 사례를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 당하신 경우 다음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ktelecom.com/sktelecom/csr/csr04_02.jsp)

SK텔레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권 원칙 지지와 준수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동 현

2015년 1월

SK텔레콤 대표이사 장동현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Advanced Criteria Index

UNGC Advanced Criteria		Cross Reference/Direct Answer
전략과 운영에 있어 UNGC 10대 원칙 이행		
Criterion 1	UNGC 10대 원칙을 조직의 기능과 사업 단위에 편입하려는 노력	p.18-21, p.91
Criterion 2	UNGC 10대 원칙에 대한 가치사슬 내 구현	p.88-91
확고한 인권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3	인권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142-143
Criterion 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	p.142-143
Criterion 5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인권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88-91, 2013년부터 인권 위험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급망 선정 시 인권, 노동, 환경 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확고한 노동 관리 정책과 절차		
Criterion 6	노동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91, p.119-121
Criterion 7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	p.121,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실시하여 노동 원칙을 반영함
Criterion 8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노동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89, p.121,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 중이며, 노동조합이 관련 이슈를 확인함
확고한 환경 정책과 절차		
Criterion 9	환경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70-73, p.124-127
Criterion 10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	p.70-73, p.124-127
Criterion 11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환경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70-73, p.124-127
확고한 반부패 정책과 절차		
Criterion 12	반부패에 대한 추진의지, 전략, 정책	p.96-99
Criterion 13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	p.96-99
Criterion 14	비즈니스 및 경영절차 내 반부패 원칙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p.96-99
보다 넓은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		
Criterion 15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통한 공헌	p.66-69, p.123
Criterion 16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와 자선활동	p.66-69, p.123
Criterion 17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p.66-69, p.88-91
Criterion 18	유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과 외부 이니셔티브 활동	p.66-69, p.88-91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배구조와 리더십		
Criterion 19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 추진의지와 리더십	p.18-21
Criterion 20	이사회와 지속가능성 안전 채택과 관리 감독	p.88-91
Criterion 21	이해관계자 참여	p.88-91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dex - Telecommunication Standards

Activity Metric

Code	Accounting Metric	Cross Reference/Direct Answer
TC0301-A	무선가입자 수	p.31
TC0301-B	유선가입자 수	p.34, SK텔레콤은 주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TC0301-C	광대역(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TC0301-D	네트워크 트래픽, 이동통신망 비율, 고정통신망 비율	p.34, p.60
TC0301-E	네트워크 대역폭 용량 및 임대 비율	p.60,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망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회선을 임대하고 있음

Disclosure Metric

Topic	Code	Accounting Metric	Cross Reference/Direct Answer
운영상의 배출량	TC0301-01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그리드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이동통신망 및 고정통신망 에너지 소비량	p.124
고객정보보호	TC0301-02	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련 정책과 고객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보유 정책	p.54
	TC0301-03	고객정보 2차 사용을 위해 수집된 고객 비율 및 동의 비율	-
	TC0301-04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과징금(과태료) 총액 및 제재조치 현황	p.5, p.127,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과징금 없음
	TC0301-05	고객정보 관련 법적 제재 건수 및 공개 비율	p.5, p.127,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재 없음
정보 보안	TC0301-06	정보보안 위반 건수 및 비율(개인식별정보 포함)	정보보안과 관련된 위반 사실 없음
	TC0301-07	정보 보안 리스크 식별 및 규명에 대한 경영 접근 방식	p.54
폐기물 관리	TC0301-08	단말기 회수 프로그램을 통한 재사용률, 재활용률, 폐기물	p.126
통신 두절에 대한 체계적 위험 관리	TC0301-09	통신 장애 빈도 및 평균 지속기간	-
	TC0301-10	통신 장애 시 대응 체계	p.93
공정경쟁	TC0301-11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과징금(과태료) 총액 및 제재조치 현황	p.127

GRI Index

GRI G4 General Standard Disclosures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Strategy and Analysis				
G4-1	CEO 메시지	●	p.18-21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	p.94-95	√
Organizational Profile				
G4-3	조직명	●	SK텔레콤(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
G4-4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	p.22, p.57	√
G4-5	본사 위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
G4-6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	●	p.160	√
G4-7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	p.4, 주식회사	√
G4-8	시장 영역(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 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	p.22, 95%이상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	√
G4-9	조직의 규모	●	p.22-29, p.102-109, p.154	√
G4-10	인력의 크기	●	p.119	√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	p.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5조에 따라 노조 가입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단체협약 대상 비율은 100%로 적용됨	√
G4-12	조직의 공급망	●	주요 공급자로는 단일장비(Devices) 사업자, 시스템 사업자, 네트워크 운영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프로바이더 등이 있음	
G4-13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	p.24-25, p.34	√
G4-14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에 대한 명시	●	p.92-95, SK텔레콤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지하며, UNGC 리드(LEAD)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하나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적극 대응함	√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현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	p.90-91	√
G4-16	조직이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	p.2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Identified Material Aspects And Boundaries				
G4-17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 수록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	●	p.32-35, 연결대상 주체는 2014 사업보고서 6p 참조	√
G4-18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 원칙 적용	●	p.138-141	√
G4-19	보고 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 측면의 목록	●	p.138-141	√
G4-20	각 중대 측면별 조직 내 측면경계, 조직 내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	●	p.138-141	√
G4-21	각 중대 측면별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	●	p.138-141	√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 보고 이유	●	특별한 주의를 필요한 경우, 본문에 별도의 주석 표기함	√
G4-23	이전 보고 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	특별한 주의를 필요한 경우, 본문에 별도의 주석 표기함	√
Stakeholder Engagement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	p.89, p.140	√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	p.88	√
G4-26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p.89, p.138	√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대응 현황	●	p.89, p.138	√
Report Profile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 기간(회계연도 또는 역년)	●	p.2-3, FY2014	√
G4-29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보고 일자	●	p.2-3	√
G4-30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	p.3-4, Annually	√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	●	p.162	√
G4-32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	p.1, Comprehensive	N/A
G4-33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조직의 정책과 현 관행	●	p.1	N/A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Governance				
G4-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	p.80-81	√
G4-35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고위 임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토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	●	p.84	√
G4-36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 내 임원급 인사나 책임이 부여된 인사의 임명	●	p.82-83	√
G4-37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토픽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협의하는 과정	●	p.89	√
G4-38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의 구성	●	p.82	√
G4-39	최고 거버넌스 기구 의장의 임원 직위 겸임 여부	●	p.80	√
G4-40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그 산하 위원회의 임명과 선정 절차, 그리고 아래 사항을 포함해 최고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의 임명 및 선정 기준	●	p.82-83	√
G4-41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	p.83	√
G4-42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조직의 목적, 가치 또는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을 개발, 승인, 개선하는 것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의 역할	●	p.80	√
G4-43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토픽에 대한 공동 지식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	●	p.90-91	√
G4-44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토픽의 관리 방식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	●	p.87	√
G4-45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	p.89, p.92-95	√
G4-46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토픽에 대한 조직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검토할 때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	p.84, p.92-95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G4-47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검토하는 빈도	●	p.84	√
G4-48	조직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식 검토하고 승인하며, 중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최고 위원회 또는 직위	●	p.87	√
G4-49	중요 사항을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하는 절차	●	p.87, p.90	√
G4-50	최고 거버넌스 기구에 보고된 중요 사항의 성격과 보고 횟수, 그리고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	●	p.84, p.86-87	√
G4-51	보수 유형별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 보수 정책상의 성과 기준과 최고 거버넌스 기구 및 고위 임원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목표와의 관련성	●	p.87	√
G4-52	보수 결정 절차(보수자문위원의 관여 여부, 경영과 독립적으로 수행 여부, 보수자문위원과 조직의 관계)	●	p.84, p.87	√
G4-53	보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어떻게 수렴하고 참작하는지 보고 (보수 정책에 대한 투표 결과와 보수 정책에 대한 제안 포함)	●	p.87	√
G4-54	주요 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비율	●	p.87	√
G4-55	주요 사업장이 있는 국가별로, 전체 근로자(최고 연봉자는 제외)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중앙값과 대비한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 증가율의 비율	●	p.87	√
Ethics and Integrity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	●	p.96. 홈페이지 참조 (www.sktelecom.com/ethics)	√
G4-57	윤리 및 법규 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	p.98	√
G4-58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의 내·외부 제도 (계통보고, 내부고발제도, 핫라인 등)	●	p.98	√

GRI G4 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Economic Performance				
DMA	경영 접근 방식	●	p.26-29	
EC1	직접적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	p.36-37	√
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	p.70-71, p.94-95	√
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총량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정직원 기준 100% 적용됨	
EC4	정부 재정 지원	●	p.36-37	√
Market Presence				
DMA	경영 접근 방식	●	p.119-120	
EC5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 임금과 비교한 성별 기본 초임 임금 비율	●	모든 사업 지역에서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지 않음. 단, 지역 최저 임금 대비 신입 사원 임금 비율은 내부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EC6	주요 사업장의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	주요 사업장인 한국의 경우, 고위 경영진의 비율 100%가 현지 출신임	√
Indirect Economic Impacts				
DMA	경영 접근 방식	●	p.66-69	
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	p.60-61, p.66-69	√
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	p.60-61, p.66-69	√
Products and Services				
DMA	경영 접근 방식	●	p.62-65, p.70-73	
EN27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완화 정도	●	p.72	√
EN28	판매된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재생 비율(범주별)	N/A	산업 특성상 해당 사항 없음	
Employment				
DMA	경영 접근 방식	●	p.119-120	
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	p.119-120	√
LA2	주요 사업장별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	p.120	√
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	p.120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DMA	경영 접근 방식	●	p.74-77	
LA12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성별, 연령별, 소수집단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	p.80-81, p.119	√
Local Communities				
DMA	경영 접근 방식	●	p.66-69	
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	매출 95% 이상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인 한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실시	
SO2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실질적·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음	
Product and Service Labeling				
DMA	경영 접근 방식	●	p.52-57	
PR3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 절차에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리고 해당 정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	p.121	√
PR4	위반의 결과별,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	p.121	√
PR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p.31, 54	√
Marketing Communications				
DMA	경영 접근 방식	●	p.52-57	
PR6	금지되거나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	●	0건.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되거나 사회적 논란 또는 금지된 제품이 확인되지 않음	
PR7	광고, 프로모션,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별)	●	p.127	
Customer Privacy				
DMA	경영 접근 방식	●	p.52-57	
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p.54, p.121. 총 46건의 고충처리 접수 내역 중 고객정보 위반 관련 이슈 없음	√

GRI G4 Specific Standard Disclosures – Other Disclosures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EN3	조직 내 에너지 소비	●	p.124-125	√
EN5	에너지 집약도	●	p.124-125	√
EN6	에너지 소비 감축량	●	p.124-125	√
EN8	수원별 총 취수량	●	p.125	√
EN11	보호 지역 또는 보호 지역 밖의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 임대, 관리하는 사업장	●	p.126	√
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	p.124	√
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	p.124	√
EN1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	p.124	√
EN19	온실가스 배출 감축	●	p.72, p.124	√
EN23	유형 및 처리 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	p.125	√
EN29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주요 벌금의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 조치의 수	●	p.73, 환경법규 위반은 0건이며, 과징금 및 벌금 납부 사실 없음	√
EN31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유형별)	●	p.126-127	√
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p.122	√
EN34	공식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제기, 처리, 해결된 환경영향 관련 고충 건수	●	p.89, 총 46건의 고충처리 접수 내역 중 환경 관련 이슈 없음	√
LA6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 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지역별, 성별)	●	p.121	√
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 시간(성별, 근로자 범주별)	●	p.120-121	√
LA10	지속적인 고용과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유지하고 은퇴 후 관리를 도와주는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	p.120-121	√

● Reported / ○ Not Reported

Indicator	Description	Reported	Cross Reference /Direct Answer/Omission	Assurance
LA11	업무 성과 및 경력 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성별, 근로자 범주별)	●	p.77, p.116	√
LA14	노동관행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p.122	√
LA16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	p.89	√
HR5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p.91, p.142-143, 아동노동 금지 원칙 준수를 인권 정책을 통해 천명하고 있으며, 공급망 정책에 포함하여 아동노동에 대해 사전예방	√
HR6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p.91, p.142-143, 강제노동 금지 원칙 준수를 인권 정책을 통해 천명하고 있으며, 공급망 정책에 포함하여 강제노동에 대해 사전예방	√
HR9	인권 검토 또는 인권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수와 비율	●	p.91, p.142-143, SK텔레콤은 인권 정책을 전 사업장 및 관련 공급망에 적용하고 있음	√
HR10	인권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	p.122	√
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 고충 건수	●	p.89, 총 46건의 고충처리 접수 내역 중 인권 관련 이슈 없음	√
SO3	부패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의 수 및 비율과 파악된 중요한 위험	●	해당 내용은 유통망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진단으로 정량 비율은 산정 불가함	√
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	p.96	√
SO5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p.97	√
SO6	기부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국가별, 수령인·수혜자별)	●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기부 사실 없음	√
SO7	경쟁 저해 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	p.127	√
SO8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와 비금전적 제재의 횟수	●	p.127	√
SO9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의 비율	●	p.122	√
SO11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 건수	●	p.89, 총 46건의 고충처리 접수 내역 중 사회 관련 이슈 1건 있음	√
PR1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	p.121	√
PR9	제품, 서비스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벌금의 액수	●	p.127	√

재무 성과표(개별)

재무상태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자산			
유동자산	2,689,913	2,817,782	2,589,699
현금및현금성자산	248,311	448,459	256,577
단기금융상품	143,000	166,000	179,300
단기투자자산	197,161	102,042	56,401
매출채권	1,559,281	1,513,138	1,407,206
단기대여금	67,989	72,198	75,449
미수금	305,990	388,475	383,048
미수수익	6,354	5,682	4,147
선급금	51,619	9,112	3,366
선급비용	86,070	82,837	76,016
유동파생금융자산	-	-	9,656
재고자산	23,694	24,596	15,99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667	121,337
기타의 유동자산	444	1,576	1,201
비유동자산	20,022,549	20,009,637	19,659,803
장기금융상품	69	7,569	69
장기투자자산	608,797	729,703	733,893
중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	8,181,769	8,010,121	7,915,547
유형자산	7,705,906	7,459,986	7,119,090
영업권	1,306,236	1,306,236	1,306,236
무형자산	1,928,169	2,239,167	2,187,872
장기대여금	38,457	39,925	49,672
장기선급비용	28,551	23,007	21,582
보증금	156,807	152,057	149,373
파생금융자산	67,728	41,712	52,303
이연법인세자산	-	-	123,723
기타의 비유동자산	60	154	443
자산총계	22,712,462	22,827,419	22,249,502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부채			
유동부채	3,378,046	4,288,073	4,343,086
미지급금	1,086,485	1,556,201	1,509,456
선수금	39,148	43,599	46,693
예수금	801,119	574,166	552,380
미지급비용	615,488	653,742	600,101
미지급법인세	91,315	104,564	52,267
선수수익	92,783	178,569	252,298
유동파생금융부채	-	21,170	-
유동충당부채	50,456	66,559	286,819
단기차입금	200,000	260,000	33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11,863	622,703	555,106
유동성장기미지급금	189,389	206,800	157,966
비유동부채	5,792,195	5,223,938	5,529,368
사채	4,655,137	4,014,777	3,992,111
장기차입금	80,147	85,125	348,333
장기미지급금	657,001	828,721	705,605
장기선수수익	19,544	50,894	160,820
확정급여부채	15,555	22,886	34,951
파생금융부채	130,889	100,210	63,599
비유동충당부채	27,676	19,537	99,355
이연법인세부채	144,876	44,601	-
기타의 비유동부채	61,370	57,187	124,594
부채총계	9,170,241	9,512,011	9,872,454
자본			
자본금	44,639	44,639	44,639
기타불입자본	433,894	433,894	(236,160)
이익잉여금	12,996,790	12,665,699	12,413,981
기타자본구성요소	66,898	171,176	154,588
자본총계	13,542,221	13,315,408	12,377,048
자본과부채총계	22,712,462	22,827,419	22,249,502

손익계산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수익	13,012,644	12,860,379	12,332,719
매출액	13,012,644	12,860,379	12,332,719
영업비용	11,275,484	10,890,695	10,657,331
종업원급여	588,635	598,885	508,226
지급수수료	5,591,245	5,333,869	5,576,763
감가상각비	2,095,702	2,006,896	1,724,707
망접속정산비용	771,786	770,125	796,580
전용회선료및전파사용료	370,549	412,217	431,522
광고선전비	213,605	237,291	209,804
임차료	377,112	362,659	330,611
상품및기타구입비용	457,049	399,810	295,757
기타영업비용	809,801	768,943	783,361
영업이익	1,737,160	1,969,684	1,675,388
금융수익	82,276	81,196	381,930
금융비용	293,338	422,764	533,198
기타영업외수익	37,422	47,618	161,756
기타영업외비용	184,177	417,252	133,647
중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57,593	37,685	5,5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21,750	1,220,797	1,546,719
법인세 비용	293,209	310,640	303,952
당기순이익	1,028,541	910,157	1,242,767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단위: 원)	14,262	12,837	17,832
희석주당순이익(단위: 원)	14,262	12,837	17,406

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당기순이익	1,028,541	910,157	1,242,767
기타포괄손익	(118,086)	22,515	(176,744)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3,808)	5,927	(10,83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66,103)	4,795	(146,203)
파생상품평가손익	(38,175)	11,793	(19,703)
당기총포괄손익	910,455	932,672	1,066,023

현금흐름표

제 31 기 2014.12.31 현재
 제 30 기 2013.12.31 현재
 제 29 기 2012.12.31 현재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21,433	3,022,473	3,161,516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3,580,032	3,315,722	3,668,720
당기순이익	1,028,541	910,157	1,242,767
수익·비용의 조정	2,886,389	3,120,427	2,249,24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334,898)	(714,862)	176,712
이자수익의 수취	20,954	29,695	45,748
배당금의 수취	13,048	20,641	30,567
이자비용의 지급	(224,119)	(246,632)	(265,355)
법인세납부	(168,482)	(96,953)	(318,16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22,617)	(2,393,763)	(4,773,62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9,389	531,208	1,565,475
단기투자자산의 순감소	-	-	35,416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30,500	13,300	455,700
단기대여금의 회수	197,925	279,815	273,147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522	-	-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54,218	29,762	449,720
중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1,808	88,602
투자부동산의 처분	-	-	61,186
유형자산의 처분	25,677	3,148	187,560
무형자산의 처분	1,127	965	2,8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3,667	190,393	-
장기대여금의 회수	3,660	11,727	10,689
기타의 비유동자산의 처분	93	290	644

단위: 백만 원

	제 31 기	제 30 기	제 29 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42,006)	(2,924,971)	(6,339,097)
단기투자자산의 순증가	94,802	45,031	-
단기대여금의 증가	195,700	275,913	243,494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522	7,500	-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28,801	9,313	4,425
중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10,060	206,791	3,131,483
유형자산의 취득	2,319,016	2,201,354	2,883,630
무형자산의 취득	91,060	179,069	72,328
장기대여금의 대여	45	-	22
영업양수로인한현금유출	-	-	3,387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	328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98,911)	(436,749)	973,16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801,035	1,529,858	3,934,051
단기차입금의 차입	-	-	33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3,552	96,455	1,986,800
신증자본증권의 발행	-	398,518	-
사채의 발행	797,364	1,014,859	1,530,714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입	119	20,026	86,53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599,946)	(1,966,607)	(2,960,890)
단기차입금의 상환	60,000	7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12,814	457,110	1,650,000
장기미지급금의 상환	207,668	161,575	92,158
사채의 상환	629,940	621,976	558,184
배당금의 지급	666,802	655,946	655,133
신증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6,840	-	-
파생상품거래로인한현금유출	5,882	-	5,41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00,095)	191,961	(638,94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48,459	256,577	895,55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3)	(79)	(3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48,311	448,459	256,577

Global Network

한국

SK Telecom Co., Ltd.
65, Eulji-ro, Jung-gu
Seoul 100-999, Korea
Tel. 82-2-6100-2114

미국

SK Telecom Americas
310 De Guigne Drive,
Sunnyvale,
CA 94085, U.S.
Tel. 1-408-328-2900

SK Telecom Co., Ltd.

New York Office
10F, 55 East 59th Street,
New York,
NY 10022, U.S.
Tel. 1-646-737-3462

중국

SK Telecom
(China) Holding Co., Ltd.
25F, SK Tower, No. 6 Ji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Tel. 86-10-5920-7777

일본

SK Telecom Co., Ltd.
Tokyo Office
8F, NBF Hibiya Bldg., 1-1-7,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0011, Japan
Tel. 81-3-3591-3800

베트남

The Representative Office of
SK Telecom Co., Ltd.
in Ho Chi Minh City, Vietnam
Unit 1212A, 12F,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Ben Ngha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822-9145

말레이시아

SK Malaysia
Representative Office
Suite 53A, Level 53,
Vista Tower, The Intermark,
348 Jalan Tun Razak,
5040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2166-9011

Investor Information

CORPORATE HEADQUARTERS

SK Telecom Co., Ltd.
65, Eulji-ro, Jung-gu, Seoul 100-999, Korea
Tel. 82-2-6100-2114

DATE OF ESTABLISHMENT

March 29, 1984

PAID IN CAPITAL

KRW 44,639 million as of December 31, 2014

NUMBER OF COMMON SHARES

80,745,711 Shares as of December 31, 2014

SECURITIES LISTINGS

Korea Stock Exchange: 017670.KS(Common Stock)
New York Stock Exchange: SKM(ADS)
London Stock Exchange: SKMD(ADS)

TRANSFER AGENT AND REGISTRAR

Kookmin Bank
Securities Agency Business Department,
36-3, Yeo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Tel. 82-2-2073-8110
Fax. 82-2-2073-8111

AMERICAN DEPOSITARY SHARES

Citibank, N.A.
388 Greenwich St., 14th Floor, New York,
NY 10013, USA
Tel. 1-212-816-6855
Fax. 1-212-816-6865

AVAILABLE FILINGS

Form 20-F
Form 6-K: Quarterly Reports,
Proxy Statements,
and other material announcements

ANN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riday, March 20, 2015, at 10 AM
SK Telecom Boramae Building, Boramaero 5gil 1,
Gwanak-gu, Seoul, Korea

COMPANY WEBSITE

www.sktelecom.com

INVESTOR RELATIONS

65, Eulji-ro, Jung-gu, Seoul 100-999, Korea
e-mail: skt.ir@sk.com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인쇄일	제작 참여 (*직급 생략)			
2015년 7월	윤리경영팀	곽정아	HR팀	박치홍
발행	운영지원담당	박상현		박지혜
SK텔레콤		이지혜		윤소천
발행인	현장경영팀	한상훈	Values교육팀	김명주
장동현		정도길	정책개발팀	임현준
제작 책임	고객중심경영팀	김혜성	사업협력팀	류성연
재무관리실	정보보호기획팀	김현태	PR기획팀	이원석
IR팀	마케팅전략팀	권순교		정욱
		이형배		도정한
	유통기획팀	심규진	PR1팀	정수희
	요금팀	한승호	기술협력팀	백영민
	솔루션전략팀	김대우		양원석
문의	Network전략팀	김일훈	CSV기획팀	장민석
hyeseung.han@sk.com	Access Network Lab	이성근		김대호
	기술전략팀	김성택	CSV운영팀	이승희
		장정국	이사회사무국	장형일
	상품기획1팀	왕태희	SK하이닉스	이진석
	Convergence기획팀	김민이	SK플래닛	윤기섭
	Healthcare전략팀	김태기	SK브로드밴드	김진혁
	사업개발전략팀	이준엽	SK텔링크	이백형
	경영전략팀	최환석		송한기
	성장전략팀	정환석		
		전병준		
	회계팀	곽대훈	기획 & 자문	
	세무담당	김태석	한국생산성본부	
	구매기획팀	송경현		
	동반성장팀	김성수	편집 및 디자인	
	Compliance팀	최정민	미디어브레인	
	SKMS팀	이덕로		
	EMD팀	이지은	사진	
	노사협력팀	조봉래	noon pictures	
	Talent Mgmt. 팀	김종요	인쇄	
		이윤아	일진인쇄	

SK텔레콤 홈페이지
(<http://www.sktelecom.com>)에서
이 보고서를 PDF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인 FSCTM 인증 용지를 사용해 FSCTM Chain of
Custody 인증(인증번호: C110010)을 받은 업체에서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SK Telecom Annual Report 2014>를
인쇄하였습니다.

또한 종이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소비되는 펄프와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이를 생산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인쇄본은 물론 인터랙티브
PDF로도 발간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지면의 한계로
인쇄본에 수록하지 못한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인터랙티브 PDF
보고서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인쇄본 대신 PDF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가꾸는 일에 동참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